공포의 계곡

The Valley of Fear

아서 코난 도일 (1859–1930)

1915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10-09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Arthur Conan Doyle, "The Valley of Fear" (The Strand Magazine 1914–15)

저자

아서 코난 도일 (Sir Arthur Conan Doyle, 1859–1930)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3289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10-09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빅토리아 시대 추리소설 특유의 격조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부 제1장 경고

제1장 경고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만—” 내가 말했다.

“그래야겠지.” 셜록 홈즈가 초조한 듯 말했다.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인내심이 강한 사람 중 하나라고 자부한다. 하지만 그 냉소적인 방해만큼은 정말이지 짜증스러웠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정말이지, 홈즈," 내가 엄하게 말했다. "자네, 가끔은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군."

그는 자신의 생각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나의 만류에 즉각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아침 식사를 앞에 둔 채 손에 머리를 기댄 채였다. 그러고는 방금 봉투에서 꺼낸 종이 조각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이윽고 그는 봉투를 집어 들어 빛에 비춰 보더니, 봉투 겉면과 접힌 부분까지 아주 세밀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포록의 필체로군.”

그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지금껏 딱 두 번밖에 보지 못했지만, 포록의 글씨라는 점은 거의 확실해. 그리스어 'e' 자 위에 독특하게 덧붙여진 장식은 아주 특징적이거든. 하지만 만약 포록이 쓴 것이 맞다면, 이건 분명 아주 중대한 내용일 거야.”

그는 나에게 말을 건다기보다 혼잣말을 하는 것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가 내뱉는 말들이 내 호기심을 강렬하게 자극하는 바람에, 조금 전까지 느꼈던 짜증은 어느새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럼 포록이라는 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물었다.

“왓슨, 포록은 필명일 뿐입니다. 그저 정체를 숨기기 위한 표식에 불과하죠. 하지만 그 이름 뒤에는 교활하고 회피적인 성격의 인물이 숨어 있습니다. 예전에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고 솔직히 밝히면서, 이 거대한 도시의 수많은 인파 속에서 자신을 절대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포록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접촉하고 있는 거물 때문입니다. 상어 곁을 맴도는 작은 물고기나 사자 옆의 자칼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시무시한 존재와 함께라면 그 무엇이든 하찮아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왓슨, 그 존재는 무시무시할 뿐만 아니라 아주 불길합니다. 극도로 불길한 존재죠. 바로 그 점 때문에 그가 내 조사 범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모리아티 교수에 대해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악명 높은 과학적 범죄자는, 범죄자들 사이에서 마치—"

"아, 왓슨, 정말 창피하구려!" 홈즈가 자책하는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가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이 아니니, 막 그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정곡을 찔렀군! 아주 정확한 지적이야!" 홈즈가 외쳤다. "왓슨, 자네에게 이런 예상치 못한 짓궂은 유머 감각이 있는 줄은 몰랐네. 앞으로는 조심해야겠어. 하지만 모리아티를 범죄자라고 부르는 건 법적으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의 경이로움이자 묘미지! 시대를 통틀어 가장 거대한 책략가이자, 모든 악행을 설계하고, 지하 세계를 조종하는 두뇌. 국가의 운명마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두뇌를 가진 사내란 말일세! 하지만 그는 대중의 의심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비판조차 비껴가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관리 능력 또한 너무나 탁월하네. 그래서 자네가 방금 내뱉은 그 말 때문에, 그는 자네를 법정에 세워 자네의 일 년 치 연금을 위자료로 받아낼 수도 있을 정도라네. 그가 그 유명한 『소행성의 역학』의 저자가 아니던가? 순수 수학의 경지에 도달한 그 책은 너무나 고차원적이어서, 과학계의 그 어떤 학자도 비평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라고들 하지. 그런 인물을 자네가 비방할 수 있겠나? 입이 거친 의사와 모함당한 교수라, 자네들이 맡게 될 역할이 딱 그렇군! 이게 바로 천재성이라는 걸세, 왓슨. 만약 내가 저급한 자들에게는 무사히 넘어간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오겠지."

"그 광경을 직접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외쳤다. "그나저나, 방금 포록이라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지요."

"아, 그래요. 소위 포록이라는 자는 거대한 사슬의 끝에 아주 조금 떨어진 곳에 연결된 고리 같은 존재죠. 하지만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포록은 그리 견고한 고리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그 사슬에서 유일하게 결함이 있는 부분이 바로 그자예요."

"하지만 아무리 강한 사슬이라도 가장 약한 고리 하나 때문에 끊어지기 마련이지요."

"정확하네, 왓슨! 그래서 포록이 아주 중요한 거야. 그는 정의를 실현하려는 아주 기본적인 열망을 품고 있네. 게다가 교묘한 수법으로 가끔씩 보내주는 10파운드짜리 지폐가 그에게 적절한 자극이 되어주기도 했지. 덕분에 그는 한두 번 내게 귀중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었네. 범죄를 저지른 뒤에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막아낼 수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정보 말일세. 만약 우리가 암호를 해독할 수만 있다면, 이 통신문도 내가 말한 것과 같은 성격의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 없이 알게 될 걸세."

홈즈는 쓰지 않는 접시 위에 종이를 다시 평평하게 펴 놓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몸을 기울인 채, 아래와 같이 적힌 기묘한 문구를 내려다보았다.

534 C2 13 127 36 31 4 17 21 41 DOUGLAS 109 293 5 37 BIRLSTONE 26 BIRLSTONE 9 47 171

"이건 어떻게 생각하나, 홈즈?"

"이것은 분명 비밀 정보를 전달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암호 해독법이 없다면, 암호문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이번 건에 대해서라면, 전혀 없습니다."

"왜 '이번 경우에는'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통의 칼럼에 실린 가짜 기사들을 읽어내듯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암호들도 많습니다. 그런 조잡한 장치들은 지적 유희를 줄 뿐, 머리를 지치게 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건은 다릅니다. 이건 분명 어떤 책의 특정 페이지에 적힌 단어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어떤 책의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기 전까지는, 저로서도 손을 쓸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더글러스'와 '벌스턴'입니까?"

"분명히 문제의 페이지에는 그런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 책을 가리키지 않은 겁니까?"

"왓슨 박사, 자네 특유의 그 영민함 말일세. 친구들을 즐겁게 만드는 그 타고난 재치라면, 암호와 메시지를 한 봉투에 같이 넣는 실수는 절대 하지 않았겠지. 만약 봉투가 배달 중에 사고라도 난다면 자네는 완전히 끝장나고 말 테니까. 지금처럼 나누어 보내면 둘 다 잘못되어야만 문제가 생기니 그나마 다행이지. 이제 두 번째 우편물이 도착할 때가 지났네. 추가 설명이 담긴 편지가 오거나, 아니면 아마도 이 숫자들과 관련된 그 책이 도착하겠지. 만약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면 나로서도 무척 놀랄 일이네."

홈즈의 예상은 불과 몇 분 만에 적중했다.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편지를 들고 심부름꾼 빌리가 나타난 것이다.

"필체가 똑같군."

홈즈가 봉투를 열며 말했다. 이어 편지를 펼쳐 든 그는 환희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다.

"게다가 직접 서명까지 했어. 자, 왓슨. 우리가 드디어 진전이 좀 있군."

하지만 내용을 훑어 내려가던 홈즈의 미간이 이내 어둡게 일그러졌다.

"이런, 정말 실망스럽군! 왓슨,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갈까 봐 걱정되네. 포록이라는 자가 아무런 해를 입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야."

"'친애하는 홈즈 씨,' 그가 말했다. '이 일에 더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그가 저를 의심하고 있어요. 그가 저를 의심한다는 사실을 눈으로 똑똑히 느꼈습니다. 제가 당신께 암호 해독표를 보내려고 봉투에 주소를 다 적어 놓은 직후였는데, 그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서둘러 숨길 수 있었지요. 만약 그에게 들켰더라면 제 목숨이 위태로웠을 겁니다. 그의 눈빛에서 의심을 읽었거든요. 그러니 이제 아무런 쓸모도 없어진 그 암호문을 부디 태워버려 주십시오.'"

"프레드 포록."

홈즈는 한동안 불꽃을 응시하며 미간을 찌푸린 채, 손가락 사이로 이 편지를 만지작거리며 앉아 있었다.

"결국에는 말이야,"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그저 그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르지. 스스로 배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상대방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비난을 읽어낸 것일 수도 있단 말이야."

"나머지 한 명은 아마도 모리아티 교수겠지요."

"그렇고말고요! 그 무리 중 누구라도 '그'라고 말하면, 다들 누구를 뜻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단 한 명의 지배적인 '그'가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그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흠, 그건 참 어려운 문제군요. 유럽 최고의 지성 중 한 명을 상대해야 하는 데다, 그 뒤에는 어둠의 세력까지 버티고 있으니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어찌 됐든 포록 씨는 분명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겁에 질린 상태예요. 우선 이 쪽지에 적힌 글씨와 봉투에 쓰인 글씨를 비교해 보시죠. 포록 씨 말로는 이 불길한 방문이 있기 전에 봉투에 글을 썼다고 합니다. 봉투의 글씨는 또렷하고 힘이 넘치지만, 쪽지의 글씨는 알아보기조차 힘들 정도니까요."

"대체 왜 편지를 쓴 걸까요? 그냥 모른 척 덮어두면 될 것을 말입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내가 그를 조사하게 될까 봐, 혹시라도 그에게 화가 미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군요." 내가 말했다. "물론입니다." 나는 원래의 암호문을 집어 들고 미간을 찌푸린 채 그것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이 작은 종이 조각 안에 중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속을 파헤칠 수 없다니 말입니다."

셜록 홈즈는 손도 대지 않은 아침 식사를 밀어 놓았다. 그러고는 깊은 사색에 잠길 때마다 곁에 두는, 맛은 없지만 늘 함께하는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의문스럽군!"

홈즈가 몸을 뒤로 기대며 천장을 응시한 채 말했다.

"자네의 그 마키아벨리적인 지성으로도 놓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어. 순수한 이성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보세. 이 남자가 언급한 것은 책이라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지."

"다소 모호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범위를 좁힐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정신을 집중해서 생각해 보니, 이 사건이 아주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막막한 것만은 아니군요. 우선 이 책에 대해서는 어떤 단서들이 나왔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 자,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닐세. 암호문이 커다란 숫자 534로 시작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534가 암호가 가리키는 특정 페이지라고 가설을 세워볼 수 있겠군. 이로써 우리가 찾아야 할 책의 범위가 '커다란' 책으로 좁혀졌으니, 분명 수확이 있는 셈이야. 그럼 이 커다란 책의 정체를 알 수 있는 다른 단서가 또 무엇이 있을까? 다음 표식은 C2군. 왓슨, 자네는 저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분명 제2장일 것이다."

"그건 아닐세, 왓슨. 자네도 내 말에 동의할 걸세. 페이지 번호가 주어졌다면 챕터 번호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야. 또한, 534페이지에 이르러서야 겨우 2장이 시작된다면, 1장의 분량이 정말이지 참을 수 없을 만큼 길었다는 뜻이기도 하지."

"컬럼!" 내가 외쳤다.

"훌륭해, 왓슨. 오늘 아침 자네의 통찰력이 아주 빛나는군. 만약 이게 '단(column)'이 아니라면,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한 거야. 자, 이제 상황이 그려지지? 두 개의 단으로 인쇄된 커다란 책을 상상해 보게. 각 단의 길이는 꽤 길 거야. 문서에 적힌 단어 중 하나가 무려 293번째로 번호가 매겨져 있으니까 말일세. 이 정도면 이성이 내놓을 수 있는 추론의 한계에 도달한 건가?"

"아무래도 그런 것 같군요."

"자네,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는군. 조금만 더, 나의 친애하는 왓슨! 한 번만 더 번뜩이는 영감이 필요하네. 만약 그 책이 아주 희귀한 것이었다면, 그는 나에게 보냈을 거야. 하지만 계획이 틀어지기 전, 그는 이 봉투 안에 담긴 단서를 나에게 보내려 했네. 남긴 쪽지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 이걸 보면 그 책은 내가 직접 찾아내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만한 책이라는 뜻이지. 그는 그 책을 가지고 있었고, 나 역시 그 책을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야. 요컨대 왓슨, 그건 아주 흔한 책이라네."

"당신이 하는 말은 확실히 그럴듯하군요."

"결국 우리가 뒤져야 할 범위를 아주 좁힌 셈이지. 흔히 쓰이고, 두 개의 단으로 인쇄된 커다란 책 한 권으로 말일세."

"성경이다!" 나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외쳤다.

"좋네, 왓슨, 아주 좋아! 하지만 감히 말하건대, 아주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네! 설령 내가 이 칭찬을 받아들인다 해도, 모리아티의 수하들

이 곁에 두고 읽을 만한 책이 이보다 더 없을 것 같지는 않거든. 게다가 성경은 판본이 워낙 다양해서, 두 권의 페이지 번호가 똑같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건 분명히 규격화된 책일세. 그는 자신의 책 534페이지가 내 책의 534페이지와 정확히 일치할 거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 조건에 맞는 책은 거의 없을 겁니다."

"바로 그렇네. 거기에 우리의 돌파구가 있지.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규격화된 책들로 좁혀졌네."

"브래드쇼!"

"어려움이 있네, 왓슨. 브래드쇼의 어휘는 간결하고 군더더기가 없지만, 범위가 너무 좁아. 단어 선택의 폭이 좁아서 일반적인 메시지를 보내기에는 적합하지 않네. 브래드쇼는 제외하도록 하지. 사전도 같은 이유로 쓸 수 없을 것 같군.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남았나?"

"역서(曆書)라니!"

"훌륭하네, 왓슨! 자네가 핵심을 정확히 짚어냈다면 내가 크게 착각한 것이겠지. 달력이라니! '휘태커의 달력'을 한번 검토해 보세. 흔히 쓰이는 책이지. 페이지 수도 적당하고, 두 단으로 구성되어 있네. 내 기억이 맞다면, 초반에는 문장이 절제되어 있지만 뒤로 갈수록 꽤나 말이 많아지는 특징이 있지."

홈즈는 책상 위에서 책 한 권을 집어 들었다.

"여기 534페이지 두 번째 단을 보게. 내가 보기엔 영국령 인도의 무역과 자원에 대해 꽤 길게 서술되어 있군. 왓슨, 단어들을 받아 적게! 13번 단어는 '마라타(Mahratta)'네. 시작부터 그리 상서로운 단어는 아닌 것 같군. 127번은 '정부(Government)'라네. 우리나 모리아티 교수와는 별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의미는 통하는군. 자, 다시 해 보세. 마라타 정부는 무엇을 하는가? 아, 이런! 다음 단어가 '돼지 털(pig's-bristles)'이라니. 끝났네, 이보게 왓슨! 완전히 망했어!"

그는 농담조로 말했지만, 덥수룩한 눈썹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니 실망과 짜증이 역력했다. 나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 채 불룩한 모닥불만 멍하니 바라보며 무력감과 불쾌함에 빠져 있었다. 한참 동안 이어진 침묵을 깨뜨린 것은 홈즈의 갑작스러운 외침이었다. 그는 찬장으로 달려가더니, 노란색 표지의 책 한 권을 더 손에 들고 나타났다.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게 문제라네, 왓슨!" 홈즈가 외쳤다. "시대보다 너무 앞서가다 보니 그 대가를 치르는 셈이지. 오늘이 1월 7일이니 당연히 새 달력을 준비해 두었지 않나. 아마 포록은 예전 달력을 보고 메시지를 보냈을 게 분명해. 만약 그가 해명하는 편지라도 써 보냈다면 분명 그렇게 말했을 걸세. 자, 이제 534페이지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 13번은 'There'군, 훨씬 희망적이야. 127번은 'is'고. 'There is'라니!"

홈즈의 눈은 흥분으로 번뜩였고, 단어들을 세는 가늘고 초조한 손가락은 경련하듯 움찔거렸다.

"'danger(위험)'. 하! 하! 완벽해! 왓슨, 어서 적게. '위험이—닥칠—수—있다—매우—곧—하나(There is danger—may—come—very soon—one).' 그다음은 이름이군, 'Douglas(더글러스)'. 그다음은 'rich(부유한)—country(나라/지역)—now(지금)—at(에서)—Birlstone(벌스턴)—House(저택)—Birlstone(벌스턴)—confidence(신뢰/비밀)—is(이다)—pressing(압박하는/긴박한)'. 자, 봤나, 왓슨! 순수 이성과 그 결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만약 채소 가게에 월계관이라도 판다면, 당장 빌리를 시켜서라도 사 오고 싶을 정도라네."

홈즈가 암호를 해독하는 동안, 나는 무릎 위에 놓인 연습장 위에 내가 휘갈겨 쓴 기묘한 메시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이 참으로 기괴하고 뒤죽박죽이군요!" 내가 말했다.

"아니, 오히려 아주 훌륭하게 해냈네." 홈즈가 말했다. "오직 한 단(column)에 나열된 단어들만 가지고 자네 뜻을 전부 표현하려 한다면, 원하는 내용을 빠짐없이 담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하지. 결국 수신자의 지적 능력에 맡겨두고 생략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이 편지의 요지는 아주 명확해. 정체가 누구든 간에, 부유한 시골 신사라고 언급된 더글러스라는 인물을 겨냥한 악랄한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는 뜻이지. 편지를 쓴 사람은 이 상황이 매우 긴박하다고 확신하고 있어. '신뢰(confidence)'라는 단어를 쓴 걸 보면, '확신한다

(confident)'는 뜻을 전하고 싶었던 게 분명해. 자, 이게 우리가 얻은 결과라네. 아주 능숙하고 깔끔한 분석이었어!"

홈즈는 자신의 작품이 목표로 하는 높은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면 깊은 슬픔에 잠기곤 했지만,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을 때는 진정한 예술가가 느끼는 무아지경의 기쁨을 만끽했다. 그가 방금 거둔 성공에 도취해 여전히 낄낄거리며 웃고 있을 때였다. 빌리가 문을 활짝 열었고, 스코틀랜드 야드의 맥도널드 경위가 방 안으로 안내되어 들어왔다.

때는 1880년대 말, 알렉 맥도널드가 지금과 같은 국가적인 명성을 얻기 훨씬 전의 일이었다. 당시 그는 젊었지만 수사관으로서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었으며, 맡겨진 여러 사건을 훌륭히 해결하며 두각을 나타내던 인물이었다. 뼈마디가 굵고 키가 큰 그의 체구는 남다른 완력을 짐작게 했고, 커다란 머리와 깊게 자리 잡은 빛나는 눈동자는 짙은 눈썹 사이로 번뜩이는 예리한 지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는 말수가 적고 빈틈없는 성격이었으며, 엄격한 기질과 함께 거친 애버딘식 억양을 지닌 사내였다.

홈즈는 이미 두 차례나 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하지만 홈즈가 얻은 보상은 오직 문제를 해결할 때 느끼는 지적 즐거움뿐이었다. 이런 이유로 스코틀랜드 출신인 맥도널드는 아마추어 동료인 홈즈에게 깊은 애정과 존경심을 품고 있었다. 그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홈즈에게 솔직하게 조언을 구하며 그 존경심을 표현했다. 평범한 사람은 자신보다 높은 존재를 알지 못하지만, 재능 있는 사람은 천재를 즉각 알아본다. 맥도널드는 자신의 직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재능을 갖

춘 인물이었기에, 이미 유럽 전역에서 재능과 경험 모두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이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곧바로 깨달았다. 홈즈는 본래 누군가와 친분을 쌓는 성격은 아니었으나, 이 거구의 스코틀랜드 남자를 너그럽게 대했으며 그를 볼 때면 미소를 짓곤 했다.

"맥 씨, 일찍도 일어나셨군요." 그가 말했다. "지렁이를 잡는 데 행운이 따르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걸 보니,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꾸며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되는군요."

"홈즈 씨, '공포' 대신 '희망'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게 더 진실에 가까웠을 겁니다." 경위가 다 안다는 듯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다. "뭐, 아침 공기가 워낙 차가우니 술이라도 한 잔 마시면 몸이 좀 풀릴지도 모르겠군요. 아, 담배는 괜찮습니다. 사양하죠. 이제 서둘러 가봐야겠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가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홈즈 씨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지만……."

경위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탁자 위에 놓인 종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악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것은 내가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를 휘갈겨 쓴 바로 그 종이였다.

"더글러스!" 그가 말을 더듬었다. "벌스턴이라니! 이게 대체 뭡니까, 홈즈 씨? 세상에, 이건 마법이나 다름없군요! 도대체 그 이름들을 어디서 알아내신 겁니까?"

[삽화: “이게 다 뭡니까, 홈즈 씨? 세상에, 이건 마법이나 다름없군요! 도대체 이 이름들을 어디서 알아내신 겁니까?”]

“그건 왓슨 박사와 내가 직접 풀어본 적이 있는 암호라네. 그런데 왜 그렇지? 이름들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경위는 멍한 표정으로 우리 둘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가 말했다. "어젯밤, 벌스턴 저택의 더글러스 씨가 끔찍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제1부 제2장 셜록 홈즈의 견해

제2장 셜록 홈즈의 담론

그 순간은 내 친구가 살아가는 이유를 증명하는, 그야말로 극적인 순간 중 하나였다. 그 놀라운 발표를 듣고 그가 충격을 받았다거나 흥분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과장일 것이다. 그의 기이한 성품에 잔인함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그는 오랜 과잉 자극 탓에 분명 무감각해진 상태였다. 하지만 감정이 무뎌졌을지언정, 그의 지적 통찰력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이 단도직입적인 선언을 들었을 때 내가 느꼈던 공포의 흔적은 그의 얼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의 표정에는, 과포화 용액 속에서 결정체가 제자리를 찾아가며 내려앉는 것을 지켜보는 화학자의 차분하고도 흥미로운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놀랍군!" 그가 말했다. "정말 놀라워!"

"전혀 놀라지 않은 눈치군요."

"흥미롭군요, 맥 씨. 하지만 전혀 놀랍지는 않습니다. 내가 왜 놀라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곳으로부터 익명의 연락을 받았을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위험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였지요. 그런데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위험이 실제로 현실이 되었고, 그 대상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건임에는 틀림없지만, 당신도 보시다시피 전혀 놀랍지는 않군요."

그는 몇 문장의 짧은 말로 편지와 암호에 관한 사실을 경위에게 설명했다. 맥도널드는 두 손으로 턱을 괸 채 앉아 있었는데, 그의 거칠고 모래빛이 도는 눈썹은 노란 털 뭉치처럼 뒤엉켜 있었다.

"오늘 아침에 벌스턴으로 내려가려던 참이었네." 그가 말했다. "자네와 여기 있는 친구분도 함께 가겠느냐고 물어보려 했지. 하지만 자네 말을 들어보니, 차라리 런던에서 일을 처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군."

"그건 아닐 것 같군." 홈즈가 말했다.

"제기랄, 홈즈 씨!" 경위가 외쳤다. "하루 이틀 지나면 신문들이 온통 벌스턴의 미스터리로 도배될 겁니다. 하지만 범죄가 일어나기도 전에 런던에서 그 사건을 예언한 사람이 있다면, 대체 어디에 미스터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그 사람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절로 풀릴 테니까요."

"물론입니다, 맥 씨. 하지만 그 소위 포록이라는 자를 어떻게 찾아낼 생각입니까?"

맥도널드는 홈즈가 건네준 편지를 뒤집어 살펴보았다. “캠버웰에서 발송되었다니, 별 도움이 안 되는군요. 이름은 가명이라고 하셨고. 확실히 단서가 거의 없네요. 그에게 돈을 보낸 적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두 번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지폐로 캠버웰 우체국 앞으로 부쳤습니다.”

“그걸 누가 가져가라고 했는지 확인해 보려는 노력조차 안 해봤나?”

“아니오.”

경위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고, 조금은 충격을 받은 듯한 얼굴로 물었다.

“어째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니까요. 그가 처음 편지를 보냈을 때, 그를 추적하지 않겠다고 이미 약속했거든요.”

“그의 배후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신이 말했던 그 교수라는 사람이 말입니까?”

"정확합니다!"

맥도널드 경위가 미소를 지었다. 나를 힐끗 바라보는 그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다.

"홈즈 씨,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 C.I.D.에서는 당신이 그 교수라는 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몇 가지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그분은 아주 품격 있고 학식도 높으며 재능까지 겸비한 분 같더군요."

"그 재능을 알아볼 정도로 눈썰미가 있으시다니 다행이군요."

"이보게, 자네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자네 의견을 듣고 나서 내가 직접 그를 만나보기로 마음먹었거든. 그래서 일식에 관해 이야기를 좀 나누었지. 대화가 어떻게 그런 주제로 흘러갔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네만, 그는 반사 램프와 지구본을 꺼내 들더니 순식간에 모든 것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더군. 그가 책을 한 권 빌려주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애버딘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자란 나조차도 이해하기엔 조금 버거운 내용이었네. 그 마른 얼굴에 희끗희끗한 머리칼, 그리고 엄숙한 말투를 보고 있자니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될 법한 사람이었어. 헤어질 때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얹는데, 마치 차갑고 잔혹한 세상으로 나가는 자식에게 아버지로서 축복을 내려주는 것 같았다네."

홈즈는 껄껄 웃으며 두 손을 비볐다. "대단하군!" 그가 말했다. "정말 대단해! 맥도널드 경, 말해 보게. 그 즐겁고도 감동적인 면담은 아마 교수님의 서재에서 이루어진 것이겠지?"

"그렇고말고요."

"방이 아주 근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훌륭합니다. 참으로 멋지군요, 홈즈 씨."

"그의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렇고말고요."

"햇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그의 얼굴이 그림자에 가려졌다는 말입니까?"

"글쎄요, 저녁이었죠. 하지만 등불 빛이 제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럴 겁니다. 혹시 교수님 머리 위에 걸려 있던 그림을 보셨습니까?"

"놓치는 건 별로 없습니다, 홈즈 씨. 아마 당신에게 배운 덕분이겠지요. 네, 그 그림을 봤습니다. 젊은 여인이 두 손에 머리를 기댄 채, 옆눈으로 당신을 훔쳐보고 있는 그림 말입니다."

"그 그림은 장 바티스트 그뢰즈의 작품이었네."

경위는 관심을 보이는 척 애를 썼다.

"장 바티스트 그뢰즈 말일세." 홈즈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양손끝을 맞댄 채 말을 이었다. "1750년에서 1800년 사이에 활동했던 프

랑스 화가라네. 물론 그의 전성기를 말하는 것이지. 당대 사람들이 그에 대해 가졌던 높은 평가를 현대의 비평가들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네."

경위의 눈빛이 흐릿해졌다. "차라리 우리가 먼저—" 그가 말을 흐렸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홈즈가 말을 가로막았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신이 벌스턴 미스터리라고 부른 사건과 매우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맥도널드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나를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홈즈 씨, 당신의 사고방식은 저에게 너무 빠릅니다. 중간에 고리 한두 개를 툭 끊어버리시니, 저는 그 간극을 도저히 메울 수가 없군요. 도대체 이 죽은 화가와 벌스턴 사건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다는 말입니까?"

"탐정에게는 모든 지식이 유용하게 쓰이는 법이라네." 홈즈가 말했다. "1865년 포르탈리스 경매에서 그뢰즈의 '양과 함께 있는 소녀'라는 그림이 120만 프랑, 즉 4만 파운드가 넘는 금액에 낙찰되었다는 사소한 사실조차 자네의 사고를 자극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지."

분명 그랬다. 경위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흥미가 서려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홈즈가 말을 이었다. "교수의 연봉은 몇 권의 신뢰할 만한 참고 서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700파운드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살 수 있었단 말입니까—"

"정말 그렇군요! 대체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음, 그거 참 놀랍군요." 경위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계속 말씀해 보시죠, 홈즈 씨.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홈즈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진심 어린 감탄을 마주할 때면 언제나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는데, 이는 진정한 예술가만이 지닌 특징이기도 했다. "벌스턴 사건은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다.

"아직 시간이 좀 있군요." 경위가 시계를 힐끗 보며 말했다. "문 앞에 마차를 대기시켜 두었으니, 빅토리아 역까지 가는 데 20분도 채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하나 묻고 싶습니다. 홈즈 씨, 예전에 당신은 모리아티 교수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머무는 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 겁니까?"

"아,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의 방에 세 번이나 들어갔습니다. 두 번은 다른 핑계를 대고 기다리다가 그가 나타나기 전에 자리를

떴지요. 그리고 한 번은…… 글쎄요, 그 마지막 한 번에 대해서는 현직 형사에게 차마 말씀드리기 어렵군요. 하지만 마지막에 제가 무례를 무릅쓰고 그의 서류들을 훑어보았는데, 거기서 아주 뜻밖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무엇인가 불리한 증거라도 찾으셨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저를 놀라게 했지요. 하지만 이제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 그림은 그가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대체 어떻게 그만한 재산을 모았을까요? 그는 미혼입니다. 남동생은 잉글랜드 서부에서 역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의 교수직은 연봉 700파운드짜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그뢰즈의 작품을 소유하고 있지요."

"그래서요?"

"분명 결론은 자명합니다."

"그의 수입이 막대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겠군요?"

"정확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독을 품은 채 움직임 없이 숨어 있는 그 괴물에게로, 실타래처럼 가늘고 희미하게 이어지는 수십 개의 단서가 있지요. 제가 굳이 그뢰즈를 언급한 건, 그 사안이 당신이 직접 목격한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음, 홈즈 씨. 당신의 말이 흥미롭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흥미롭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놀라울 따름이군요. 하지만 가능하다면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조입니까, 아니면 주화 위조나 절도입니까?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말입니다."

"조나단 와일드에 대해 읽어본 적이 있나?"

"글쎄요, 이름이 왠지 낯익군요. 소설에 나오는 인물 아닙니까? 나는 소설 속 탐정들은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해결하면서도 정작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끝까지 보여주지 않는 그런 자들 말입니다. 그건 그저 영감에 의존한 허구일 뿐이지, 진짜 전문적인 일은 아니니까요."

"조나단 와일드는 탐정이 아니었네. 소설 속 인물도 아니었지. 그는 악명 높은 범죄의 거물이었고, 1750년경, 즉 지난 세기에 살았던 실존 인물이라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군. 난 실용적인 사람이거든."

"맥 씨, 당신이 평생 해온 일 중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나 추천하죠. 석 달 동안 외부와 연락을 끊고, 하루에 열두 시간씩 범죄 기록을 파고드는 겁니다. 세상 모든 일은 돌고 도는 법이니까요. 모리아티 교수조차 예외는 아닙니다. 과거에 조나단 와일드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런던 범죄 조직의 배후에서 움직이며 자신의 지략과 조직력을 이용해 15퍼센트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낡은 수레바퀴가 돌면 결국 같은 바퀴살이 다시 나타나는 법이죠. 이미 벌어졌던 일은 반

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당신이 흥미를 느낄 만한 모리아티에 관한 이야기를 한두 가지 들려드리죠."

"당신은 분명 내 흥미를 끌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슬의 첫 번째 고리가 누구인지 나는 마침 알고 있네. 한쪽 끝에는 나폴레옹을 흉내 내며 잘못된 길로 들어선 이 자가 있고, 다른 쪽 끝에는 부서진 삶을 사는 싸움꾼과 소매치기, 협박범, 사기꾼들이 줄지어 서 있지. 그 사이에는 온갖 종류의 범죄가 가득하고 말이야. 그의 참모장은 세바스찬 모란 대령인데, 법의 손길을 피하는 데 있어서는 그 자신만큼이나 냉담하고 경계심이 강하며 접근하기 어려운 인물이라네. 자네는 그가 모란 대령에게 얼마를 줄 것 같나?"

"듣고 싶군요."

"연봉이 6,000파운드라네. 지식에 값을 매기는 미국식 사업 원칙이지. 이건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라네. 수상보다도 많은 액수지. 이 정도면 모리아티가 얼마나 많은 이득을 챙기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거대한 규모로 움직이는지 짐작이 갈 걸세. 또 다른 점이 있네. 최근에 나는 모리아티가 사용하는 수표들을 추적해 보았지. 그저 일상적인 생활비를 결제할 때 쓰는 평범한 수표들이었네만, 확인해 보니 무려 여섯 군데의 서로 다른 은행에서 발행된 것이더군. 이 사실이 자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 궁금하군."

"확실히 기묘하군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무엇을 알아내셨습니까?"

"그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 소문이 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가졌는지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죠. 제 생각에 그는 은행 계좌를 스무 개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재산의 대부분은 도이치 은행이나 크레디 리요네 은행 같은 해외 은행에 예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중에 1, 2년 정도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면, 모리아티 교수를 연구해 보라고 권하고 싶군요."

맥도널드 경위는 대화가 이어질수록 점점 더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그러다 이내 스코틀랜드인 특유의 실용적이고 명석한 두뇌가 작동하며,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앞의 문제로 돌아왔다.

"어쨌든 그자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뤄둬도 됩니다." 그가 말했다. "홈즈 씨, 당신의 흥미로운 일화들 때문에 이야기가 옆길로 샜군요. 정말 중요한 건 교수와 이번 범죄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당신의 언급입니다. 포록이라는 남자를 통해 전달된 경고에서 그런 결론을 얻으신 거고요. 현재 우리가 당장 해결해야 할 실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정보가 있을까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짐작 가는 바가 있습니다. 당신이 처음에 설명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 이번 사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나, 적어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살인 사건 같군요. 만약 우리가 의심하는 대로 범행의 근원이 그곳에 있다면, 동기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모리아티는 부하들을 철권통치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군요. 그의 규율은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그의 규칙에는 오직 한 가지 처벌뿐입니다. 바로 죽음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 남자, 즉 임박한 운명을 그 거물 범죄자의 부하 중 한 명이 미리 알고 있던 이 더글러스가 어떤 방식으로든 우두머리를 배신했다고 말입니다. 그에 따른 처벌이 내려진 것이고, 다른 부하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그 사실을 모두가 알게 하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도 하나의 제안이 될 수 있겠군요, 홈즈 씨.”

“다른 가능성은 모리아티가 일상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이 일을 꾸몄을 경우입니다. 혹시 강도 사건이 있었습니까?”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연히 첫 번째 가설은 뒤집히고 두 번째 가설이 힘을 얻게 되겠지. 모리아티가 전리품을 나누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이 일을 설계했을 수도 있고, 혹은 일을 처리하는 대가로 미리 거액을 받았을 수도 있어. 어느 쪽이든 가능성은 충분해. 하지만 그게 무엇이든, 혹은 제3의 어떤 조합이든 간에,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할 곳은 바로 벌스턴이야. 우리가 쫓는 그자를 너무나 잘 알기에, 그가 이곳에 자신을 가리킬 만한 단서를 남겨두었을 리는 없다고 확신하네."

"그렇다면 당장 벌스턴으로 가야 합니다!" 맥도널드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세상에, 생각보다 시간이 훨씬 늦었군요. 신사 여러분, 준비할 시간은 딱 5분만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우리 둘 다에게 충분하고도 남을 양이지요."

홈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가운을 벗고 코트로 갈아입으려 서둘러 움직이며 말했다.

"맥 씨, 가는 동안 그 일에 대해 자세히 들려주시겠습니까?"

그가 내놓은 정보는 실망스러울 정도로 빈약했다. 하지만 그 적은 내용만으로도 우리가 마주한 사건이 전문가의 면밀한 주의를 끌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에는 충분했다. 홈즈는 빈약하지만 놀라운 세부 사항들을 경청하며, 얼굴에 생기를 띠고 마른 손을 맞비벼 문질렀다. 그동안 우리는 아무런 성과 없는 무미건조한 몇 주를 보냈다. 마침내 그 놀라운 재능을 발휘할 만한 적절한 대상이 나타난 것이다. 모든 특별한 재능이 그러하듯, 쓰이지 않는 재능은 주인에게 오히려 짐이 되기 마련이다. 그 날카로운 두뇌도 활동이 없으니 무뎌지고 녹슬어 가고 있었다.

사건 의뢰가 닿는 순간, 셜록 홈즈의 눈은 반짝였고 창백했던 뺨에는 생기가 돌았다. 무언가에 열중하는 그의 얼굴 전체에서 형언할 수 없는 열망이 빛을 발했다. 홈즈는 마차 안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서식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에 대해 맥도널드 경위가 들려주는 짧은 개요를 집중해서 경청했다. 맥도널드 경위의 설명에 따르

면, 그는 오늘 새벽 우유 열차를 통해 전달된 휘갈겨 쓴 보고서에 의지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현지 담당관인 화이트 메이슨이 경위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기에, 지방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스코틀랜드 야드에서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맥도널드 경위가 통보를 받을 수 있었다. 런던 경시청의 전문가가 맡게 되는 사건들은 대개 이미 식어버린 차가운 흔적을 쫓는 일이기 마련이다.

"친애하는 맥도널드 경위에게." 그가 우리에게 읽어준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귀하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 의뢰서는 별도의 봉투에 담아 보냅니다. 이 편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벌스턴으로 가는 열차 중 언제 탈 수 있는지 전보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직접 마중 나가거나, 만약 제가 너무 바쁘다면 다른 사람을 보내 마중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말이지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즉시 착수하십시오. 만약 홈즈 씨를 데려올 수 있다면 꼭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는 분명 흥미를 느낄 만한 요소를 찾아낼 테니까요. 현장에 시체가 굴러다니고 있지 않았다면, 마치 연극 무대를 꾸며놓은 것 같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세상에! 정말이지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자네 친구는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군." 홈즈가 말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엔 화이트 메이슨은 아주 기민하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자, 더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우리가 만나면 그가 모든 세부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줄 거라는 점뿐입니다."

"그렇다면 존 더글러스 씨가 끔찍하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를 어떻게 찾아내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내용은 동봉된 공식 보고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끔찍하다'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런 말은 공식 용어로 쓰이지 않으니까요. 보고서에는 존 더글러스라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부상은 산탄총 발사로 인한 머리 부위의 상처라고 기록되어 있었고요. 또한 어젯밤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경보가 울렸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사건이 의심할 여지 없는 살인 사건이라고 덧붙였지만, 아직 체포된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이 매우 당혹스럽고 기이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고요. 홈즈 씨,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정말 이게 전부입니다."

"그럼 맥 씨, 허락하신다면 이쯤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충분한 자료도 없이 성급하게 이론을 세우려는 유혹은 우리 직업의 가장 큰 적이니까요. 현재 제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뿐입니다. 런던에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과, 서식스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바로 그 두 지점을 잇는 연결고리를 찾아낼 겁니다."

제1부 제3장 벌스턴의 비극

제3장 벌스턴의 비극

잠시만 양해를 구하겠다. 나라는 사소한 인물을 잠시 뒤로 물리고, 우리가 사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나중에 알게 된 사실들에 비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오직 이런 방식을 통해서만, 독자 여러분은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과 그들의 운명이 뒤엉킨 기묘한 배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벌스턴 마을은 서식스주 북쪽 경계에 자리 잡은, 아주 오래된 작은 마을이다. 목조 골조가 드러난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수 세기 동안 이곳은 변함없는 모습이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마을의 아름다운 경관과 입지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덕분에 부유한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그들이 지은 별장들이 마을 주변 숲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현지 사람들은 이 숲을 거대한 윌드 숲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한다. 이 숲은 북쪽의 백색 분필 언덕에 다다를 때까지 점차 옅어지며 이어진다. 늘어난 인구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작은 상점들도 여러

곳 생겨났다. 이런 흐름을 보면, 오래된 마을인 벌스턴이 머지않아 현대적인 마을로 성장할 조짐이 보인다. 가장 가까운 주요 거점인 턴브리지 웰스가 켄트주 경계를 넘어 동쪽으로 10~12마일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벌스턴은 주변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을에서 약 0.5마일 떨어진 곳, 거대한 너도밤나무들로 유명한 오래된 공원 안에 벌스턴의 고색창연한 저택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유서 깊은 건물의 일부는 제1차 십자군 전쟁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휴고 드 카푸스는 레드 킹으로부터 하사받은 이 영지 중앙에 요새를 세웠다. 이 요새는 1543년 화재로 소실되었고, 이후 자코비언 시대에 봉건 성의 폐허 위에 벽돌로 된 전원 저택이 들어설 때 그 그을린 모퉁이 돌들이 일부 사용되었다.

수많은 박공지붕과 작은 다이아몬드 모양의 창문이 달린 저택은 17세기 초 건축가가 지어놓은 모습 그대로였다. 과거 전쟁을 대비해 저택을 둘러싸고 있던 두 겹의 해자 중, 바깥쪽 해자는 물이 말라버린 채 채소밭으로 쓰이고 있었다. 안쪽 해자는 여전히 저택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폭은 40피트에 달했으나 수심은 이제 겨우 몇 피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작은 시냇물이 이곳으로 흘러들어 저택을 돌아 계속 이어졌기에, 물빛은 탁할지언정 도랑처럼 고여 있거나 불결하지는 않았다. 1층 창문은 수면에서 채 1피트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저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는 도개교뿐이었는데, 그 다리를 들어 올리는 사슬과 윈들러스(도르래 장치)는 이미 오래전에 녹슬어 끊어진 상태였다. 하지만 저택의 최근 거주자들은 특유의 활기찬 에너지

로 이 문제를 해결해 두었다. 덕분에 도개교는 단순히 들어 올릴 수 있는 상태를 넘어, 매일 저녁이면 실제로 다리를 올리고 아침이면 다시 내리는 일과가 정착되어 있었다. 이처럼 옛 봉건 시대의 관습을 되살린 덕분에, 저택은 밤마다 마치 섬처럼 고립되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곧 영국 전역의 이목을 집중시킬 미스터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 집은 몇 년 동안 비어 있었다. 존 더글러스 부부가 그곳에 들어설 당시, 집은 마치 그림 같은 폐허가 되어 서서히 썩어가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 집에 사는 가족은 존 더글러스와 그의 아내, 단 두 사람이었다. 더글러스는 성격과 외모 모두에서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다. 나이는 쉰 살쯤 되어 보였는데, 턱선이 굵고 거친 얼굴에 희끗희끗한 콧수염이 나 있었다. 눈빛은 유난히 날카로운 회색이었고, 몸집은 강인하고 활력이 넘쳤다. 젊은 시절의 힘과 기운을 전혀 잃지 않은 듯한 탄탄한 체구였다. 그는 누구에게나 쾌활하고 친절했지만, 태도에는 다소 격식이 없었다. 마치 서섹스주의 상류 사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낮은 곳의 삶을 겪어온 사람 같은 인상을 주었다.

교양 있는 이웃들은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다소 거리를 두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곧 큰 인기를 얻었다. 그는 마을의 모든 행사에 아낌없이 기부했고, 흡연 음악회나 여러 모임에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특히 그는 매우 풍부한 테너 음색을 지니고 있어서, 노래를 청하면 언제든 멋진 곡을 불러주며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그는 돈이 꽤 많은 듯 보였는데, 사람들은 그 재산이 캘리포니아 금광에서 벌어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 자신과 아내의 대화를 들어보면, 그가 인생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서 보냈다는 사실은 자명했다.

그의 너그러운 성품과 격식 없는 태도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고, 위험 앞에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평판이 더해지며 그 호감은 더욱 깊어졌다. 승마 실력은 형편없었지만, 그는 매번 경기에 출전했다. 최고의 기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기상천외할 정도로 처참하게 말에서 떨어지면서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마을 목사관에 불이 났을 때도 그는 용맹함을 증명했다. 지역 소방대가 도저히 불을 끌 수 없다며 포기했을 때, 그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다시 뛰어들었다. 이처럼 매너 하우스의 존 더글러스는 벌스턴에 정착한 지 불과 5년 만에 상당한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의 아내 역시 한번 안면을 튼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많았다. 다만 영국식 풍습에 따라, 별도의 소개 없이 이 지역에 새로 정착한 낯선 이를 찾아오는 방문객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본래 성격이 내성적인 데다 남편과 가사 일에 온 정신을 쏟으며 지냈기에, 방문객이 적은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녀가 런던에서 더글러스 씨를 만나 인연을 맺은 영국 여성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다. 당시 더글러스 씨는 홀아비였다. 그녀는 키가 크고 피부가 검으며 날씬한 미인이었는데, 남편보다 스무 살가량 젊었다. 하지만 이러한 나이 차이는 두 사람의 화목한 가정생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듯 보였다.

하지만 두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이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하곤 했다. 부부 사이의 신뢰가 그리 두터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내가 남편의 과거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거나,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더 높

긴 하지만 남편의 과거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관찰력이 뛰어난 몇몇 사람들은 더글러스 부인이 가끔 신경이 몹시 날카로워진 기색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남편이 귀가하기로 한 시간보다 유독 늦어질 때면, 그녀는 극도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온갖 소문이 무성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저택의 안주인이 보이는 이런 약점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훗날 어떤 사건이 터지며 이 모습들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띠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 장면들은 더욱 강렬하게 되살아났다.

그 지붕 아래 머물렀던 이들 중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 비록 그가 그곳에 상주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제부터 들려줄 기이한 사건이 벌어질 당시 그 자리에 있었기에 대중에게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된 인물이다. 그는 햄프스테드 헤일스 로지에 사는 세실 제임스 바커였다.

세실 바커는 키가 크고 몸이 다소 뻣뻣한 체격을 가진 인물로, 벌스턴 마을의 대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얼굴이었다. 그는 저택을 자주 방문하는 반가운 손님이기도 했다. 특히 그는 영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존 더글러스 씨의 과거를 아는 유일한 친구로, 사람들의 눈에 더 자주 띄곤 했다. 바커 본인 역시 의심할 여지 없는 영국인이었으나, 그가 하는 말로 미루어 보아 더글러스와는 미국에서 처음 만났으며 그곳에서 매우 친밀한 사이로 지냈음이 분명했다. 그는 상당한 재력가로 보였으며, 미혼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그의 나이는 더글러스보다 조금 젊은 마흔다섯 살 정도였다.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하며 가슴이 넓은 사내였다. 깔끔하게 면도한 얼굴은 마치 권투 선수처럼 강인해 보였고, 짙고 튼튼한 검은 눈썹 아래로는 위엄 있는 검은 눈동자가 빛났다. 그 눈빛은 아주 유능한 손을 쓰지 않더라도, 적대적인 군중 사이에서 길을 터줄 만큼 압도적인 힘이 있었다. 그는 승마나 사냥은 즐기지 않았다. 대신 입에 파이프를 물고 오래된 마을을 한가롭게 거닐거나, 집주인과 함께, 혹은 집주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는 안주인과 함께 아름다운 시골 풍경을 따라 마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즐기며 하루를 보냈다.

"성격도 너그럽고 인심도 후한 신사분이셨죠." 집사 에임스가 말했다. "하지만 세상에! 그분과 척을 지는 일만큼은 차라리 피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더글러스와 격의 없이 친밀하게 지냈고, 그의 아내에게도 그만큼 다정하게 대했다. 이러한 친밀함은 때때로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기도 했는데, 하인들이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더글러스의 불쾌감이 드러날 때가 종종 있었다.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그 집안의 일원처럼 지내던 세 번째 인물이 바로 이런 사내였다.

그 오래된 저택에 거주하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가족 중에서도 몇 명만 언급하면 충분할 것이다. 우선 단정하고 품위 있으며 유능한 에임스 씨가 있고, 그 곁에는 싹싹하고 쾌활한 성격의 앨런 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안주인의 집안일을 덜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 외에 저택에서 일하던 나머지 여섯 명의 하인은 1월 6일 밤에 벌어진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서섹스 경찰대의 윌슨 경사가 관리하는 작은 지역 경찰서에 첫 비보가 전해진 것은 11시 45분이었다. 세실 바커가 몹시 흥분한 상태로 달려와 문앞에서 벨을 미친 듯이 눌러댔다. 매너 하우스에서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으며, 존 더글러스가 살해당했다는 내용이었다. 그가 전한 소식은 숨이 넘어갈 듯 다급했다. 바커는 곧장 집으로 돌아갔고, 몇 분 뒤 경찰 경사가 그 뒤를 따랐다. 경사는 즉시 주 경찰 당국에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린 뒤, 12시가 조금 지나서 범죄 현장에 도착했다.

경사(sergeant)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 도개교는 내려져 있었고 창문마다 불이 밝게 켜져 있었다. 저택 안은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 극도의 혼란과 공포에 휩싸인 상태였다. 얼굴이 창백해진 하인들은 홀에 모여 서로 몸을 맞댄 채 떨고 있었고, 겁에 질린 집사는 문가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을 비틀고 있었다. 오직 세실 바커만이 평정심을 유지하며 감정을 다스리는 듯 보였다. 그는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문을 열더니, 경사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바로 그 순간, 마을에서 온 유능하고 빈틈없는 일반의 우드 박사가 도착했다. 세 남자는 함께 그 비극적인 방 안으로 들어섰다. 공포에 질린 집사는 그들의 뒤를 바짝 따르며, 하녀들이 이 끔찍한 광경을 보지 못하도록 문을 닫았다.

죽은 남자는 방 한가운데에 팔다리를 대자로 뻗은 채 뒤로 누워 있었다. 그는 잠옷 위에 분홍색 가운 하나만 걸치고 있었고, 맨발에는 카펫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의사가 그의 곁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휴대용 램프를 들어 그를 향해 낮게 비추었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태를 단 한 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의사는 자신이 더 이

상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깨달았다. 남자는 처참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그의 가슴 위에는 기이한 무기가 놓여 있었다. 방아쇠 앞쪽에서 총신을 1피트가량 잘라낸 산탄총이었다. 근거리에서 총을 발사했다는 사실은 명백했다. 남자는 얼굴에 산탄을 정면으로 맞았고, 그 충격으로 머리는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이 났다. 방아쇠 두 개를 철사로 묶어 놓은 것은, 두 발이 동시에 발사되게 함으로써 파괴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였다.

시골 경찰관은 갑작스럽게 짊어지게 된 막중한 책임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안절부절못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끔찍하게 훼손된 머리를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상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댄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세실 바커가 말했다. "그 점은 제가 보증하죠.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와 완전히 똑같은 상태일 겁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경사가 수첩을 꺼내 들며 물었다.

"시계가 막 11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옷을 벗기도 전이었죠. 침실 벽난로 옆에 앉아 있는데 총성이 들렸습니다. 소리가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무언가에 막힌 듯 둔탁한 소리였지요. 저는 곧장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방에 도착하기까지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까?"

"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불쌍한 더글러스 씨는 지금 보시는 모습 그대로 누워 있었고요. 침실 탁자 위에는 양초가 타고 있었습니다. 몇 분 뒤에 램프에 불을 붙인 건 바로 저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제 뒤로 더글러스 부인이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기에, 그 끔찍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가사도우미인 앨런 부인이 와서 그녀를 데려갔지요. 마침 에임스가 도착한 참이라, 저희는 다시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은 바로는, 도개교는 밤새도록 올려져 있다고 하던데요."

"네, 제가 그것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살인범이 어떻게 도망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존 더글러스 씨는 분명 스스로 총을 쏜 겁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좀 보세요!" 바커가 커튼을 젖히자, 다이아몬드 모양의 유리창이 활짝 열려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그는 등불을 낮게 비추어 나무 창틀 위에 남은 얼룩을 비추었다. 그것은 마치 장화 밑창이 찍힌 듯한 핏자국이었다. "누군가 이곳에 서서 밖으로 나간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해자를 걸어서 건너갔다는 말씀입니까?"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범행이 일어나고 30초도 지나지 않아 당신이 방에 들어갔다는 뜻이니, 그가 물속에 빠져 있었던 건 바로 그 순간이었겠군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창가로 달려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커튼이 창을 가리고 있어서 미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더글러스 부인의 발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그녀를 방 안으로 들일 수 없었습니다. 만약 들켰다면 정말 끔찍했을 겁니다."

"정말 끔찍하군요!" 의사가 말했다. 그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짓이겨진 머리와 그 주변에 남은 처참한 흔적들을 내려다보며 탄식했다. "벌스턴 열차 사고 이후로 이런 상처는 처음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열려 있는 창문을 두고 여전히 느릿느릿한 시골뜨기식 상식으로 고민에 빠진 경찰 경사가 입을 열었다.

"범인이 이 해자를 헤엄쳐서 도망쳤다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질문은 이겁니다. 다리가 올라가 있었다면, 그놈이 애초에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왔단 말입니까?"

"아,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바커가 말했다.

"몇 시에 들어 올렸습니까?"

"거의 6시가 다 되었습니다." 집사 에임스가 말했다.

"듣기로는," 경사가 말했다. "보통 해 질 녘에 다리를 올린다고 하더군요. 이맘때라면 6시보다는 4시 반에 더 가까울 겁니다."

"더글러스 부인 댁에 차를 마시러 온 손님들이 계셨습니다." 에임스가 말했다. "손님들이 다 가고 나서야 다리를 올릴 수 있었지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직접 감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경사가 말했다.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했다면, 즉 정말로 누군가 들어왔다면, 그자는 6시 이전에 반드시 다리를 건너 들어왔어야 합니다. 그러고는 11시가 넘어 존 더글러스 씨가 방으로 들어올 때까지 줄곧 숨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존 더글러스 씨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직전, 등불이 제대로 켜져 있는지 확인하려 집 안을 한 바퀴 돌곤 했습니다. 그 습관 때문에 그가 이 방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범인은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쏘았습니다. 그러고는 창문으로 도망치면서 총을 남겨두고 간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다른 설명으로는 이 사건의 정황이 도무지 맞지 않으니까요."

경사는 바닥에 쓰러진 시신 곁에 놓인 카드 한 장을 집어 들었다. 카드에는 V.V.라는 이니셜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341이라는 숫자가 잉크로 거칠게 휘갈겨져 있었다.

"이게 대체 뭐지?" 그는 그것을 들어 올리며 물었다.

바커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것을 살펴보았다. “전에는 미처 몰랐군요.” 그가 말했다. “범인이 흘리고 간 게 분명합니다.”

“V.V.—341.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군.”

경사는 커다란 손가락으로 그것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계속 중얼거렸다. “V.V.가 대체 뭘까? 누군가의 이니셜인가? 우드 박사님, 거기서 찾은 건 좀 있습니까?”

벽난로 앞 양탄자 위에는 꽤 큼직한 망치가 놓여 있었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아주 견고하고 실용적인 물건이었다. 세실 바커는 벽난로 선반 위에 놓인 황동 머리 못 상자를 가리켰다.

“어제 더글러스 씨가 그림들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다.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가 의자 위에 올라서서 그 위쪽에 걸린 커다란 그림을 고정하고 있더라고요. 망치가 거기 있었던 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찾아낸 그대로 양단 카펫 위에 다시 올려두는 게 좋겠소.” 경사가 당혹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려면 경찰 내에서도 가장 명석한 두뇌들이 필요할 거요. 일이 마무리될 때쯤이면 런던 전체를 뒤흔들 대형 사건이 되어 있겠군.” 그는 손등에 든 랜턴을 들어 올리고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창가 커튼을 한쪽으로 젖히며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이것 봐!” 그는 소리쳤다. “이 커튼은 대체 몇 시에 쳐둔 거지?”

"등불을 켰을 때였습니다." 집사가 말했다. "네 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을 겁니다."

"누군가 분명히 이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빛을 아래로 비추었다. 구석진 곳에는 진흙 묻은 장화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바커 씨, 이 흔적들이 당신의 가설을 뒷받침해 주는군요. 커튼을 친 네 시 이후와 다리를 올리기 전인 여섯 시 사이에 범인이 집 안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범인은 이 방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눈에 가장 먼저 띈 곳이었으니까요. 숨을 만한 다른 장소도 없었기에 이 커튼 뒤로 몸을 숨긴 모양입니다. 여기까지는 상황이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범인의 주된 목적은 아마도 빈집털이였겠지요. 하지만 운 나쁘게도 존 더글러스 씨와 마주치는 바람에, 그를 살해하고 달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바커가 말했다. "그런데 이보게, 우리 지금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놈이 도망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출발해서 주변 지역을 수색해 볼 수는 없겠나?"

경사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새벽 6시 전에는 기차가 없으니, 철도를 타고 도망칠 수는 없을 겁니다. 만약 다리가 흠뻑 젖은 채로 길을 따라 도망친다면 누군가에게 들킬 가능성이 높고요. 어찌 됐든 저 역시 교대할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더 명확히 파악될 때까지, 여러분 중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는 램프를 들고 시신을 아주 면밀히 살폈다. "이 자국은 뭡니까?" 그가 물었다. "이게 범죄와 관련이 있을까요?"

죽은 남자의 오른팔이 가운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는데, 팔꿈치 부근까지 그대로 드러난 상태였다. 팔뚝 중간쯤에는 기묘한 갈색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원 안에 삼각형이 들어있는 모양이었는데, 기름기 도는 창백한 피부 위로 선명하게 도드라져 보였다.

"문신이 아니군요." 의사가 안경 너머로 자세히 살피며 말했다. "이런 건 생전 처음 봅니다. 이건 마치 가축에게 낙인을 찍듯, 언젠가 이 사람의 몸에 강제로 새겨 넣은 낙인 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세실 바커가 말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더글러스에게서 그 표식을 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집사가 말했다. "주인님께서 소매를 걷어 올리실 때마다 그 흉터를 몇 번이고 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생긴 자국인지 궁금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번 사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군요." 경사가 말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참 묘한 일입니다. 이 사건은 모든 게 다 묘해요. 자, 그래서 이번엔 또 무엇입니까?"

집사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죽은 이의 뻗은 손을 가리켰다.

"그들이 그의 결혼반지까지 가져갔어요!"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뭐라고요!"

"네, 정말이에요. 주인님께서는 항상 왼손 새끼손가락에 아무 무늬 없는 금색 결혼반지를 끼고 계셨거든요. 그 위에는 울퉁불퉁한 원석이 박힌 반지가 있었고, 세 번째 손가락에는 뱀이 똬리를 튼 모양의 반지가 있었죠. 여기 원석 반지와 뱀 반지는 그대로 있는데, 결혼반지만 사라졌어요."

"그의 말이 맞네." 바커가 말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은," 경사가 물었다. "결혼반지가 다른 반지보다 더 '안쪽'에 끼워져 있었다는 말입니까?"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인범이든 누구든 간에, 우선 당신이 너겟 반지라고 부르는 이 반지를 빼낸 뒤에 결혼반지를 빼냈고, 그러고 나서 다시 너겟 반지를 끼워 넣었다는 말이군요."

"정말 그렇군요!"

품행이 바른 시골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다.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을 최대한 빨리 런던에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말했다. "화이트 메이슨은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가

해결하지 못한 지역 사건은 단 하나도 없었지요. 머지않아 그가 도착해서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하지만 일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런던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군요. 어쨌든,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 사건이 너무 버겁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제1부 제4장 어둠

제4장 어둠

새벽 세 시, 서섹스주 경시청의 수사 책임자가 벌스턴의 윌슨 경사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본부에서 출발했다. 그는 숨 가쁘게 달리는 경주마가 끄는 가벼운 마차를 타고 도착했다. 그는 새벽 다섯 시 사십 분 열차 편으로 스코틀랜드 야드에 전갈을 보냈고, 정오에는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벌스턴 역에 나와 있었다.

화이트 메이슨은 헐렁한 트위드 슈트를 입은, 조용하고 편안한 인상의 사내였다. 깔끔하게 면도한 붉은 얼굴에 다부진 체격, 그리고 게이터를 착용한 힘 있는 굽은 다리를 가진 그는 마치 작은 농부나 은퇴한 사냥터지기처럼 보였다. 지방의 범죄 수사관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외모였다.

“정말이지 대단한 사건입니다, 맥도널드 씨!” 그는 연신 말을 되풀이했다. “기자들이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만 하면, 파리 떼처럼 몰려들 겁니다. 기자들이 코를 들이밀며 단서들을 엉망으로 만들기 전에

우리가 일을 끝낼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기억에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홈즈 씨,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당신에게도 꽤 흥미로운 대목들이 있을 겁니다. 왓슨 박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이 일이 끝나기 전에 의료 전문가들도 한마디 거들게 될 테니까요. 숙소는 웨스트빌 암즈로 준비했습니다. 다른 곳은 없지만, 깨끗하고 괜찮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짐은 직원이 옮겨줄 겁니다. 자, 신사 여러분, 이쪽으로 오시지요."

서식스의 그 형사는 매우 분주하면서도 상냥한 사람이었다. 덕분에 우리는 10분 만에 각자의 방을 찾아 들어갈 수 있었다. 다시 10분이 지나자 우리는 여관 거실에 둘러앉았고, 형사는 앞 장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했던 사건의 전말을 빠르게 들려주기 시작했다. 맥도널드는 중간중간 중요한 내용을 메모했고, 홈즈는 마치 식물학자가 희귀하고 귀한 꽃을 발견했을 때처럼 경탄과 경외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놀랍군!" 이야기가 모두 끝나자 그가 말했다. "정말 놀라워! 이토록 기이한 양상을 띠는 사건은 기억조차 가물가물할 정도야."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홈즈 씨." 화이트 메이슨이 아주 기뻐하며 말했다. "우리 서식스 지역 사람들도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밝거든요.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윌슨 경사와 교대하기 전까지 상황이 어떠했는지 방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말을 얼마나 빨리 몰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렇게 서두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윌슨 경사가 이

미 모든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한 뒤, 아마 제가 새로 알아낸 사실 몇 가지를 덧붙였을 뿐입니다."

"그게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홈즈가 열띤 목소리로 물었다.

"우선 망치를 먼저 조사했습니다. 우드 박사도 곁에서 도와주었지요. 하지만 망치에서 어떤 폭력의 흔적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존 더글러스 씨가 망치로 자신을 방어했다면, 망치를 매트 위에 떨어뜨리기 전에 범인의 몸에 어떤 흔적이라도 남겼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얼룩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맥도널드 경위가 말했다. "망치로 저지른 살인 사건은 수없이 많았지만, 망치에 흔적이 남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망치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만약 흔적이 남아 있었다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총을 조사했습니다. 탄환은 산탄이었는데, 윌슨 경사가 지적했듯이 방아쇠가 철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뒤쪽 방아쇠를 당기면 두 총구에서 동시에 탄환이 발사되는 구조였죠. 이 장치를 만든 사람은 목표물을 놓치지 않겠다고 작정한 모양입니다. 톱으로 잘라낸 총의 길이는 2피트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코트 안에 넣고 다니기에도 충분할 만큼 짧았죠. 제조사의 전체 이름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총신 사이의 홈에 P, E, N이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는데, 나머지 이름은 톱질을 하는 과정에서 잘려 나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커다란 P 자 위에 화려한 장식이 있고, 그 아래에 더 작은 E와 N이 붙어 있는 모양인가요?” 홈즈가 물었다.

“정확합니다.”

"펜실베이니아 스몰 암스 컴퍼니, 아주 유명한 미국 회사군." 홈즈가 말했다.

화이트 메이슨은 내 친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마치 시골 마을의 의사가, 말 한마디로 자신의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줄 해리 스트리트의 전문의를 마주했을 때처럼 말이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홈즈 씨. 틀림없이 당신 말이 맞을 겁니다. 놀랍군요! 정말 놀라워요! 혹시 전 세계 총기 제작업자들의 명단을 전부 머릿속에 담고 계신 건가요?”

홈즈는 손을 가볍게 휘저으며 그 화제를 물리쳤다.

“틀림없이 미국제 산탄총일 겁니다.” 화이트 메이슨이 말을 이었다. “톱으로 짧게 잘라낸 산탄총이 미국 일부 지역에서 쓰이는 무기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 것 같군요. 총열에 새겨진 이름 말고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침입해 집주인을 살해한 자가 미국인이라는 증거가 되겠군요.”

맥도널드는 고개를 저었다. “이보게, 자네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그가 말했다. “낯선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갔다는 증거는 아직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네.”

"열려 있는 창문, 창틀에 묻은 혈흔, 기묘한 카드, 구석에 찍힌 장화 자국, 그리고 총!"

"모두 미리 짜놓은 각본일 뿐입니다. 더글러스 씨는 미국인이거나, 혹은 미국에서 아주 오래 살았던 사람이지요. 바커 씨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식 수법이 나타났다고 해서, 굳이 외부에서 미국인을 불러올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집사 에임스가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찰스 찬도스 경과 함께한 10년 동안 그는 바위처럼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5년 전 더글러스가 저택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이후로도 줄곧 그의 곁을 지켰지요. 하지만 저택에서 이런 종류의 총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총은 숨기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총신을 잘라낸 것이고요. 덕분에 어떤 상자에도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집 안에 그런 총이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단 말입니까?"

"뭐, 어쨌든 그는 그런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맥도널드는 완고한 스코틀랜드식 머리를 가로저었다.

"집 안에 누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직도 못 믿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내가 말하려는 건 말입니다." (그는 자기 주장에 몰입하자 애버딘

특유의 억양이 더욱 짙어졌다.) "만약 이 총이 집 안으로 반입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을 외부인이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오, 이보게나, 이건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야! 상식적으로도 전혀 말이 안 된다고! 홈즈 씨,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내용만 놓고 판단해 봐도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자, 맥 씨. 사건 내용을 말씀해 보시지요." 홈즈가 마치 판사라도 된 듯 엄숙한 태도로 말했다.

"그자가 설령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단순한 빈집털이범은 아닙니다. 반지 사건과 카드라는 단서는 사적인 원한에 의한 계획적인 살인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확고한 의도를 품고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만약 그가 상황을 조금이라도 파악하고 있다면, 집 주변이 물로 둘러싸여 있어 도망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그는 어떤 무기를 골랐을까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소리 없는 무기를 택했을 겁니다. 그래야 범행을 마친 뒤 창문으로 재빨리 빠져나가 해자를 건너고, 여유롭게 도망칠 수 있을 테니까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도대체 이해가 가십니까? 집 안의 모든 사람을 순식간에 불러 모을 만큼 요란한 무기를 굳이 챙겨온 것이 말입니다. 그 무기 소리에 사람들이 달려올 것이고, 해자를 건너기도 전에 들통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말이죠. 홈즈 씨, 이게 정말 믿을 만한 상황입니까?"

"글쎄요, 당신의 주장이 꽤 설득력이 있군요." 내 친구가 생각에 잠긴 듯 대답했다. "확실히 그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상당한 근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화이트 메이슨 씨,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해자 반대편을 즉시 조사해 보셨는지요? 물속에서 누군가 기어 올라온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흔적은 없었습니다, 홈즈 씨. 하지만 그곳은 돌로 된 선반 모양의 턱이라, 애초에 흔적이 남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발자국이나 흔적은 전혀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 화이트 메이슨 씨, 지금 당장 그 집으로 내려가 보는 건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놓친 사소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제안을 막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홈즈 씨.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모든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당신의 눈에 무언가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화이트 메이슨은 아마추어 탐정인 홈즈를 의구심 가득한 눈초리로 바라보며 말을 흐렸다.

"전에도 홈즈 씨와 함께 일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맥도널드 경위가 말했다. "그는 수사 방식이 아주 확실한 사람이지요."

"적어도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정의를 실현하고 경찰의 업무를 돕기 위해 사건에 뛰

어듭니다. 만약 제가 경찰 조직과 거리를 두게 된 적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먼저 저를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코 그들을 깎아내려 제 이득을 챙길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화이트 메이슨 씨, 저에게도 제 방식대로 일할 권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은 단계별로 나누어 드리는 대신,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한 뒤에 한꺼번에 보여드리고 싶군요."

"와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가 아는 모든 것을 기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이트 메이슨이 친절하게 말했다. "자, 어서 오시지요, 왓슨 박사님. 때가 되면 저희 모두 박사님의 책에 한 줄이라도 실리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우리는 양옆으로 가지치기를 한 느릅나무가 줄지어 늘어선 이색적인 마을 길을 따라 걸었다. 길을 조금 지나자, 비바람에 얼룩지고 이끼가 잔뜩 낀 고대의 석주 두 개가 나타났다. 석주 꼭대기에는 한때 벌스턴의 카푸스 가문을 상징하던 용맹한 사자 문장이 새겨져 있었으나, 지금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깎여 나가 있었다.

영국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푸른 잔디와 참나무가 어우러진 구불구불한 진입로를 따라 잠시 걷다 보니 갑자기 길이 꺾였다. 그 너머로 낮고 긴 자코비언 양식의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칙칙한 간장색 벽돌로 지어진 그 집 양옆에는 잘 다듬어진 주목들이 늘어선 구식 정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저택에 가까워지자 나무로 된 도개교가 보였고, 그 옆으로는 넓고 아름다운 해자가 펼쳐졌다. 차가운 겨울 햇살을 받은 해자의 물결은 마치 수은처럼 고요하면서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래된 저택에는 삼백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그 세월 동안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으며, 시골 마을의 춤판이 벌어지기도 하고 여우 사냥꾼들이 모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저택이 노쇠한 나이에 접어들자, 이 기괴한 사건이 유서 깊은 벽 위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 것은 참으로 기묘한 일이었다. 하지만 뾰족하게 솟은 기묘한 지붕과 멋스럽게 돌출된 박공벽은, 이 잔혹하고 끔찍한 음모를 덮어주기에 오히려 적절해 보였다. 깊게 파인 창문들과 물결이 닿는 무채색의 긴 정면을 바라보며, 나는 이 비극을 위한 무대로 이보다 더 완벽한 장소는 없을 것이라고 느꼈다.

"저게 바로 그 창문입니다." 화이트 메이슨이 말했다. "도개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창문 말입니다. 어젯밤 발견됐을 때처럼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기에는 통로가 꽤 좁아 보이는군요."

"뭐, 어쨌든 뚱뚱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홈즈 씨, 그런 건 굳이 당신이 추리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이나 나 정도라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을 겁니다."

홈즈는 해자 가장자리로 걸어가 건너편을 살폈다. 그러고는 돌로 된 선반 모양의 턱과 그 너머로 이어진 풀밭 경계까지 꼼꼼히 조사했다.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홈즈 씨." 화이트 메이슨이 말했다. "아무것도 없더군요. 누군가 상륙했다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자가 굳이 흔적을 남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확합니다. 그가 왜 그래야 하겠습니까? 물이 항상 그렇게 탁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로 이런 색깔입니다. 시냇물이 진흙을 쓸어 내려오거든요."

"얼마나 깊습니까?"

"양옆은 2피트, 가운데는 3피트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 남자가 강을 건너다 익사했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해도 되겠군요."

"아니요,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익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도개교를 건너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집사 에임스라는 이름의 기이하고 마디가 굵은, 마치 말라비틀어진 듯한 노인을 만났다. 가엾은 노인은 충격으로 인해 얼굴이 창백해진 채 몸을 떨고 있었다. 키가 크고 격식을 차린 듯하면서도 우울한 인상의 마을 경사는 여전히 '운명의 방'을 지키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의사는 이미 떠난 뒤였다.

"새로운 소식은 없나, 윌슨 경사?" 화이트 메이슨이 물었다.

"아닙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 돌아가 보셔도 좋습니다. 충분히 고생하셨으니까요. 나중에 다시 필요해지면 우리가 부르도록 하죠. 집사는 밖에서 대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세실 바커 씨와 더글러스 부인, 그리고 가사 도우미

에게 곧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으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전해 주시고요. 자, 신사 여러분, 우선 제가 정리한 견해를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후에 여러분도 각자의 의견을 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전문가라는 그는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이 탄탄했고, 냉철하고 명석하며 상식적인 두뇌를 갖추고 있었다. 그 정도 실력이면 그의 직업 세계에서 꽤 성공할 만했다. 홈즈는 그를 주의 깊게 경청했다. 평소 공직자들이 흔히 보여주는 그 조급한 기색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자, 신사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자살인가, 아니면 타살인가? 만약 자살이라면, 우리는 이 남자가 먼저 결혼반지를 빼서 어딘가에 숨겼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운 차림으로 이곳에 내려와, 마치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커튼 뒤 구석에 진흙을 짓밟아 놓았다고 말이죠. 그다음 창문을 열고, 피를 묻혀서—"

"그건 확실히 배제해도 됩니다." 맥도널드가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자살일 가능성은 없군. 그렇다면 이건 명백한 살인 사건이야. 이제 우리가 밝혀내야 할 건, 범인이 집 안의 사람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침입한 자인지 하는 문제라네."

"자, 어디 논거를 한번 들어봅시다."

"양쪽 모두 꽤나 까다로운 점이 있군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결론은 하나로 귀결될 겁니다. 우선 집 안에 있던 누군가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범인은 모든 것이 고요하지만 아직 아무도 잠들지 않은 시점에 이 남자를 이곳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세상에서 가장 기괴하고 요란한 무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죠.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에게 알리려는 듯 말입니다. 그 무기는 집 안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이 가설은 시작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군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되는군요. 경보가 울리고 나서 길어야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온 집안 식구가 현장에 도착했다는 점 말입니다. 세실 바커 씨 본인이 가장 먼저 도착했다고 주장하긴 하지만, 에임스 씨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 자리에 있었으니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범인이 구석에 발자국을 남기고, 창문을 열고, 창틀에 피를 묻히고, 죽은 이의 손가락에서 결혼반지까지 빼앗아 갔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셨군요." 홈즈가 말했다. "저도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결국 범인은 외부에서 온 인물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군요. 여전히 해결하기 까다로운 난제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불가능한 일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범인은 4시 30분에서 6시 사이, 즉 황혼 무렵부터 다리가 들리기 전 사이에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방문객들이 있어 문이 열려 있었으니, 침입을 막을 만한 장애물은 없었겠지요. 범인은 그저 평범한 빈집털이범일 수도 있고, 혹은 존 더글러스 씨

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글러스 씨가 인생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냈고, 현장에서 발견된 산탄총 또한 미국제 무기로 보이니, 개인적인 원한이 동기라는 가설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범인은 들어오자마자 처음 마주친 이 방으로 몰래 숨어들었고, 커튼 뒤에 몸을 숨겼을 겁니다. 그러고는 밤 11시가 넘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겠지요. 그때 더글러스 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었다 하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더글러스 부인의 말에 따르면, 남편이 집을 나선 지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 총성이 들렸다고 하니까요."

"양초가 증명해 주지." 홈즈가 말했다.

"정확합니다. 새 양초인데도 불이 겨우 0.5인치 정도밖에 타지 않았어요. 범인이 공격하기 전에 양초를 탁자 위에 놓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쓰러질 때 양초도 함께 떨어졌을 테니까요. 이는 피해자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공격받은 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바커 씨가 도착했을 당시에는 양초에 불이 켜져 있었지만, 램프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명확하군."

"자, 이제 사건의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더글러스 씨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촛불을 내려놓습니다. 그때 커튼 뒤에서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남자의 손에는 이 총이 들려 있습니다. 그는 결혼반지를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하늘만이 아시겠지만, 분명 그랬을 겁니다. 더글러스 씨는 반지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냉혹

하게 살해했거나, 혹은 몸싸움 도중에 벌어진 일일 겁니다. 더글러스 씨가 깔개 위에서 발견된 그 망치를 붙잡았을지도 모르겠군요. 남자는 더글러스 씨를 이런 끔찍한 방식으로 쐈습니다. 그러고는 총을 떨어뜨렸고, 이 기묘한 카드도 함께 남겨둔 듯합니다. V.V. 341, 이게 대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남자는 세실 바커가 범죄 현장을 발견하던 바로 그 순간,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 해자를 가로질러 달아났습니다. 홈즈 씨, 제 추리가 어떻습니까?"

"매우 흥미롭군. 하지만 설득력이 조금 떨어져."

"이보게, 다른 어떤 가설이 더 형편없지만 않았더라면 이건 완전히 터무니없는 소리였을 걸세!" 맥도널드가 외쳤다. "누군가 그 남자를 죽였어. 범인이 누구든 간에, 나는 그자가 마땅히 다른 방법으로 했어야 했다는 걸 자네에게 분명히 증명해 보일 수 있다고. 도망갈 길을 그렇게 스스로 막아버린 의도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조용히 빠져나가는 것이 유일한 탈출 기회였는데, 왜 굳이 산탄총을 사용했단 말인가? 자, 홈즈 씨, 화이트 메이슨 씨의 이론이 설득력이 없다고 하셨으니, 이제 당신이 우리에게 실마리를 줄 차례입니다."

긴 토론이 이어지는 동안 홈즈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온 신경을 집중해 관찰했다. 예리한 눈빛은 좌우로 바쁘게 움직였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그의 이마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다.

"맥 씨, 이론을 세우기 전에 사실 관계를 좀 더 파악해야겠습니다."

그는 시신 옆에 무릎을 굽히고 앉으며 말했다.

"세상에! 부상이 정말 처참하군요. 집사 좀 잠시 불러주시겠습니까? …에임스, 듣기로는 존 더글러스 씨의 팔뚝에서 원 안에 삼각형이 그려진 아주 특이한 낙인을 자주 보셨다던데, 맞습니까?"

"자주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 추측이라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상처를 입을 당시 고통이 엄청났겠군요. 의심할 여지 없는 화상입니다. 그런데 에임스, 존 더글러스 씨의 턱 끝부분에 작은 반창고 조각이 붙어 있는 게 보이는군요. 생전에도 이 부분을 확인하셨습니까?"

"네, 선생님. 어제 아침에 면도하다가 베였어요."

"그가 면도하다가 피를 본 적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선생님."

"시사하는 바가 있군요!" 홈즈가 말했다. "물론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가 위험을 직감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지요. 에임스 씨, 어제 그 사람의 행동에서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한 건 없었습니까?"

"그가 다소 불안해 보이고 흥분한 상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하! 습격이 아주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었던 모양이군요. 우리가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맥 씨, 질문은 당신이 직접 하는 게 좋겠군요."

"아닙니다, 홈즈 씨. 제 손보다는 훨씬 더 믿음직한 분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카드로 넘어가 보죠. V.V. 341이라고 적혀 있군요. 거친 판지 재질입니다. 혹시 댁에 이런 종류의 카드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홈즈는 책상 쪽으로 걸어가더니, 잉크병마다 잉크를 조금씩 찍어 흡수지를 적셨다.

"이 방에서 인쇄한 게 아니군." 홈즈가 말했다. "이건 검은색 잉크고, 저건 보랏빛이 도는군. 게다가 글씨를 쓴 펜은 굵은 것이었는데, 여기 있는 건 아주 가늘어. 아니, 분명 다른 곳에서 작성한 거야. 에임스, 이 문구에서 뭐 좀 알아낼 수 있겠나?"

"아닙니다, 선생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맥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쩐지 비밀 결사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팔뚝에 달린 저 배지도 그렇고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화이트 메이슨이 말했다.

"좋습니다. 일단 이것을 가설로 세워두고, 사건의 난제들이 얼마나 풀리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우선 그런 비밀 결사에서 보낸 요원이 집 안으로 침입합니다. 그러고는 더글러스 씨를 기다렸다가, 이 무기로 그의 머리를 거의 날려버릴 만큼 강력하게 쏩니다. 그다음에는 시신 옆에 카드 한 장을 남겨두고 해자를 헤엄쳐 빠져나가는 겁니다. 신문에 이 사건이 보도되면, 그 카드는 결사 조직원들에게 복수가 완료되었다는 신호가 되겠지요. 모든 정황이 앞뒤가 맞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이 총일까요? 다른 무기도 많은데 말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사라진 반지는 왜 그런 겁니까?"

"그렇고말고요."

"그런데 왜 아직 체포하지 않은 겁니까? 벌써 두 시가 넘었습니다. 새벽부터 사방 40마일 이내의 모든 순경이 흠뻑 젖은 낯선 이를 찾아 헤매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홈즈 씨."

"글쎄요, 그자가 근처에 숨어 있을 구멍이라도 파놓았거나 갈아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 두지 않은 이상, 놓치기는커녕 눈앞에서 놓칠 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를 놓치고 있다니요!"

홈즈는 창가로 걸어가 돋보기로 창틀에 묻은 혈흔을 살피며 말을 이었다.

"이건 분명히 신발 자국입니다. 아주 넓군요. 발 모양이 옆으로 퍼진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진흙이 묻은 이 구석에서 발자국을 추적해 보면, 원래는 좀 더 매끈한 모양의 밑창이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자국이 너무 흐릿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죠, 보조 탁자 밑에 있는 게?"

"더글러스 씨의 덤벨입니다." 에임스가 말했다.

"덤벨이 하나뿐이군. 나머지 하나는 어디 있지?"

"잘 모르겠습니다, 홈즈 씨. 원래 하나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은 그것들을 눈여겨보지 않았거든요."

"덤벨이 하나라—" 홈즈가 진지하게 말을 이으려던 찰나,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말을 끊었다.

키가 크고 햇볕에 그을린, 유능해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남자가 우리를 보러 들어왔다. 내가 전에 들어보았던 세실 바커가 누구인지 알아맞히는 건 어렵지 않았다. 그는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강렬한 눈빛으로, 의구심 가득한 시선을 던지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빠르게 훑었다.

"상담 중인 데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가 말했다. "방금 들어온 최신 소식을 꼭 들으셔야겠습니다."

"체포라고요?"

"운이 없었네. 하지만 자전거는 찾아냈어. 그 친구가 자전거를 두고 갔거든. 이리 와서 직접 보게나. 저택 현관에서 백 야드도 채 안 되는 곳에 있네."

진입로에는 마부와 한가한 부하들 서너 명이 모여 자전거 한 대를 살피고 있었다. 상록수 덤불 속에 숨겨두었던 자전거를 막 꺼내온 참이었다. 자전거는 꽤 오래 탄 흔적이 역력한 러지-휘트워스(Rudge-Whitworth) 제품이었고, 먼 길을 달려온 듯 여기저기 흙탕물이 튀어 있었다. 안장 가방 안에는 스패너와 기름통이 들어 있었지만, 자전거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서는 전혀 없었다.

"이런 물건들에 번호를 매기고 등록해 두었다면 경찰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경위가 말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확보한 것들에 감사해야겠지요.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자가 이걸 두고 떠난 걸까요? 그리고 대체 어떻게 이걸 챙기지 않고도 도망칠 수 있었단 말입니까? 홈즈 씨, 이번 사건은 도무지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군요."

"그럴까요?" 내 친구가 생각에 잠긴 듯 대답했다. "글쎄, 어떨지!"

제1부 제5장 사건의 인물들

제5장 사건의 인물들

“서재는 구경할 만큼 다 보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서자, 화이트 메이슨이 물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경위가 말하자, 홈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저택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는 게 좋겠군요. 에임스, 식당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당신이 먼저 와서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해 주시오.”

집사의 설명은 단순하고 명료했으며, 그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그는 더글러스가 처음 벌스턴에 왔을 때인 5년 전부터 이곳에서 일해 왔다. 집사는 더글러스 씨가 미국에서 부를 쌓은 부유한 신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더글러스 씨는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고용주였다. 아마도 에임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었겠지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는 법이다. 집사가 보기에 더글러스 씨는

결코 불안해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집사가 지금까지 알고 지낸 사람 중 가장 용맹한 사람이었다. 매일 밤 도개교를 들어 올리라고 명령한 것은 이 오래된 저택의 오랜 관습이었으며, 더글러스 씨가 옛 전통을 지키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더글러스 씨는 런던에 가거나 마을을 떠나는 일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범행 전날에는 턴브리지 웰스에 쇼핑을 하러 나갔었다. 하인 에임스는 그날 더글러스 씨가 몹시 불안해하며 들떠 있는 것을 눈여겨보았다. 평소와 달리 그는 무언가 조급하고 신경질적인 기색이 역력했다. 그날 밤 더글러스 씨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에임스가 집 뒤편 식료품 저장실에서 은식기를 정리하고 있을 때, 벨이 격렬하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총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식료품 저장실과 주방은 집 맨 뒤쪽에 있었고, 그 사이에는 여러 개의 닫힌 문과 긴 복도가 있었기에 총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가정부가 요란하게 울리는 벨 소리에 이끌려 방에서 나왔다. 두 사람은 함께 집 앞쪽으로 향했다.

그들이 계단 아래에 다다랐을 때, 그는 더글러스 부인이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다. 아니, 그녀는 서두르는 기색이 아니었다. 딱히 동요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그녀가 계단 끝에 발을 내디디려는 찰나, 바커 씨가 서재에서 급히 뛰쳐나왔다. 그는 더글러스 부인을 불러 세우더니, 다시 안으로 들어가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제발 부탁이니 네 방으로 돌아가!" 그가 외쳤다. "불쌍한 잭은 죽었어!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다. 제발 부탁이니, 어서 돌아가!"

계단에서 몇 번을 달래고 나서야 더글러스 부인은 방으로 돌아갔다. 부인은 비명을 지르지도,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다. 가사도우미인 앨런 부인이 그녀를 위층으로 데려가 침실에 함께 머물렀다. 그사이 에임스와 바커 씨는 서재로 돌아왔다. 서재의 상태는 경찰이 조사했을 때와 정확히 일치했다. 당시 양초에는 불이 붙어 있지 않았으나, 램프는 켜져 있었다. 그들은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밤이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홀로 급히 달려 나갔고, 에임스가 도르래를 돌려 도개교를 내렸다. 그런 다음 바커 씨는 경찰을 부르기 위해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집사의 증언은 본질적으로 그와 같았다.

가정부 앨런 부인의 진술은 그 내용만 놓고 본다면 동료 하인의 말과 일치했다. 앨런 부인의 방은 에임스가 일하던 식료품 저장실보다 저택 앞쪽에 좀 더 가까이 있었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던 중, 요란하게 울리는 벨 소리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녀는 귀가 다소 어두운 편이었다. 아마 그 때문에 총소리를 듣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서재는 방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문이 쾅 닫히는 듯한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났다. 하지만 그 소리는 벨이 울리기 적어도 30분 전의 일이었다. 에임스 씨가 현관으로 달려 나갈 때 그녀도 함께 따라 나갔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흥분한 상태로 바커 씨가 서재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바커 씨는 계단을 내려오던 더글러스 부인을 가로막았다. 그는 부인에게 다시 방으로 돌아가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부인도 대답을 했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를 위층으로 모셔 가세요! 곁을 지켜 주시고요!" 그는 앨런 부인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여자를 침실로 데려가 진정시키려 애썼다. 여자는 온몸을 떨며 몹시 흥분한 상태였지만,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여자는 그저 가운을 걸친 채 침실 벽난로 옆에 앉아 머리를 두 손에 파묻고 있을 뿐이었다. 앨런 부인은 밤늦도록 그녀의 곁을 지켰다. 다른 하인들은 모두 잠자리에 든 상태였고,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이 되어서야 소란을 알아챘다. 하인들의 숙소는 저택 맨 뒤쪽에 있었기에, 그들이 소리를 듣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가정부에게 다시 캐묻고 또 캐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이라고는 탄식과 경악 섞인 외침뿐이었다.

다음 증인으로는 세실 바커가 앨런 부인의 자리를 이어받았다. 전날 밤에 일어난 사건에 관해서라면, 그는 이미 경찰에 진술한 내용 외에 더 보탤 말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다면, 그는 범인이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고 확신했다. 혈흔이 남은 흔적을 볼 때, 그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당시 다리가 올라가 있었으므로, 범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었다. 다만 그는 살인범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리고 만약 그 자전거가 정말 범인의 것이 맞다면 왜 자전거를 가져가지 않았는지는 설명할 길이 없었다. 해자 속에서 범인이 익사했을 가능성도 없었다. 해자의 깊이는 어느 곳이라 해도 3피트를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번 살인 사건에 대해 아주 확고한 가설을 세워두고 있었다. 더글러스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기에, 그의 인생에는 결코 입 밖에 내지 않는 비밀스러운 장들이 몇 대목 있었다. 그는 아주 젊은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그곳에서 그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바커가 그를 처음 만난 곳도 캘리포니아였다. 두 사람은 베니토 협곡이라는 곳에서 광업권 사업을 함께하며 동업자가 되었다. 사업은 매우 번창했다. 하지만 더글러스는 갑자기 지분을 모두 팔아치우고 영국으로 떠나버렸다. 당시 그는 홀로 된 상태였다. 이후 바커도 자산을 정리해 런던으로 건너왔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우정을 나누게 된 것이다.

더글러스는 그에게 어떤 위험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바커는 그가 캘리포니아를 갑작스럽게 떠난 일이나, 영국에서도 이토록 조용한 곳에 집을 빌린 이유가 모두 그 위험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늘 생각했다. 더글러스의 뒤를 쫓으며 그를 죽이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을, 무자비한 비밀 결사 조직이 그를 노리고 있을 것이라 짐작한 것이다. 더글러스가 했던 몇몇 말들이 바커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주었다. 비록 더글러스가 그 조직이 무엇인지, 혹은 자신이 어떻게 그들의 눈 밖에 나게 되었는지는 끝내 말해주지 않았지만 말이다. 바커는 게시판에 붙은 그 전설 같은 문구가 바로 이 비밀 결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었다.

"캘리포니아에서 더글러스와 함께 있었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맥도널드 경위가 물었다.

"총 5년입니다."

"그가 독신이었다고 하셨습니까?"

"홀로 된 사람이라더군."

"그의 첫 번째 아내가 어디 출신인지 들어본 적 있나?"

"아니요, 그가 그녀는 독일계라고 말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녀의 초상화도 본 적이 있고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를 만나기 전 해에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의 과거가 미국의 어느 특정 지역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군요?"

"그가 시카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 사정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거기서 일하기도 했지요. 석탄과 철광석 지대에 대해서도 말하곤 했습니다. 살면서 이곳저곳 여행을 꽤 많이 다녔던 모양입니다."

"그는 정치인이었습니까? 이 비밀 결사가 정치와 관련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그는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범죄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제 평생 그렇게 정직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캘리포니아에서 보낸 삶에 뭐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까?"

"그는 산속에 있는 우리 광산에 머물며 일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는 절대 가지 않으려 했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군가 그를 뒤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유럽으로 갑자기 떠나버렸을 때,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분명 어떤 경고를 받았던 게 분명해요. 그가 떠나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대여섯 명의 남자가 그를 찾으러 나타났으니까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글쎄요, 아주 험악하게 생긴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광산까지 찾아와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지요. 저는 그가 유럽으로 떠났고,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을 보니 그를 해칠 작정이라는 게 단번에 느껴지더군요."

"그 사람들이 미국인, 그것도 캘리포니아 사람이었습니까?"

"글쎄요,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그들이 미국인이었다는 사실뿐이죠. 하지만 광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눈앞에서 사라져 주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게 벌써 6년 전 일이라고요?"

"거의 7년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캘리포니아에서 함께 보낸 5년까지 합쳐서, 이 사건은 적어도 11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고말고요."

"그토록 오랫동안이나 그토록 필사적으로 이어져 온 원한이라면, 분명 매우 심각한 갈등일 겁니다. 그 원한이 시작된 계기 또한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니었겠지요."

"그 일이 그의 평생을 따라다녔다고 생각하네. 그는 단 한 순간도 그 일을 잊지 못했어."

"하지만 만약 어떤 사람에게 닥칠 위험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가 보호를 받기 위해 경찰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가 손쓸 수 없는 위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그는 항상 무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리볼버 권총을 주머니에서 빼놓는 법이 없었죠. 하지만 운이 나쁘게도 어젯밤에는 가운 차림이었고, 권총은 침실에 두고 왔습니다. 아마 다리가 들려 올라가자, 그는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날짜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싶군요." 맥도널드가 말했다. "더글러스가 캘리포니아를 떠난 지 벌써 6년이나 지났습니다. 당신은 그다음 해에 그를 따라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고말고요."

"그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가 결혼할 무렵에 당신도 돌아왔겠군요."

"한 달 전쯤입니다. 제가 그의 들러리였거든요."

"더글러스 부인이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영국을 떠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뒤로 그녀를 꽤 자주 보셨지 않습니까?"

바커는 탐정을 엄하게 노려보며 대답했다. "그 이후로 그자를 꽤 자주 보았습니다. 그녀를 본 적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어떤 남자를 방문하면서 그 아내를 모른 채 지나칠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관계라도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무것도 짐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커 씨. 저는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결코 무례를 범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어떤 질문들은 무례하기 짝이 없군요." 바커가 화가 난 듯 대답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오직 사실뿐입니다.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당신은 물론,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지요. 존 더글러스 씨가 부인과 당신의 친분을 온전히 인정했습니까?"

바커의 안색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는 크고 강인한 두 손을 경련하듯 맞잡았다. "그런 질문을 할 권리는 당신에게 없습니다!" 그가 외쳤다. "그게 당신이 조사 중인 사건과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질문을 다시 드려야겠습니다."

"글쎄요, 대답을 거부하겠습니다."

"대답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의 대답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숨길 것이 없다면 굳이 대답을 거부할 이유도 없을 테니까요."

바커는 잠시 동안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짙고 검은 눈썹을 낮게 찌푸린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다. 그러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뭐, 결국 신사분들께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시는 것이니, 제가 방해할 권리는 없겠지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로 더글러스 부인을 너무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부인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상황이니까요. 불쌍한 더글러스에게 세상에 딱

하나 결점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질투심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무척 아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저만큼 친구를 아끼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내에게도 헌신적이었고요. 그는 제가 이곳에 오는 것을 무척 좋아했고, 늘 저를 불러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내와 제가 이야기를 나누거나, 우리 사이에 조금이라도 교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라도 하면, 그는 질투의 파도에 휩쓸려 순식간에 이성을 잃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곤 했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제가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맹세한 적도 여러 번이었지만, 그때마다 그가 너무나도 참회하며 애원하는 편지를 보내오는 바람에 결국 다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사분들,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건대, 그 어떤 남자도 저보다 더 사랑스럽고 충실한 아내를 두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어떤 친구보다도 충직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열정적이고 감정이 실린 말투였으나, 맥도널드 경위는 그 화제를 그냥 넘길 수 없었다.

"죽은 이의 손가락에서 결혼반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겠지요?" 그가 물었다.

"그렇게 보이는군요." 바커가 말했다.

"'보인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 자네는 이미 사실로 알고 있지 않은가."

남자는 혼란스러운 듯 망설였다. "내가 '보인다'라고 말한 건, 그가 스스로 반지를 빼냈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었네."

"누가 가져갔든 간에, 그 반지가 사라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결혼식과 비극적인 사건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커는 넓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감히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부인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흠이 갈 수 있다는 식으로 암시를 주려는 것이라면—" 그의 눈이 순간 번뜩였다. 그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말을 이었다. "글쎄요, 당신은 완전히 잘못 짚으신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현재로서는 더 물어볼 것이 없는 것 같군요." 맥도널드가 차갑게 말했다.

"한 가지 작은 의문점이 있군요." 셜록 홈즈가 말했다. "당신이 방에 들어갔을 때, 탁자 위에는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 빛을 보고 어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렸다는 말입니까?"

"정확합니다."

"그 즉시 도움을 요청하려고 벨을 누르셨단 말입니까?"

"네."

"그것이 아주 신속하게 도착했단 말입니까?"

"1분 남짓 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양초는 꺼져 있었고 램프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아주 기이한 일이군요."

바커는 다시금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홈즈 씨,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양초 빛이 너무 흐릿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더 밝은 불빛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탁자 위에 램프가 있기에 그것을 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촛불을 껐단 말입니까?"

"정확합니다."

홈즈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바커는 나와 홈즈를 차례로 천천히 훑어보았다. 내 눈에는 그 눈빛에 일종의 반항심마저 서려 있는 듯했다. 그러고는 그는 몸을 돌려 방을 나갔다.

맥도널드 경위는 존 더글러스 부인의 방으로 찾아가겠다고 메모를 남겼으나, 부인은 식당에서 우리를 만나겠다고 답했다. 곧이어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른 살쯤 되어 보이는 키 크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태연했다. 내가 상상했던 비극에 휩싸여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물론 커다란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얼굴이 창백하고 수척해 보이기는 했다. 하지만 태도는 차분했다. 식탁 가장자리에 얹은 그녀의 매끄러운 손은 내 손만큼이

나 흔들림이 없었다. 슬픔을 머금은 채 호소하는 듯한 그녀의 눈동자가 묘하게 탐색하는 기색을 띠며 우리 둘을 번갈아 살폈다. 그 질문 어린 시선은 이내 갑작스러운 질문으로 이어졌다.

"뭐 좀 알아낸 게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그 질문에서 느껴진 것이 희망보다는 차라리 두려움에 가까운 기운이었다면, 그것은 내 착각이었을까?

"더글러스 부인, 저희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위가 말했다. "어떤 것도 소홀히 다루지 않을 테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돈은 아끼지 마세요." 그녀가 감정 없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이 이 사건을 밝힐 실마리를 우리에게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유감이지만 그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무엇이든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실 바커 씨에게 듣기로는, 당신이 그 비극이 일어난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진 그 방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는 계단에서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가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더군요."

"그렇고말고요. 총성을 듣자마자 곧장 내려오신 거군요."

"가운을 걸쳐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총성을 들은 뒤, 바커 씨가 계단에서 당신을 가로막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몇 분 정도 지났을 겁니다. 그런 순간에는 시간을 가늠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는 제발 더는 가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까지 말하면서요. 그러고 나서 집사인 앨런 부인이 저를 다시 위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끔찍한 악몽 같았습니다."

"총성이 들리기 전까지, 남편분이 아래층에 내려가 있었던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 가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탈의실에서 나오셨는데, 나가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화재를 무척 경계하셨기에 매일 밤 집 안을 한 바퀴씩 돌아보곤 하셨습니다. 그분이 유독 겁을 내는 것이라고는 화재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더글러스 부인. 남편분과는 영국에서만 알고 지내신 게 맞지요?"

"네, 결혼한 지 5년 되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겪었던 일 중에, 혹시 자신에게 해를 끼칠 만한 위험한 사건이라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더글러스 부인은 대답하기 전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남편에게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왔어요. 하지만 그는 그 문제를 저와 상의하려 하지 않았죠. 저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 사이에는 완전한 사랑과 신뢰가 있었으니까요. 다만 제가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제가 밤잠을 설칠까 봐, 그는 침묵을 택한 것이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더글러스 부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남편이 평생 비밀을 품고 사는데, 그를 사랑하는 아내가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가 미국 시절의 일들을 말하기를 꺼리는 것을 보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가 취하는 특정한 조심스러운 행동들을 보며 알았죠. 무심결에 내뱉는 몇몇 말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고요. 예기치 않게 나타난 낯선 이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답니다. 저는 그에게 아주 강력한 적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그 적들이 남편을 뒤쫓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남편 역시 늘 그들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도요. 저는 그 사실을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남편이 평소보다 조금이라도 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몇 년 동안이나 공포에 떨곤 했답니다."

"실례지만 하나 물어도 되겠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어떤 단어들이 당신의 주의를 끌었는지 말입니다."

"'공포의 계곡'이라고 했어요." 여인이 대답했다. "그를 붙잡고 물었을 때 그가 쓰던 표현이에요. '나는 공포의 계곡에 있었네. 아직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어.'라고 말하더군요. 그가 평소보다 더 심각해 보일 때면 나는 '우리는 결코 공포의 계곡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가요?'라고 묻곤 했어요. 그러면 그는 '가끔은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라고 대답하곤 했지요."

"그가 말한 '공포의 계곡'이 대체 무슨 뜻인지 분명히 물어보셨겠지요?"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하면 그는 안색이 아주 어두워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중 한 명이라도 그 그림자 아래 놓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한 일이라네.' 그가 말했습니다. '부디 신의 가호가 있어 자네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네!' 그가 살았던 곳은 정말로 어떤 계곡이었고, 그곳에서 그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가 이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네, 3년 전 사냥 사고를 당했을 때 한때 열병으로 헛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이름이 그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던 게 기억나는군요. 그는 분노와 일종의 공포가 섞인 목소리로 그 이름을 내뱉었

습니다. 맥긴티, 바로 보디마스터 맥긴티였습니다. 그가 회복된 뒤에 저는 보디마스터 맥긴티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누구의 몸을 지배하는 주인이라는 건지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하느님 감사합니다, 절대로 내 몸은 아니니까요!'라고 대답했을 뿐, 그 이상의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디마스터 맥긴티와 공포의 계곡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맥도널드 경위가 말했다. "런던의 어느 하숙집에서 존 더글러스 씨를 만나셨지요? 거기서 약혼도 하셨고요. 결혼 과정에서 혹시 로맨틱한 일이라든가, 비밀스럽거나 수상쩍은 점은 없었습니까?"

"낭만적인 요소는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낭만은 존재했지요. 하지만 신비로운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라이벌조차 없었단 말인가?"

"아니요, 저는 아주 자유로운 몸이었습니다."

"그의 결혼반지가 사라졌다는 소식은 분명 들으셨겠지요. 이 사실이 무엇을 암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의 과거를 아는 원수가 그를 끝까지 추적해 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원수가 굳이 결혼반지를 가져갈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나는 여자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

[삽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나는 그 여자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

"정말 모르겠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분명 아주 기이한 일이에요."

"그럼, 더는 붙잡아 두지 않겠습니다. 이런 시기에 번거롭게 해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경위가 말했다. "분명 더 확인해야 할 점들이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시 연락드려 여쭙도록 하지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금 전 우리를 살피던 그 날카롭고도 의구심 어린 눈빛이 다시금 느껴졌다. "제 증언이 여러분께 어떤 인상을 남겼는지 궁금하군요." 마치 말로 내뱉은 것과 다름없는 질문이 내 머릿속을 스쳤다. 그러고는 그녀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방을 나갔다.

"그 여자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간 뒤, 맥도널드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바커라는 이 남자는 분명 이곳에 꽤 자주 드나들었을 겁니다. 여자들에게 매력을 끌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지요. 본인도 죽은 남자가 질투심이 많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어쩌면 그 남자가 질투할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바커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 결혼반지도 문제입니다. 이건 그냥 넘길 수 없는 단서예요.

죽은 사람의 손가락에서 결혼반지를 강제로 빼낸 남자라니요. 홈즈 씨,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친구는 두 손에 머리를 괸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몸을 일으키더니 벨을 눌렀다. 집사가 들어오자 홈즈가 물었다. "에임스, 세실 바커 씨는 지금 어디에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는 잠시 후 다시 돌아와, 바커가 정원에 있다고 전했다.

"에임스, 어젯밤 자네가 서재에서 바커 씨를 만났을 때, 그가 발에 무엇을 신고 있었는지 기억하나?"

"네, 홈즈 씨. 그분은 침실용 슬리퍼 한 켤레를 신고 계셨습니다. 경찰을 부르러 나가실 때 제가 부츠를 가져다드렸지요."

"슬리퍼는 지금 어디 있지?"

"그것들은 여전히 복도에 있는 의자 밑에 있습니다."

"아주 좋네, 에임스. 어떤 발자국이 바커 씨의 것이고, 어떤 것이 외부인의 것인지 구분해 내는 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슬리퍼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제 슬리퍼에도 피가 묻어 있었지요."

"방 상태를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만하군요. 알겠습니다, 에임스. 필요하면 벨을 울리겠습니다."

몇 분 뒤, 우리는 서재로 들어갔다. 홈즈는 현관에 있던 카펫 슬리퍼를 챙겨온 상태였다. 에임스가 관찰한 대로, 두 슬리퍼의 밑창은 모두 피로 검게 물들어 있었다.

"이상하군!" 창가에 서서 그것들을 세밀하게 살펴보던 홈즈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정말이지 아주 이상해!"

그는 고양이처럼 날렵하게 몸을 굽히더니, 창틀에 묻은 혈흔 위에 슬리퍼를 올려놓았다. 위치가 정확히 일치했다. 홈즈는 동료들을 향해 말없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경위는 흥분으로 얼굴색이 완전히 변했다. 특유의 사투리가 난간을 두드리는 막대기처럼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세상에!" 그가 외쳤다. "의심할 여지가 없군요! 바커가 방금 직접 창문에 표시를 해둔 겁니다. 일반적인 신발 자국보다 훨씬 넓어요. 당신이 발볼이 넓은 신발이라고 했던 게 기억나는데, 이제야 설명이 되는군요.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속셈일까요, 홈즈 씨?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래, 대체 무슨 속셈일까?" 내 친구가 생각에 잠긴 듯 되물었다.

화이트 메이슨은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으며 통통한 두 손을 맞비볐다. “내가 말했잖나,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라고!” 그가 외쳤다. “정말이지, 기가 막힌 사건이야!”

제1부 제6장 서광

제6장 서광(曙光)

세 명의 형사가 조사해야 할 세부 사항이 워낙 많았기에, 나는 마을 여관에 있는 우리의 소박한 숙소로 홀로 돌아왔다. 하지만 숙소로 가기 전, 집 옆에 자리 잡은 기묘하고 고풍스러운 정원을 잠시 거닐기로 했다. 정원 둘레에는 아주 오래된 주목들이 기이한 문양으로 다듬어진 채 줄지어 서 있었다. 정원 안쪽에는 아름다운 잔디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해시계가 놓여 있었다. 정원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무척 평온하고 안락해서, 잔뜩 긴장해 있던 내 신경을 달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그토록 깊고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는,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그 어두운 서재의 형상을 잊을 수도, 혹은 그저 한바탕 기괴한 악몽처럼 떠올릴 수도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공기에 젖어 들며 주변을 천천히 거닐던 중, 기묘한 사건 하나가 발생했다. 그 일

은 나를 다시 그 비극적인 현장으로 끌어들였고, 내 마음속에 불길한 잔상을 남겼다.

앞서 말했듯이 정원에는 주목(yew trees)들이 둘러싸여 장식을 이루고 있었다. 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쪽으로 가면, 이 나무들은 빽빽하게 자라나 끊이지 않는 울타리를 형성했다. 이 울타리의 반대편에는 돌로 만든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집 쪽에서 다가오는 사람의 눈에는 전혀 띄지 않는 은밀한 곳이었다. 내가 그곳으로 다가갈수록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자의 낮은 음성이 들리면, 그에 화답하듯 여자의 웃음소리가 잔잔하게 물결치듯 이어졌다.

찰나의 순간, 나는 울타리 모퉁이를 돌아 나갔고, 존 더글러스 부인과 바커라는 남자가 내 기척을 알아채기 전에 그들을 발견했다. 그녀의 모습은 내게 충격을 주었다. 식당에 있을 때만 해도 그녀는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에서 슬픔의 기색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삶의 환희로 빛나고 있었고, 일행이 건넨 말에 즐거워하는 듯 얼굴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남자는 무릎 위에 팔뚝을 올린 채 두 손을 맞잡고 몸을 앞으로 기울여 앉아 있었다. 그의 대담하고 잘생긴 얼굴에는 화답하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하지만 내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그들은 찰나의 순간—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다시 엄숙한 가면을 썼다. 두 사람 사이에 서둘러 몇 마디 대화가 오갔고, 곧이어 바커가 일어나 내 쪽으로 다가왔다.

"실례합니다만," 그가 말했다. "제가 지금 왓슨 박사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게 맞습니까?"

나는 차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아마도 내 마음속에 일어난 충격이 그 태도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셜록 홈즈 씨와 워낙 친분이 두터우시니, 아마 당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잠시만 이쪽으로 오셔서 더글러스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나는 침울한 표정으로 그를 따라나섰다. 바닥에 쓰러져 산산조각이 난 듯했던 그 형상이 눈앞에 선하게 아른거렸다. 비극이 일어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의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가 한때 그의 것이었던 정원의 덤불 뒤에서 함께 웃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부인을 조심스럽게 맞이했다. 식당에서는 그녀의 슬픔에 동참하며 함께 애도했지만, 지금은 그녀의 간절한 시선을 외면한 채 무심한 눈길로 마주할 뿐이었다.

"제가 너무 냉정하고 무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까 봐 걱정되네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오."

"언젠가는 당신도 내 진가를 알아줄 날이 오겠지. 만약 당신이 조금이라도 깨닫기만 한다면——"

"왓슨 박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바커가 서둘러 말을 잘랐다. "박사 본인도 말했듯이, 이건 박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럼 이만 다시 산책을 나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왓슨 박사님." 여인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외쳤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박사님께서 확실하게 답해 주실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게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일이라서요. 박사님께서는 홈즈 씨와 경찰 사이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어떤 사건이 홈즈 씨에게 비밀리에 전달된다면, 그가 반드시 형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만 하나요?"

"네, 맞습니다." 바커가 간절한 기색으로 대답했다. "그자가 혼자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과 완전히 한패가 된 겁니까?"

"그런 문제를 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왓슨 박사님! 그 부분에 대해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희에게, 아니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 목소리에 순간적으로 마음이 움직여, 방금 전까지 그녀가 보여준 경박함은 까맣게 잊은 채 그저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홈즈 씨는 독립적인 조사관입니다." 내가 말했다. "그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움직이는 사람이지요. 그러면서도 같은 사건을 맡아 수사 중인 경찰들에게는 당연히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겁니다. 범인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라면 결

코 숨기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홈즈 씨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는 모자를 들어 경의를 표한 뒤 길을 떠났다. 그들은 여전히 울타리 너머에 앉아 있었다. 울타리 끝을 돌아가며 뒤를 돌아보니, 그들은 여전히 아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를 빤히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으로 보아, 방금 우리가 나눈 대화가 그들의 논쟁 주제임이 분명했다.

"그들이 믿고 털어놓은 비밀 따위는 알고 싶지 않네."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자 홈즈가 말했다. 그는 오후 내내 매너 하우스에서 동료 두 명과 협의를 하느라 시간을 보냈고, 오후 5시쯤 돌아왔다. 홈즈는 내가 미리 주문해 둔 애프터눈 티를 몹시 허겁지겁 먹어 치웠다.

"비밀은 필요 없네, 왓슨. 만약 공모나 살인 혐의로 체포되는 상황이라도 온다면, 그 비밀들이 아주 곤란한 짐이 될 테니까."

"결국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더할 나위 없이 유쾌하고 쾌활한 모습이었다. "여보게, 왓슨. 이 네 번째 달걀을 다 먹고 나면 자네에게 사건의 전말을 전부 들려주겠네. 우리가 사건을 완전히 파악했다는 건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지. 하지만 사라진 덤벨의 행방을 찾아내기만 하면—"

"덤벨이라니!"

"이런, 왓슨. 이 사건의 핵심이 사라진 덤벨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눈치채지 못한 건가요? 허허, 너무 낙담할 것 없어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맥 경위나 그 유능하다는 지역 의사조차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덤벨 하나라니, 왓슨! 덤벨을 딱 하나만 가진 운동선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몸의 한쪽만 발달해서 척추가 휘어질 위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왓슨. 정말이지 끔찍해요!"

그는 입안 가득 토스트를 물고 장난기 어린 눈을 반짝이며, 내가 지적 난제에 빠져 쩔쩔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가 저토록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만 보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예전에 그가 난제에 부딪혀 골머리를 앓던 날들이 생생히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때의 그는 음식 생각조차 잊은 채, 날카롭고 열정적인 얼굴이 지독한 정신 집중으로 인해 더욱 수척해지곤 했다. 마침내 그는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그러고는 오래된 마을 여관의 벽난로 옆 아늑한 자리(inglenook)에 앉아, 마치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는 사람처럼 사건에 대해 천천히, 그리고 두서없이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거짓말이야, 왓슨. 아주 거대하고, 뻔뻔하며, 대담하기까지 한 거짓말이라고!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마주한 것이 바로 그 거짓말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네. 바커가 말한 이야기 전체가 거짓말이야. 그런데 바커의 이야기는 더글러스 부인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지. 그렇다면 부인 또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네. 두 사람 모두 공모해

서 거짓을 말하고 있어. 자, 이제 문제는 아주 명확해졌네. 왜 거짓말을 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진실은 무엇인가? 왓슨, 우리 함께 노력해 보세. 이 거짓말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어 재구성해 보는 거야."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들의 이야기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서투른 꾸며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보십시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범인은 살인을 저지른 뒤 채 일 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일을 해내야 합니다. 죽은 이의 손가락에서 다른 반지 아래 깔려 있던 그 반지를 빼내고, 원래 있던 반지를 다시 끼워 넣어야 하죠. 범인이 굳이 그런 짓을 했을 리도 만무한데 말입니다. 게다가 그 기묘한 카드까지 피해자 옆에 놓아두어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왓슨, 자네는 아마 이렇게 반론할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자네의 판단력을 존중하기에, 자네가 정말로 그렇게 말할 거라 생각지는 않네. 범인이 남자를 죽이기 전에 이미 반지를 가져갔을 수도 있다는 말 말일세. 촛불이 켜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면, 두 사람 사이에 긴 대화가 오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지 않은가? 하지만 우리가 들은 존 더글러스의 용맹한 성품을 떠올려 보게. 그가 그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결혼반지를 순순히 내줄 만한 사람인가? 아니, 애초에 그가 반지를 내줄 가능성 자체가 있다고 보나? 아니네, 결코 아니야, 왓슨. 암살자는 램프를 켜둔 채 죽은 남자와 한동안 단둘이 있었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없네."

"하지만 총성이 분명한 사인인 것 같군요. 그렇다면 총은 우리가 들었다고 보고한 시간보다 훨씬 이전에 발사되었어야 합니다. 이런 사실에 착오가 생길 리는 없지요. 따라서 총성을 들었다는 두 사람, 즉 바커와 더글러스 여인이 의도적으로 공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창틀에 남은 혈흔조차 경찰에게 거짓 단서를 주기 위해 바커가 일부러 남겨둔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증명해 보인다면, 이 사건이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점을 당신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살인이 정확히 몇 시에 일어났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열 시 반까지는 하인들이 집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으니, 분명 그 이전은 아닐 겁니다. 열 시 사십오 분이 되자 식료품 저장실에 있던 에임즈를 제외한 모든 하인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후 당신이 떠난 뒤에 몇 가지 실험을 해보았는데, 문을 모두 닫아두면 맥도날드가 서재에서 내는 어떤 소음도 저장실에 있는 저에게까지는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가사도우미의 방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 방은 복도 끝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누군가 목소리를 크게 높였을 때 그 소리가 희미하게나마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총구를 아주 가까이 대고 발사했다면, 산탄총 소리는 어느 정도 둔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가 그리 크지는 않았겠지만, 정적에 잠긴 밤이라면 앨런 부인의 방까지 충분히 전달되었을 겁니다. 부인이 진술했듯 그녀가 귀가 다소 어둡긴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증언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기 30분 전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오기 30분 전이라면 10시 45분이었겠군요. 저는

부인이 들은 소리가 바로 총성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살인이 일어난 실제 시각이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바커와 더글러스 부인이 실제 살인범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총성을 듣고 그들이 아래층으로 내려온 10시 45분부터 벨을 눌러 하인들을 부른 11시 15분 사이, 그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왜 즉시 경보를 울려 알리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핵심 질문입니다. 이 의문에 답을 얻는다면, 우리는 분명 사건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확신합니다." 내가 말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분명히 무언가 약속된 것이 있을 겁니다. 남편이 살해당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농담을 나누며 웃고 있다니, 그녀는 분명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정확해. 그녀가 직접 설명한 내용만 보더라도,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했다고는 보기 어렵네. 왓슨,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여성을 전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삶의 경험을 통해 한 가지는 확실히 배웠지. 남편을 진심으로 아끼는 아내라면, 남편의 시신이 눈앞에 있는데 다른 남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곁을 떠나는 일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말이야. 만약 내가 결혼하게 된다면, 왓슨, 내 시신이 불과 몇 야드 거리에 놓여 있는데도 가사 도우미의 말에 휘둘려 자리를 뜨지 않을 만큼, 내 아내에게 깊은 애정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네. 이번 사건은 연출이 아주 서툴렀어. 아무리 경험 없는 수사관이라 할지라

도, 여인 특유의 통곡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점에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거든. 다른 정황은 차치하더라도,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내게는 미리 짜인 음모라는 확신이 들었네."

"그렇다면 바커와 더글러스 부인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확신하는 건가?"

"질문이 아주 거침없군, 왓슨."

홈즈가 파이프를 내게 흔들어 보이며 말했다.

"마치 총알처럼 나를 향해 날아오고 있어. 만약 자네가 더글러스 부인과 바커가 살인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으며, 이를 은폐하려고 공모하고 있다는 식으로 묻는다면, 나는 기꺼이 확답을 줄 수 있네. 분명 그럴 테니까. 하지만 자네가 던진 더 치명적인 가설은 그리 명확하지가 않아. 우선 우리 앞에 놓인 난관들이 무엇인지 잠시 짚어보세나."

"이 부부가 불륜이라는 죄악된 감정으로 맺어져 있으며,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남자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상당히 대담한 추측입니다. 하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아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전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더글러스 부부가 서로를 매우 아끼고 사랑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 사실이 아닐 겁니다." 정원에 있던 그 아름답고 미소 짓던 얼굴을 떠올리며 내가 말했다.

"글쎄요,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주 영악한 부부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모두를 속이고,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공모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마침 그 남편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 인물이고 말이죠."

"그들의 말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홈즈는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알겠네, 왓슨. 자네는 그들이 처음부터 했던 모든 말이 거짓말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있군. 자네 생각대로라면 숨겨진 위협도, 비밀 결사도, 공포의 계곡도, 맥섬바디 보스도,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았던 게 되지. 음, 아주 깔끔하고 대담한 일반화야. 그럼 그 가설이 어디까지 통하는지 한번 보세나.

그들은 범죄를 설명하기 위해 이 가설을 꾸며냈네. 그러고는 외부인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남기려고 공원에 이 자전거를 버려두어 가설에 힘을 실었지. 창틀에 묻은 얼룩도 같은 의도일 테고, 시신 위에 놓인 카드도 마찬가지네. 그 카드는 아마 집 안에서 미리 준비했을 테니까. 왓슨, 자네의 가설에는 모든 게 딱 들어맞네.

하지만 이제 가설의 틈새로 끼어들지 못하는, 아주 까다롭고 날카로운 문제들이 남았어. 왜 하필 수많은 무기 중에 총신을 잘라낸 산탄총을 썼으며, 그것도 미국제여야 했을까? 총소리가 들리면 누군가 달려올 텐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앨런 부인이 쾅 닫히는 문소리를 듣고 확인하러 나오지 않은 건 그저 순전히 운이 좋았을 뿐이네. 왓슨, 자네가 말하는 그 범인들은 대체 왜 이런 짓까지 저지른 건가?"

"솔직히 말해서, 나로서도 설명할 길이 없군."

"그건 그렇다 치고, 만약 어떤 여자가 정부와 공모해서 남편을 살해했다고 해보세. 그렇다면 그들이 남편이 죽은 뒤에 결혼반지를 대놓고 빼내는 식으로 죄를 광고하겠나? 왓슨, 자네가 보기엔 그게 과연 가능성 있는 일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전거를 밖에 숨겨두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그게 정말로 실효가 있었을까요? 아무리 둔한 탐정이라도 그 자전거를 보고는 '이건 뻔한 속임수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도망자가 탈출하기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물건이 바로 자전거일 테니까요."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군."

"하지만 인간의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의 조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정신을 수양하는 연습 삼아, 제가 생각한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상상이 진실을 낳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더글러스라는 남자의 삶에 죄스러운 비밀, 정말이지 수치스러운 비밀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비밀 때문에 외부에서 온 누군가가 그에게 복수를 하려 했고,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복수자는—솔직히 고백하자면 아직도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죽은 이의 결혼반지를 가져갔습니다. 이 원한 관계는 어쩌면 그의 첫 번째 결혼 생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일일 수도 있고, 그 때문에 반지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복수자가 도망치기 전, 바커와 더글러스 부인이 방에 도착했습니다. 암살자는 그들에게 만약 자신을 체포하려 들면 끔찍한 스캔들이 세상에 알려질 것이라고 설득했지요. 결국 그들은 암살자의 말에 넘어가 그를 그냥 보내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그들은 소리 없이 내릴 수 있는 다리를 내려준 뒤, 다시 들어 올렸을 겁니다. 암살자는 그 틈을 타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걸어서 도망치는 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안전하게 멀어질 때까지 들키지 않을 만한 곳에 자전거를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이지 않습니까?"

"글쎄요,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요." 나는 다소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왓슨,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네. 이번 사건은 분명 아주 기이한 일이야. 자, 그럼 우리가 가정한 사건을 계속 이어가 보세. 범인이 사라진 뒤, 그 부부는—반드시 유죄라는 뜻은 아니네—자신들이 아주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야. 자신들이 직접 범행을 저질렀거나 혹은 범행을 묵인했다는 의심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 말일세.

그들은 이 상황에 아주 서둘러, 그것도 다소 서투르게 대처했어. 도망자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보여주려고 바커의 피 묻은 슬리퍼를 창틀에 놓아둔 것이 바로 그 증거지. 그리고 총소리를 들은 사람은 분명 그들뿐이었을 테니, 사건이 발생하고 족히 30분은 지난 뒤에야 마치 방금 들은 것처럼 소란을 피우며 비명을 질렀을 걸세."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다는 겁니까?"

"만약 외부인이 개입한 것이라면, 그 흔적을 쫓아 붙잡을 수도 있겠지.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거야. 하지만 만약 외부인이 아니라면—글쎄, 과학의 힘은 아직 다 쓰이지 않았으니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그 서재에서 저녁 내내 혼자 시간을 좀 갖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군."

"혼자 보내는 저녁이라니!"

"곧 그곳으로 올라가 볼 생각이라네. 바커에 대해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아주 훌륭한 친구 에임스와는 이미 이야기가 끝났지. 그 방에 앉아 있다 보면 영감이 떠오를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나는 그 장소가 지닌 특유의 기운을 믿는 편이라네. 왜 그렇게 웃나, 왓슨 친구? 뭐, 두고 보면 알겠지. 그나저나, 자네 그 커다란 우산은 챙겨 왔나?"

"여기 있군."

"그럼,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우산을 좀 빌려 써야겠군."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형편없는 무기라니요! 만약 위험한 상황이 닥친다면…….”

"심각한 일은 아니네, 여보게 왓슨. 정말 큰 사건이었다면 자네에게 분명히 도움을 청했을 거야. 하지만 우산은 좀 가져가겠네. 지금은 턴브리지 웰스에서 돌아올 동료들을 기다리는 중이라네. 그곳에서 동료들은 그 자전거의 주인일 만한 사람을 찾는 데 한창 매달려 있거든."

맥도널드 경위와 화이트 메이슨이 조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문 뒤였다. 두 사람은 이번 조사가 큰 진전을 이루었다며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보게, 나도 외부인이 개입했을지 의심했던 건 사실이라네.” 맥도널드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걱정은 접어둬도 좋네. 자전거의 정체도 밝혀냈고 용의자의 인상착의도 확보했으니, 수사 진척이 아주 빨라졌어.”

“마치 종말의 시작처럼 들리는군요.” 홈즈가 말했다. “두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음, 우선 존 더글러스 씨가 턴브리지 웰스에 머물던 전날부터 무척 불안해 보였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가 어떤 위험을 직감한 곳도 바로 턴브리지 웰스였고요. 따라서 만약 누군가 자전거를 타고 건너왔다면, 그 출발지는 당연히 턴브리지 웰스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자전거를 챙겨서 근처 호텔들을 돌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글 커머셜 호텔의 지배인이 즉시 자전거를 알아봤더군요. 이 자전거는 이틀 전 방을 잡았던 하그레이브라는 남자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자전거와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그 남자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숙박 명부에 런던에서 왔다고 적었지만, 구체적인 주소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가방은 런던에서 만든 것이었고 내용물도 영국 제품이었지만, 정작 그 남자는 의심할 여지 없는 미국인이었습니다."

"허허, 이거 참." 홈즈가 즐거운 듯 말했다. "내가 친구와 앉아 이론이나 늘어놓고 있는 동안, 맥 씨는 정말 실질적인 성과를 내셨군요! 실무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홈즈 씨. 바로 그거예요." 경위가 만족스러운 듯 말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당신의 이론과 맞아떨어질 수도 있겠군요." 내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맥 씨, 결론부터 듣고 싶군요. 그 남자의 신원을 확인할 만한 단서는 전혀 없었습니까?"

남겨진 흔적이 너무나 적어서, 그는 자신의 신원을 철저히 숨기려 했다는 사실이 분명했다. 서류나 편지는 물론이고, 옷가지에 남은 표식조차 없었다. 침실 탁자 위에는 그 지역의 자전거 지도가 놓여 있었다. 그는 어제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자전거를 타고 호텔을 떠났으며, 우리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의 행방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그 점이 저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홈즈 씨." 화이트 메이슨이 말했다. "그자가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피하고 싶었다면, 다시 돌아와서 아무런 해가 없는 관광객인 척 호텔에 머물렀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그는 호텔 지배인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실종이 살인 사건과 연관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을 테지요."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하죠.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가 붙잡히지 않았으니, 그의 판단이 옳았다는 게 증명된 셈입니다. 하지만 그자의 인상착의는 어떻습니까?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맥도널드는 수첩을 확인하며 말했다.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그들이 그를 아주 자세히 관찰한 것 같지는 않지만, 문지기와 점원, 그리고 하녀 모두 이 내용이 거의 확실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키는 5피트 9인치 정도에 나이는 50세 안팎이며,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하고 콧수염은 회색빛을 띠고 있습니다. 코는 매부리코이며, 인상은 모두가 사납고 위압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글쎄요, 표정만 빼면 그건 거의 존 더글러스를 묘사한 것이나 다름없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는 쉰 살을 갓 넘겼고, 머리카락과 콧수염은 희끗희끗하며 키는 비슷하겠군요. 그 외에 다른 정보는 없었습니까?"

그는 리퍼 재킷이 달린 두툼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짧은 노란색 오버코트에 부드러운 캡 모자를 쓰고 있었다.

"산탄총은 어떻게 됐습니까?"

"길이는 2피트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의 여행 가방에 충분히 들어갈 크기였지요. 코트 안쪽에 넣고 다녔어도 전혀 문제없었을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이 전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홈즈 씨." 맥도널드가 말했다. "범인을 잡고 나면—제가 범인의 인상착의를 듣자마자 5분 안에 전선으로 보고를 돌려놓았으니 그 점은 안심하셔도 됩니다—그때는 상황을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만으로도 우리는 꽤 많은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이틀 전, 하그레이브라는 이름을 쓰는 미국인이 자전거와 여행 가방을 들고 턴브리지 웰스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아냈거든요. 그 가방 안에는 짧게 잘라낸 산탄총이 들어 있었습니다. 즉, 그는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치밀하게 움직인 겁니다. 어제 아침, 그는 산탄총을 코트 속에 숨긴 채 자전거를 타고 이곳으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그가 도착하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공원 정문에 도착하기 위해 반드시 마을을 거쳐야 하는 건 아니며, 도로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아주 많으니까요. 아마 그는 도착하자마자 자전거를 발견된 장소인 월계수 덤불 속에 숨겼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본인도 그곳에 숨어서 존 더글러스 씨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며 집을 지켜보고 있었겠지요. 실내에서 쓰기에는 산탄총이 좀 생소한 무기이긴 합니다만, 원래 그는 밖에서 사용할 계획이었을 겁니다. 밖에서라면 산탄총은 아주 확실한 이점이 있습니다. 빗나갈 리가 없고, 게다가 이

곳은 영국의 사냥꾼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 총소리가 워낙 흔해서 아무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요."

"모든 게 아주 명확하군요." 홈즈가 말했다.

"자, 더글러스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자전거를 세워두고 황혼이 깔릴 무렵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다리는 내려와 있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는 누군가와 마주치더라도 적당히 변명할 생각으로, 일단 모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마주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첫 번째 방으로 몰래 들어가 커튼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도개교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해자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11시 15분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더글러스 씨가 평소처럼 밤 순찰을 돌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계획대로 더글러스 씨를 쏘고 탈출했습니다. 그는 호텔 사람들이 자전거를 보고 자신을 추적할 단서로 삼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그곳에 버려둔 채, 미리 준비해 둔 다른 수단을 이용해 런던이나 안전한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홈즈 씨, 제 추리가 맞습니까?"

"자, 맥 씨. 지금까지 당신이 한 이야기는 아주 훌륭하고 명확합니다. 그게 당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의 전부겠지요. 하지만 내가 내린 결론은 다릅니다. 범행은 보고된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일어났습니다. 더글러스 부인과 바커는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공모한 관계고요. 두 사람은 살인범의 도주를 도왔거나, 적어도 범인이 도망치기 전에 방에 도

착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창문으로 도망쳤다는 증거를 조작했지요. 사실은 두 사람이 직접 다리를 내려주어 범인을 도주하게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것이 내가 파악한 사건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두 형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홈즈 씨,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미스터리 하나를 해결하자마자 또 다른 미스터리로 빠져드는 셈이군요." 런던의 경위가 말했다.

"어떤 면에서는 상황이 더 나쁩니다." 화이트 메이슨이 말을 덧붙였다. "그 부인은 평생 미국 땅을 밟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여인이 미국인 암살자를 숨겨줄 만큼 그와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홈즈가 말했다. "오늘 밤 제가 직접 조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마 우리가 힘을 합쳐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홈즈 씨,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아니, 아니네! 어둠과 왓슨 박사의 우산, 그거면 충분해. 내 요구는 아주 간단하다네. 그리고 충직한 에임스라면 분명 나를 위해 어떻게든 편의를 봐주겠지. 내 모든 생각은 결국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온다네. 왜 저토록 건장한 사내가 고작 덤벨 하나 같은 부자연스러운 도구로 몸을 단련하려 하는가 하는 점 말일세."

그날 밤 늦게야 홈즈가 홀로 나갔던 외출을 마치고 돌아왔다. 우리는 작은 시골 여관에서 제공하는 가장 좋은 방인 2인용 침대가 놓인 방

에서 잠을 청했다. 홈즈가 방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잠결에 겨우 눈을 떴을 때, 나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자, 홈즈," 내가 나직이 물었다. "뭐 좀 알아낸 게 있나?"

그는 손에 촛불을 든 채 내 곁에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더니 키가 크고 마른 형체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이보게, 왓슨." 그가 속삭였다. "자네는 미치광이와 한 방에서 잠을 자야 한다면 겁이 나겠나? 뇌가 연해져서 정신이 나간 사람, 즉 이성을 잃어버린 백치와 말일세."

"왓슨, 자네는 미치광이와 한 방에서 잠을 자야 한다면 겁이 날 것 같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대답했다.

"아, 다행이군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1부 제7장 해결

제7장 해결

다음 날 아침, 아침 식사를 마친 우리는 지역 경찰 경사가 머무는 작은 응접실에서 맥도널드 경위와 화이트 메이슨이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논의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들 앞 탁자 위에는 수많은 편지와 전보가 쌓여 있었는데, 두 사람은 이를 하나하나 주의 깊게 분류하며 기록하고 있었다. 그중 세 통은 이미 한쪽에 따로 모아둔 상태였다.

"그 잡기 힘든 자전거 탄 놈을 아직도 쫓고 있나?" 홈즈가 쾌활하게 물었다. "그 불한당에 대해 새로 들어온 소식은 없나?"

맥도널드는 쌓여 있는 편지 더미를 가리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현재 레스터, 노팅엄, 사우샘프턴, 더비, 이스트햄, 리치먼드, 그리고 그 외 열네 곳에서 목격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 이스트햄, 레스터, 리버풀 세 곳에서는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명

백한 증거가 발견되어 실제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온 나라가 노란 코트를 입은 도망자들로 가득 찬 모양입니다."

"이런!" 홈즈가 공감한다는 듯이 말했다. "맥 씨, 그리고 화이트 메이슨 씨, 두 분께 아주 간곡한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군요. 제가 이 사건을 맡을 때 분명히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설프게 증명된 이론을 가져와 두 분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대신 제 생각이 확실히 맞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스스로 아이디어를 다듬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제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두 분께 정당하게 임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아무런 이득도 없는 일에 두 분의 에너지를 단 한 순간이라도 낭비하게 두는 것은 정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 조언은 딱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포기하십시오."

맥도널드와 화이트 메이슨은 유명한 동료를 경악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경위님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경위가 외쳤다.

"당신의 사건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전거 탄 남자는 실존 인물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인상착의도 알고 있고, 그가 남긴 여행 가방과 자전거

도 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살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왜 그를 찾아내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자가 분명 어딘가에 있겠지요. 우리도 반드시 그를 잡아낼 겁니다. 하지만 이스트햄이나 리버풀에서 힘을 낭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군요. 분명 더 빠른 길로 결과를 얻어낼 방법이 있을 겁니다."

"무언가 숨기고 계시는군요. 홈즈 씨, 이건 좀 불공평한 처사 아닙니까?" 경위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맥 씨, 제 업무 방식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요. 하지만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습니다. 단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세부 사항이 있을 뿐입니다. 아주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이지요. 확인이 끝나면 바로 인사를 드리고 런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전부 맥 씨를 위해 아낌없이 내놓을 테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른 식으로 행동한다면 맥 씨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을 다뤄왔지만, 이토록 기이하고 흥미로운 사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홈즈 씨. 어젯밤 우리가 턴브리지 웰스에서 돌아왔을 때 당신을 만났을 때만 해도, 당신은 우리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그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보고 계신 겁니까?"

"글쎄요, 물으시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밤에 말씀드린 대로 매너 하우스에서 몇 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아, 그 질문에는 지금 당장 아주 막연한 대답밖에 해드릴 수가 없군요. 아, 참, 그 오래된 건물에 관한 짧고 명료하며 흥미로운 기록을 읽고 있었습니다. 동네 담배 가게에서 단돈 1페니면 살 수 있는 책이지요."

이때 홈즈는 조끼 주머니에서 작은 전단지 하나를 꺼냈다. 그 종이에는 오래된 저택을 투박하게 새겨 넣은 판화가 그려져 있었다.

"맥 씨, 주변을 둘러싼 역사의 숨결을 온전히 느끼며 수사를 진행하면 사건을 파헤치는 재미가 훨씬 더 커지는 법이라네. 그렇게 조급한 표정 짓지 말게나. 아무리 무미건조한 이야기처럼 들려도, 이런 설명만으로도 머릿속에는 과거의 풍경이 어느 정도 그려지기 마련이니까. 맛보기로 조금만 들려주지. '제임스 1세 재위 5년에 세워진 벌스턴 저택은 훨씬 더 오래된 건물이 있던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 해자가 둘러진 자코비언 양식의 저택 중 현존하는 가장 훌륭한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저택은——'"

"홈즈 씨, 지금 우리를 바보로 만들 작정이오!"

"이런, 맥 씨! 당신에게서 화를 내는 기색을 처음으로 읽는군요. 좋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니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1644년에 의회파 대령이 이곳을 점령했다는 기록이 있고, 내전 중에 찰스 국왕이 며칠 동안 이곳에 몸을 숨겼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게다가 조지 2세가 이곳을 방문했다

는 사실까지 알고 나면, 이 오래된 저택에 흥미로운 역사가 얽혀 있다는 점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점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홈즈 씨. 하지만 그건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냐고요. 맥 씨, 시야를 넓게 갖는 것은 우리 직업의 필수 요건 중 하나입니다. 여러 아이디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지식을 비껴가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일은 종종 놀라운 흥미를 불러일으키곤 하죠. 범죄를 감식하는 수준에 불과한 사람의 참견이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만 제가 당신보다는 나이도 좀 더 많고, 어쩌면 경험도 조금 더 많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점은 나도 기꺼이 인정하오." 탐정이 호탕하게 말했다. "당신 말이 결국 핵심을 찌른다는 건 인정하지만,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도 빙빙 돌아서 답답할 지경이라니까."

"자, 자, 과거 이야기는 이쯤 해두고 현재의 사실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어젯밤 저는 매너 하우스에 들렀습니다. 바커나 더글러스 부인을 만나지는 못했지요. 굳이 그분들을 방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부인께서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 아니라는 점과, 아주 훌륭한 저녁 식사를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제가 방문한 주된 목적은 친절한 에임스 씨를 뵙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와 즐겁게 담소를 나누었는데, 덕분에 다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서재에서 잠시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허락받기도 했습니다."

"뭐라고요! 고작 저걸 가지고요?" 내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듯 물었다.

"아니요, 아니요, 이제 모든 게 다 정리되었습니다. 듣기로는 맥 씨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더군요. 방은 평소와 다름없는 상태였고, 저는 그곳에서 아주 유익한 15분을 보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글쎄요, 그리 복잡한 일은 아닙니다. 사라진 덤벨을 찾고 있었을 뿐이죠. 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있어 그 덤벨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찾아냈습니다."

"어디입니까?"

"아, 드디어 미지의 영역에 다다랐군요.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알아낸 모든 것을 당신과 공유하겠다고 약속하죠."

"좋습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협조해 드리지요." 경위가 말했다. "하지만 사건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가 이 사건을 포기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맥 씨. 당신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조사하고 있는지 전혀 감도 잡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벌스턴 저택의 존 더글러스 씨 살인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그렇고말고요, 분명 그러하시겠지요.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간 그 정체 모를 신사를 쫓는 데 힘 빼지 마십시오. 장담컨대, 그 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이 내 말대로만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일러주겠소.”

“글쎄요, 당신의 그 기묘한 행동들 뒤에는 늘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당신이 조언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화이트 메이슨 씨는 어떻습니까?”

시골 경위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홈즈와 그의 수사 방식은 그에게 너무나 생소한 것이었다. "뭐, 경위님이 믿으신다면 저도 믿겠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훌륭하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렇다면 두 분 모두 기분 전환 삼아 경치 좋은 시골길을 산책해 보시길 권합니다. 듣기로는 벌스턴 능선에서 내려다보는 윌드 지역의 풍경이 아주 일품이라고 하더군요. 마침 적당한 여관이 있다면 점심 식사도 할 수 있을 테고요. 다만 제가 그쪽 지리를 잘 몰라서 괜찮은 곳을 추천해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피곤하긴 해도 무척 행복한 기분이 들 겁니다.”

“이건 농담 수준을 넘어섰어!” 맥도널드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분노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자, 자, 오늘 하루는 마음껏 즐기게나." 홈즈가 그의 어깨를 경쾌하게 두드리며 말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가도 좋네. 하지만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반드시 이곳으로 오게나. 맥씨."

"그제야 좀 제정신 같군요."

"모두 훌륭한 조언이었네. 하지만 내가 자네를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 주기만 한다면, 굳이 그 조언들을 다 따르라고 강요하지는 않겠네. 다만 이제 헤어지기 전에, 바커 씨에게 보낼 쪽지 하나만 써주게나."

"그래서요?"

"원하신다면 제가 불러 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친애하는 귀하께. 해자를 배수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경위가 말했다. "이미 조사를 마쳤거든요."

"이런, 이런! 제발 부탁이니 제가 요청하는 대로 좀 해주십시오."

"자, 계속해 보게."

"—조사 과정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미 조치를 취해 두었으니, 내일 아침 일찍 인부들이 도착할 겁니다. 흐름을 돌려 물길을 바꾸는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말도 안 돼!"

"—물길을 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상황을 설명해 두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 서명하십시오. 그리고 네 시쯤에 직접 가져다주세요. 그때 다시 이 방에서 만납시다. 그때까지는 각자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내도 좋습니다. 이번 조사는 확실히 일단락되었으니 안심해도 되니까요."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저녁이 어둑어둑 내려앉고 있었다. 홈즈의 태도는 매우 진지했고, 나는 호기심이 일었다. 반면 형사들은 눈에 띄게 비판적이고 짜증 섞인 기색이었다.

"자, 신사 여러분." 친구가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모든 사실을 하나하나 검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관찰한 내용들이 과연 제가 내린 결론을 뒷받침하는지,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주십시오. 날씨가 쌀쌀하고 이번 조사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니, 부디 가장 따뜻한 코트를 입고 나오시길 권합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는 저택 공원의 외곽을 따라 걸었다. 그러다 울타리 난간이 끊겨 틈이 생긴 곳에 다다랐다. 우리는 그 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가운데, 우리는 홈즈를 따라갔다. 이윽고 정문과 도개교가 거의 마주 보고 있는 관목림에 도착했다. 도개교는 내려져

있는 상태였다. 홈즈는 월계수 덤불 뒤로 몸을 낮게 웅크렸고, 우리 세 사람도 그를 따라 몸을 숨겼다.

"자,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맥도널드가 다소 거친 말투로 물었다.

"인내심을 갖고 마음을 다스리며, 최대한 조용히 있는 게 좋겠네." 홈즈가 대답했다.

"도대체 우리가 여기 왜 모인 겁니까? 제 생각엔 당신이 우리에게 좀 더 솔직하게 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홈즈가 웃음을 터뜨렸다.

"왓슨은 제가 현실 세계의 극작가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홈즈가 말했다. "제 안에는 예술가적 기질이 조금씩 솟구쳐 올라, 무대를 잘 꾸며 연출하고 싶다는 욕구를 끊임없이 자극하곤 하거든요. 맥 씨, 우리가 가끔은 결과를 더욱 빛나게 하려고 무대 장치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직업은 참으로 단조롭고 비루해질 겁니다. 무턱대고 비난을 퍼붓거나 어깨를 거칠게 툭 치는 식의 결말을 보고 대체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날카로운 추론, 교묘한 함정, 다가올 사건에 대한 영리한 예측, 그리고 대담한 이론이 옳았음을 증명해 내는 승리의 순간—이것이야말로 우리 직업의 자부심이자 존재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신은 상황이 주는 매력과 곧 시작될 추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율하고 계시죠. 만약 제가 열차 시간표처럼 딱딱하게 굴었다면, 그런

전율을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맥 씨,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십시오. 곧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겁니다."

"글쎄요, 우리 모두가 추위에 얼어 죽기 전에는 그놈의 자존심이니 정당성이니 하는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군요." 런던에서 온 경위가 체념 섞인 농담을 던지며 말했다.

우리 모두는 그 염원에 동참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우리가 지키는 밤은 길고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오래된 저택의 길고 침울한 얼굴 위로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졌다. 해자에서 올라오는 차갑고 축축한 악취는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고, 우리는 이가 맞부딪힐 정도로 몸을 떨었다. 대문 위에는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고, 비극이 시작된 서재에는 등불 하나가 고요하게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어둠 속에 잠겨 정적만이 감돌았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마침내 경위가 물었다. "그리고 우리가 대체 무엇을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나도 당신만큼이나 모르겠소." 홈즈가 다소 날카로운 어조로 대답했다. "범죄자들이 매번 철도 시간표처럼 움직임을 미리 알려준다면, 우리 모두에게 훨씬 편리하겠지만 말이오. 우리가 무엇을 지켜보고 있는가 하면— 글쎄, 바로 _저것_이오, 우리가 지켜보던 것이!"

그가 말을 이어가던 중, 서재의 밝은 황색 불빛이 누군가 앞을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가려졌다. 우리가 누워 있는 월계수 덤불은 창문 바로

맞은편에 있었고, 창문과의 거리도 백 피트가 채 되지 않았다. 잠시 후, 경첩이 끼익 소리를 내며 창문이 활짝 열렸다. 어둠 속을 내다보는 한 남자의 머리와 어깨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마치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몇 분 동안이나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밖을 살폈다. 그러더니 그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출렁이는 물결 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다. 그는 손에 든 무언가로 해자를 휘젓고 있는 듯했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낚시꾼이 물고기를 낚아 올리듯 무언가를 끌어당겼다. 열린 창문 사이로 그것이 끌려 들어오면서 밝은 빛을 가렸는데, 꽤 크고 둥근 물체였다.

"지금이야!" 홈즈가 외쳤다. "지금이라고!"

우리는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그의 뒤를 쫓았다. 그는 재빠르게 다리를 가로질러 달려가더니, 벨을 거칠게 눌러댔다. 문 너머에서 빗장을 푸는 거친 소리가 들리더니, 어안이 벙벙한 표정의 에임스가 문 앞에 나타났다. 홈즈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옆으로 밀쳐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뒤를 따라, 우리가 감시하던 그 남자가 머물던 방 안으로 급히 뛰어 들어갔다.

탁자 위의 석유등은 우리가 밖에서 보았던 그 불빛이었다. 우리가 안으로 들어서자, 세실 바커가 등불을 들고 우리 쪽으로 비추었다. 등불 빛이 그의 강인하고 결연한, 말끔하게 면도한 얼굴과 위협적인 눈빛을 환히 비추었다.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요?" 그가 외쳤다. "대체 무엇을 찾고 있는 거란 말이오?"

홈즈는 주위를 빠르게 훑어보더니, 책상 밑에 밀어 넣어 두었던 젖은 꾸러미로 달려들었다. 그 꾸러미는 끈으로 묶여 있었다.

“바커 씨, 우리가 찾던 게 바로 이겁니다. 방금 해자 바닥에서 건져 올린, 덤벨처럼 묵직한 무게가 실린 이 꾸러미 말입니다.”

바커는 경악한 표정으로 홈즈를 빤히 바라보았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아신 겁니까?" 그가 물었다.

“그저 제가 거기 두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거기 뒀잖아! 바로 당신이!”

“아마 ‘그곳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라고 말했어야 했군요.” 홈즈가 말했다. “맥도널드 경위님, 제가 덤벨 하나가 없다는 사실에 꽤 놀랐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그 부분을 짚어 드렸지요. 하지만 다른 사건들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경위님은 그 사실을 깊이 따져볼 여유가 없으셨을 겁니다. 만약 물 근처에서 무게를 잡는 물건이 사라졌다면, 무언가를 물속에 가라앉혔다고 추측하는 건 그리 억측도 아닙니다. 적어도 확인해 볼 가치는 있는 가설이었지요. 그래서 어젯밤, 방 안으로 들여보내 준 에임스의 도움을 받고 왓슨 박사의 우산 끝을 갈고리 삼아 써서, 물속에서 이 꾸러미를 건져 올려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가 그곳에 두었는지 증명해 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이면 해자가 마를 것이라고 공표하는 아주 명백한 수법을 써서 이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당연히 그 소식을

들은 범인은 어둠이 내리자마자 보따리를 되찾아 가려 들겠지요. 우리는 그 기회를 틈타 보따리를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 증언해 줄 목격자를 네 명이나 확보했습니다. 그러니 바커 씨, 이제 당신이 말씀하실 차례인 것 같군요."

셜록 홈즈는 흠뻑 젖은 보따리를 램프 옆 탁자 위에 내려놓고 묶여 있던 끈을 풀었다. 보따리 안에서 덤벨 하나를 꺼낸 그는 구석에 놓인 다른 덤벨 쪽으로 그것을 툭 던졌다. 이어서 그는 장화 한 켤레를 꺼냈다. 홈즈는 장화 앞코를 가리키며 말했다. "보시다시피 미국제군요." 그러고는 칼집에 담긴 길고 치명적인 칼 한 자루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옷가지 뭉치를 풀었는데, 거기에는 속옷 한 벌과 양말, 회색 트위드 양복, 그리고 짧은 노란색 외투가 들어 있었다.

"옷차림은 평범하군요." 홈즈가 말했다. "하지만 이 오버코트만은 예외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많거든요." 그는 코트를 빛 쪽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보시다시피 안주머니가 안감까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잘라낸 사냥용 총을 넉넉히 넣을 수 있도록 말이죠. 목 부분에는 재단사 라벨도 붙어 있습니다. '미국 버미사, 의류점 닐'이라고 적혀 있군요. 오늘 오후에 교구 목사님의 서재에서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덕분에 버미사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탄광 및 철광 지대 중 한 곳인 계곡 상류에 위치한 번창하는 작은 마을이라는 사실을 새로 알게 되었죠. 바커 씨, 당신이 존 더글러스 씨의 첫 번째 부인과 탄광 지대를 연관 지어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시신 곁에 있던 카드에 적힌 'V.V.'라는 글자가 버미사 계곡을 뜻한다고 추론해도 전혀 무리가 없겠지요. 혹은 살인마들을 배출하는 이 계곡이, 우리가 전해 들

었던 바로 그 '공포의 계곡'일지도 모르고요. 여기까지는 꽤 명확해 보입니다. 자, 이제 바커 씨, 제가 당신의 설명을 듣는 데 방해가 되는 것 같으니 이만 물러나지요."

위대한 탐정의 이야기를 듣는 세실 바커의 표정은 그 자체로 장관이었다. 분노와 경악, 당혹감과 망설임이 그의 얼굴 위로 차례차례 스쳐 지나갔다. 마침내 그는 약간은 냉소적인 조롱 뒤로 자신을 숨겼다.

"홈즈 씨, 아는 게 워낙 많으시니 우리에게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시는 게 좋겠군요." 그가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바커 씨, 제가 더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당신이 먼저 입을 여는 편이 훨씬 자연스러울 것 같군요."

"오,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입니까? 글쎄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뿐입니다. 만약 여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 비밀이 아니며, 저는 그 비밀을 발설할 사람이 아닙니다."

"바커 씨, 만약 그쪽이 그 길로 가시겠다면," 경위가 차분하게 말했다. "영장이 발부되어 당신을 구금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당신을 계속 감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라면 당신이 좋을 대로 마음껏 해보시지!" 바커가 반항적으로 내뱉었다.

그에게 있어 상황은 이미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 단단한 화강암 같은 얼굴만 보더라도, 그 어떤 가혹한 고문이나 압박도 그가 원

치 않는 답변을 억지로 끌어낼 수는 없으리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착 상태를 깨뜨린 것은 한 여인의 목소리였다. 반쯤 열린 문 뒤에서 숨죽여 듣고 있던 더글러스 부인이 방 안으로 들어선 것이다.

"지금은 이것으로 충분해, 세실." 그녀가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든, 당신은 할 만큼 했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셜록 홈즈가 엄숙하게 말했다. "부인, 저는 부인의 처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니 우리 관할 경찰의 상식적인 판단을 믿고, 경찰에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털어놓으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제 친구인 왓슨 박사를 통해 부인이 전해주신 단서를 제가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부인이 이 범죄에 직접 연루되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다만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으니, 존 더글러스 씨에게 직접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홈즈의 말에 더글러스 부인이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경위들과 나 역시 그 비명에 동조했을 것이다. 그 순간, 마치 벽에서 툭 튀어나온 듯한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나타났던 구석진 곳의 어둠을 헤치며 앞으로 걸어 나왔다. 더글러스 부인은 몸을 돌려 순식간에 그를 품에 안았다. 바커는 그가 내민 손을 덥석 맞잡았다.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야, 잭." 아내가 거듭 말했다. "분명히 이게 최선일 거야."

"그렇고말고요, 더글러스 씨." 셜록 홈즈가 말했다. "그게 최선의 방법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남자는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마주한 사람처럼 멍한 표정으로 눈을 깜빡이며 우리를 바라보았다. 눈에 띄는 얼굴이었다. 대담한 회색 눈동자에, 짧고 거칠게 다듬은 희끗희끗한 콧수염, 각지고 돌출된 턱, 그리고 유머러스한 느낌을 주는 입매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우리 모두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나를 깜짝 놀라게도 내 쪽으로 성큼 다가와 종이 뭉치를 건네주었다.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그가 말했다. 영국인 같지도, 미국인 같지도 않은 말투였지만,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듣기 좋은 목소리였다.

"당신이 이 무리의 역사를 기록하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왓슨 박사님, 당신은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제 마지막 달러를 걸고 장담하죠. 당신만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내십시오. 사실관계만 명확하다면 대중을 사로잡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쥐구멍 같은 곳에 이틀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겨우 얻어낸 햇빛을 붙잡아가며, 이 모든 일을 글로 옮기는 데 시간을 보냈지요. 당신과 당신의 독자들에게 이 기록을 기꺼이 바칩니다. 이것이 바로 '공포의 계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지나간 일입니다, 더글러스 씨." 셜록 홈즈가 차분하게 말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당신에게 벌어진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들려드리지요, 선생님." 더글러스가 말했다. "이야기하는 동안 담배를 좀 피워도 되겠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홈즈 씨. 제 기억이 맞다면 당신도 담배를 즐기시지요. 그렇다면 주머니에 담배를 넣은 채 이틀 동안 앉아 있으면서, 혹시라도 그 냄새 때문에 정체가 탄로 날까 봐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짐작하시겠군요." 그는 벽난로 선반에 몸을 기대며 홈즈가 건네준 시가를 빨아들였다. "홈즈 씨, 당신에 대한 이야기는 익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군요. 아, 그 서류 작업부터 마저 끝내시지요." 그는 내가 들고 있는 서류를 턱으로 가리켰다. "그 일을 마치고 나면, 제가 아주 신선한 사건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맥도널드 경위는 경악을 금치 못한 채 새로 나타난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가 소리쳤다.

"세상에, 이건 정말이지 저도 당황스럽군요! 만약 당신이 벌스턴 저택의 존 더글러스 씨라면,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조사해 온 죽음은 대체 누구의 것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겁니까? 마치 깜짝 상자에서 튀어나온 인형처럼 바닥에서 불쑥 솟아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맥 씨." 홈즈가 꾸짖는 듯 검지를 흔들며 말했다. "찰스 왕을 숨겨주었던 사건을 기록한 그 훌륭한 지역사를 읽어보지 않으셨나 보군요. 그 시절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은신처를 찾아내어 몸을 숨기곤 했

습니다. 한 번 사용된 은신처라면 언제든 다시 쓰일 수 있는 법이지요. 나는 우리가 이 지붕 아래에서 존 더글러스 씨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를 이런 식으로 골탕 먹인 겁니까, 홈즈 씨?" 경위가 분노를 참지 못하며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수색에 우리가 힘을 빼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대체 언제까지 이 상황을 방치할 작정이었습니까?"

"그럴 리가요, 맥 씨. 단 한 순간도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제 견해는 바로 어젯밤에야 정리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이 되어야 비로소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에, 당신과 동료분께 오늘 하루 휴가를 내라고 권한 것입니다. 제가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자에서 옷 한 벌을 발견했을 때, 저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시신은 존 더글러스 씨의 것이 결코 아니며, 턴브리지 웰스에서 온 자전거 여행자의 시신임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른 결론은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 더글러스 씨가 대체 어디에 있을지를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확률적으로 따져볼 때, 그는 아내와 친구의 묵인 아래 도망자에게 적합한 시설을 갖춘 어느 집에 몸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렇게 숨어 지내며, 마침내 완전히 탈출할 수 있을 만큼 상황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음, 정확히 짚어내셨군요." 더글러스가 찬성한다는 듯 말했다. "영국 법을 피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법이 저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이번 기회에 저를 쫓는 사냥개들을 완전히

따돌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상황이 와도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직접 판단하시겠지요. 경위님, 경고는 괜찮습니다. 저는 진실만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지는 않겠네. 여기 이 서류 뭉치에 다 들어있으니까 말이야." 그는 내 서류 뭉치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아주 기묘한 이야기일 걸세. 요점은 이렇네. 나를 증오할 정당한 이유를 가진 자들이 있고, 그들은 나를 잡을 수만 있다면 마지막 남은 한 달러까지 기꺼이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지.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는 한, 이 세상 어디에도 내가 안전할 곳은 없네. 그들은 시카고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나를 쫓아다녔고, 결국 미국 땅에서 나를 몰아냈지. 하지만 결혼을 하고 이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았을 때는, 내 남은 생은 평온할 줄로만 알았네."

"아내에게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소. 굳이 아내까지 이 일에 끌어들일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랬다가는 아내가 평생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거요. 늘 무슨 일이 터질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았겠지. 내가 여기저기 무심코 흘린 말 때문에 아내도 눈치를 채긴 했을 거라 생각하오. 하지만 어제 신사분들이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건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소. 아내는 자신이 아는 것을 모두 말했을 것이고, 여기 있는 바커도 마찬가지일 거요. 이 일이 벌어진 그날 밤에는 누군가에게 상황을 설명할 여유가 거의 없었으니까 말이오. 이제 아내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소. 진작 말해줬더라면 더 현명한

남편이 되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드는구려. 하지만 여보, 이건 너무나 가혹한 문제였소." 그는 잠시 아내의 손을 맞잡으며 덧붙였다. "나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오."

"자, 신사 여러분. 이 일들이 벌어지기 전날, 저는 턴브리지 웰스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길거리에서 어떤 남자를 언뜻 보았지요. 아주 잠깐 스치듯 본 것이었지만, 저는 이런 것을 포착하는 눈이 예리합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자는 제가 상대해 온 무리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적이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마치 굶주린 늑대가 카리부 사냥감을 쫓듯, 줄곧 저를 뒤쫓아온 자였으니까요. 저는 곧 문제가 터질 거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지요. 76년 무렵 미국에서는 제 운이 좋기로 소문이 자자했기에, 이번에도 혼자서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제 운이 여전히 제 편일 것이라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내내 나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공원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소. 차라리 잘된 일이었지. 만약 나갔더라면, 내가 총을 뽑기도 전에 그자가 가진 산탄총에 당했을 테니까 말이오. 다리를 들어 올린 뒤에는—저녁에 다리가 올라가 있으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곤 했소—나는 그 일을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소. 그자가 집 안으로 침입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지. 하지만 평소 습관대로 가운을 걸치고 방 안을 한 바퀴 돌던 중이었소.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위험을 직감했소. 인생에서 위험한 순간을 겪어본 사람이라면—나 역시 남들보다 훨씬 많은 고비를 넘겼으니—위험이 닥쳤을 때 붉은 깃

발을 흔드는 것 같은 육감이 생기기 마련이오. 왜 그런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위험 신호가 느껴졌소.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창가 커튼 아래로 장화 한 짝이 보였고, 나는 곧바로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었소."

"제 손에는 촛불 하나뿐이었지만, 열린 문 사이로 복도 등불이 들어와 빛이 꽤 밝았습니다. 저는 촛불을 내려놓고 벽난로 선반 위에 두었던 망치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자가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칼날이 번뜩이는 게 보였고, 저는 망치를 휘둘러 그를 내리쳤습니다. 어딘가 맞았는지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챙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장어처럼 재빠르게 탁자 뒤로 몸을 피하더니, 곧바로 코트 아래에서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공이치기를 당기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가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제가 먼저 총을 낚아챘습니다. 저는 총구를 움켜쥐었고, 우리는 한 분 정도 넘게 총을 차지하려고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순간은 손을 놓치는 쪽이 죽는, 목숨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손아귀의 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깐 동안, 너무 오래 총의 개머리판이 아래쪽을 향하고 말았죠. 어쩌면 제가 방아쇠를 당겼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 둘 사이에서 총이 덜컥하며 발사되었을 수도 있고요. 어찌 됐든 그는 산탄총의 두 총구에 얼굴을 정면으로 얻어맞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테드 볼드윈의 처참한 잔해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마을에서 그를 본 적이 있었고, 그가 저를 향해 달려들 때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그의 어머니라면 차마

아들이라고 알아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저도 거친 일에는 익숙한 사람이지만, 그 광경을 보고는 정말이지 구역질이 났습니다."

"바커가 급히 내려올 때, 나는 탁자 옆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기에 나는 문으로 달려가 아내를 막아 세웠습니다. 여자가 보기에는 너무 참혹한 광경이었으니까요. 곧 갈 테니 기다리라고 아내를 달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커에게 한두 마디를 건넸는데, 그는 눈빛만으로 내 말을 전부 알아들었습니다. 우리는 나머지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은 오직 우리 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은 너무나도 명석해서 눈이 멀 지경이었죠. 남자의 소매가 살짝 올라가 있었는데, 그 팔뚝에 비밀 결사의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더글러스라고 알고 있었던 그 남자는 자신의 코트 소매와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러자 그 안에서 원 안에 갈색 삼각형이 그려진 문양이 나타났다. 그것은 우리가 죽은 이의 몸에서 보았던 문양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바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눈에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키와 머리카락, 체격까지 저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불쌍한 사람, 그 얼굴만 보고는 그가 누구인지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이 옷 한 벌을 가지고 내려왔고, 15분 만에 바커와 함께 제 가운을 그에게 입혔습니다. 그렇게 그는 당신이 발견했

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소지품을 전부 꾸러미로 묶은 뒤,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무게추를 매달아 창문 밖으로 던져 버렸습니다. 그가 제 몸 위에 올려두려 했던 카드는 그의 몸 바로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 반지들은 모두 그의 손가락에 끼워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반지만큼은," 그는 근육질의 손을 내밀며 말을 이었다. "보시다시피 제 손가락에 너무 꽉 끼어 있었습니다. 결혼한 날 이후로 한 번도 뺀 적이 없어서, 빼내려면 줄로 갈아내야 할 정도였지요. 사실 이 반지를 떼어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설령 그러고 싶었다 해도 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반지 문제는 그냥 그대로 두기로 했지요. 대신 저는 반창고를 조금 가져와, 지금 제가 직접 붙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붙여두었습니다. 홈즈 씨, 당신은 아무리 명석해도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셨군요. 만약 당신이 그 반창고를 떼어보았다면, 그 아래에 상처 같은 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잠시 몸을 숨긴 뒤, 제 '미망인'이 합류할 수 있는 곳으로 도망칠 수만 있다면, 우리 부부는 남은 생을 마침내 평온하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그 악마들은 저를 가만두지 않겠지요. 하지만 신문에서 볼드윈이 자기가 노리던 자를 처치했다는 기사를 본다면, 제 모든 고난도 끝이 날 겁니다. 바커와 제 아내에게 이 모든 사정을 설명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고, 저를 도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이 은신처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에임스도 알고 있었지만, 에임스는 이 장소

가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 하더군요. 저는 은신처로 몸을 숨겼고, 그다음 일은 바커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창틀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범인이 어떻게 도망쳤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아주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다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 방법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있는 힘껏 벨을 울렸습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신사 여러분, 이제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신께 맹세코 진실만을, 그것도 숨김없이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제가 영국의 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연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느냐는 것입니다!"

침묵이 흐르던 중, 셜록 홈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영국 법은 대체로 정의롭습니다. 더글러스 씨, 법은 당신이 지은 죄만큼만 벌을 내릴 테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자가 당신이 여기 산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당신의 집에 들어가는 방법이나, 당신을 잡기 위해 어디에 숨어야 하는지는 또 어떻게 알아낸 겁니까?"

"전 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홈즈의 얼굴은 매우 창백하고 엄숙했다.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것 같군요." 홈즈가 말했다. "영국의 법보다, 혹은 미국에서 온 적들보다 더 끔찍한 위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글러스 씨, 당신 앞에 닥칠 불행이 눈에 보이는 듯하군요. 내 조언을 명심하고,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자, 이제 인내심 깊은 독자 여러분, 잠시 저와 함께 길을 떠나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벌스턴의 서섹스 저택에서도, 그리고 존 더글러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던 사내의 기이한 이야기로 끝맺었던 그 파란만장한 사건의 해에서도 멀리 벗어나 보려 합니다.

우리는 시간상으로는 약 20년 전으로, 공간상으로는 서쪽으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매우 기이하고도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기이하고 끔찍해서,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이 순간에도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정도일 것입니다.

한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는 것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제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멀리 떨어진 과거의 사건들을 상세히 들려드리고 여러분이 그 수수께끼를 풀고 나면, 우리는 다시 베이커가의 그 방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경이로운 사건들이 그러했듯, 이 이야기 또한 그곳에서 마침표를 찍게 될 테니까요.

제2부 제1장 그 사내

제2부 스카우러스

제1장 그 사내

1875년 2월 4일이었다. 겨울은 혹독했고, 길머턴 산맥의 협곡에는 눈이 깊게 쌓여 있었다. 하지만 증기 쟁기 덕분에 철도는 운행을 이어 갈 수 있었다. 석탄 광산과 제철소가 줄지어 늘어선 마을들을 잇는 저녁 열차가, 평원의 스태그빌에서 버미사 계곡의 중심지인 버미사 마을로 향하는 가파른 경사로를 따라 느릿느릿 신음하듯 올라가고 있었다. 이 지점을 지나면 철길은 바턴스 크로싱과 헬름데일을 거쳐, 농업 중심지인 머턴 카운티를 향해 아래로 굽어 내려간다. 단선 철도였으나, 곳곳에 마련된 수많은 측선에는 석탄과 철광석을 가득 실은 화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그 모습은 이 황량한 미국 땅의 구석진 곳에 거친 사람들이 몰려들고 활기찬 삶이 싹트게 만든, 숨겨진 부의 존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참으로 황량한 풍경이었다! 이 땅을 처음 가로질렀던 개척자라면, 아무리 아름다운 초원과 푸른 목초지가 펼쳐져 있다 한들 검은 암벽과 뒤엉킨 숲이 가득한 이 음울한 땅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으리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산기슭을 따라 늘어선 어둡고 빽빽한 숲 위로는, 눈 덮인 높은 봉우리와 험준한 바위산이 양옆으로 우뚝 솟아 있었다. 그 사이로 길고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험한 계곡이 중심을 가로질렀다. 작은 열차는 그 계곡을 따라 느릿느릿 기어 올라가고 있었다.

맨 앞쪽 객차에는 막 오일 램프에 불이 들어왔다. 스무 명에서 서른 명쯤 되는 승객이 앉아 있는 길고 텅 빈 객차였다. 승객 대부분은 계곡 아래쪽에서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노동자들이었다. 그 중 적어도 열두 명은 얼굴에 검댕이 가득 묻어 있었고, 손에는 안전등을 들고 있어 광부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광부들은 한데 모여 앉아 담배를 피우며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면서도 가끔은 객차 맞은편에 앉은 두 남자를 힐끗거렸다. 제복과 배지를 보니 경찰이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노동자 계층의 여성 몇 명과, 마을의 작은 상점 주인일지도 모를 여행객 한두 명으로 채워져 있었다. 구석에 홀로 앉아 있는 젊은이 한 명을 제외하면 말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 청년이다. 그를 자세히 살펴보라.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니까.

그는 안색이 생기 있고 체격은 보통인 젊은이로, 짐작건대 서른 살을 갓 넘긴 듯 보였다. 안경 너머로 주변 사람들을 살필 때면, 크고 영민하며 유머러스한 회색 눈동자가 때때로 호기심 어린 빛을 띠며 반짝였다. 그는 사교적이고 어쩌면 단순한 성격의 소유자로,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려 애쓰는 사람이라는 점이 한눈에 들어왔다. 누구라도 그를 보자마자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말수가 많으며, 재치 있고 미소가 밝은 사람이라고 단번에 알아챌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를 좀 더 면밀히 관찰한다면, 굳게 다문 입술과 단호한 턱선에서 묘한 기운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가 겉보기와는 다른 깊은 내면을 지녔음을 암시하며, 이 유쾌한 갈색 머리의 젊은 아일랜드인이 어느 사회에 발을 들이든 그곳에 선영향이든 악영향이든 분명한 흔적을 남길 인물임을 경고하고 있었다.

여행객은 근처에 있는 광부에게 한두 번 조심스레 말을 건네보았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짧고 퉁명스러운 대답뿐이었다. 결국 그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그러고는 창밖으로 멀어져 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결코 유쾌한 풍경은 아니었다. 점점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언덕 사면을 따라 늘어선 용광로들이 붉은 빛을 맥동하듯 내뿜고 있었다. 양옆으로는 거대한 슬래그 더미와 재더미가 산처럼 솟아 있었고, 그 위로 탄광의 높은 수직갱도들이 위압적으로 솟아올랐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기 시작한 초라한 목조 주택들이 여기저기 옹기종기 모여 흩어져 있었으며, 기차가 자주 멈춰 서는 역 주변은 거무스름한 피부를 가진 주민들로 북적였다.

버미사 지역의 철강과 석탄 계곡은 한가로운 여가를 즐기거나 교양을 쌓으려는 이들이 찾는 곳이 아니었다. 그곳 어디를 가든 삶의 가장 거칠고 치열한 투쟁이 엄연히 존재했다. 험한 노동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 일을 해내는 이들 또한 거칠고 강인한 노동자들이었다.

젊은 여행객은 혐오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이 황량한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 표정에는 이 광경이 그에게 생경하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이따금 주머니에서 두툼한 편지 한 통을 꺼내 읽으며, 그 여백에 무언가를 휘갈겨 적기도 했다. 그러다 한 번은 허리춤 뒤쪽에서 무언가를 꺼내 놓았는데, 그토록 온순해 보이는 남자가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예상치 못한 물건이었다. 그것은 아주 커다란 해군용 리볼버였다. 그가 총을 빛에 비스듬히 비추자, 약실 안 구리 탄피의 테두리가 번뜩였다. 총은 장전이 가득 된 상태였다. 그는 재빨리 총을 비밀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었지만, 옆 벤치에 앉아 있던 한 노동자가 그 모습을 이미 목격한 뒤였다.

"여어, 친구!" 그가 말했다. "준비가 아주 단단히 된 모양이군."

젊은이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그렇습니다." 그가 말했다. "제가 살던 곳에서는 가끔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곳이 대체 어디입니까?"

"마지막으로 있던 곳은 시카고입니다."

"그럼 이 근방에선 낯선 분이십니까?"

"예."

"여기서도 필요할지 모르니 챙겨 두게나." 일꾼이 말했다.

"아, 그렇습니까?" 청년은 흥미롭다는 듯 반응했다.

"이 근처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들은 소식은 없으십니까?"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아니, 난 이 근방에 그런 게 널려 있는 줄 알았지. 금방 듣게 될 거야. 그런데 여긴 어쩐 일로 오셨나?"

"의욕이 넘치는 사람에게는 일거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노조원인가?"

"물론입니다."

"그럼 일자리를 구하게 되겠군요. 혹시 아는 친구라도 있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저명한 자유 시민 단체의 일원입니다. 어느 마을에나 지부는 있기 마련이지요. 지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동행에게 기묘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객차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광부들은 여전히 자기들끼리 무언가 속닥거리고 있었고, 두 명의 경찰관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는 젊은 여행객에게 다가가 그 옆에 바짝 붙어 앉더니, 손을 내밀었다.

"거기 두게." 그가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 악수가 오갔다.

"말씀하신 게 사실인 것 같군요." 인부가 말했다. "하지만 확실히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는 오른손을 들어 오른쪽 눈썹을 짚었다. 그러자 여행자도 즉시 왼손을 들어 왼쪽 눈썹을 짚었다.

"어두운 밤은 불쾌한 법이지요." 일꾼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낯선 이들이 길을 다니기에는 말이죠." 상대방이 대답했다.

"그거면 충분하군. 나는 버미사 계곡 341번 지부의 스캔런 형제라네. 이 근처에서 자네를 만나니 반갑구먼."

"고맙습니다. 저는 시카고 제29지부의 존 맥머도 형제입니다. 보디 마스터는 J.H. 스콧입니다. 이렇게 일찍 형제님을 만나게 되다니 운이 좋군요."

"글쎄, 우리 회원은 아주 많다네. 미국 어디를 가도 이곳 버미사 계곡만큼 우리 조직이 번창한 곳은 없을 거야. 하지만 자네 같은 젊은이가 더 필요하긴 하지. 시카고에서 그렇게 혈기 왕성한 노동조합원이 일거리를 못 찾는다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

"할 일은 아주 많더군요." 맥머도가 말했다.

"그렇다면 왜 떠나신 겁니까?"

맥머도는 경찰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면 기뻐할 겁니다." 그가 말했다.

스캔런이 안타까운 듯 신음 섞인 소리를 냈다. "곤경에 처한 건가?" 그가 속삭이듯 물었다.

"아주 깊이요."

"교도소에 갈 만한 일인가?"

"그 외 나머지는 다 그렇습니다."

"설마 살인은 아니겠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엔 아직 이릅니다." 맥머도가 말했다. 마치 의도치 않게 너무 많은 말을 내뱉어 버린 사람처럼 당황한 기색이었다. "시카고를 떠난 데에는 나만의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지요. 대체 당신은 누구길래 감히 그런 걸 묻는 겁니까?" 안경 너머로 그의 회색 눈동자가 돌연 위험한 분노로 번뜩였다.

"괜찮아, 친구.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말라고. 자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든, 동료들은 자네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는 길인가?"

"버미사."

"이 노선에서 벌써 세 번째 정류장이군요. 어디에 머무실 예정입니까?"

맥머도가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어둑한 오일 램프 가까이 가져갔다. "여기 주소가 있습니다. 셰리던 가의 제이콥 셰프터네 집입니다. 시카고에서 알던 사람이 추천해 준 하숙집이죠."

"글쎄요, 저도 잘 모릅니다. 버미사는 제 구역이 아니거든요. 저는 홉슨 패치에 살고 있고, 지금 우리가 머무는 곳도 여기입니다. 하지만 헤어지기 전에 조언 하나만 해 드리지요. 만약 버미사에서 곤경에 처하게 된다면, 곧장 유니언 하우스로 가서 보스 맥긴티를 찾아가십시오. 그는 버미사 로지의 보디마스터입니다. 블랙 잭 맥긴티가 허락하지 않는 한, 이 근방에서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으니까요. 그럼 이만,

친구! 조만간 로지에서 만날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내 말 꼭 명심하십시오. 어려움에 처하면 반드시 보스 맥긴티를 찾아가야 합니다."

스캔랜이 내려가자, 맥머도는 다시금 생각에 잠겼다. 어느덧 밤이 찾아왔고, 곳곳에 설치된 용광로에서는 불길이 어둠 속에서 거세게 타오르며 솟구치고 있었다. 섬뜩한 불빛을 배경으로 검은 형체들이 끊임없이 움직였다. 그들은 윈치나 윈들러스를 돌리며 몸을 굽히고 힘을 썼으며, 때로는 비틀고 몸을 뒤틀기도 했다. 그 움직임은 마치 영원히 반복되는 금속성 소음과 굉음의 리듬에 맞춘 듯했다.

"지옥도 분명 저런 모습이겠군." 누군가 말했다.

맥머도가 몸을 돌렸을 때, 경찰관 중 한 명이 자리에서 뒤척이며 불타는 듯한 황야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건 그렇고," 다른 경찰관이 말을 이었다. "지옥이라는 게 정말 그런 곳일지도 모르겠군. 만약 저 아래에 우리가 이름조차 대지 못할 악마들이 더 살고 있다면, 그건 내 예상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이야. 보아하니 젊은 친구는 이 근방이 처음인가 보군?"

"글쎄, 내가 그렇다면 어쩔 건가?" 맥머도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대꾸했다.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은 딱 하나뿐입니다. 친구를 고를 때 부디 신중하시라는 겁니다. 저라면 마이크 스캔런이나 그 일당과는 아예 발도 들이지 않겠습니다."

"내 친구가 누구든 그게 너희와 무슨 상관이야!"

맥머도가 포효했다. 마차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싸움이 일어난 쪽으로 고개를 돌릴 만큼 큰 소리였다.

"내가 너희한테 조언이라도 구했나? 아니면 내가 조언 없이는 발걸음 하나 못 떼는 얼간이로 보여? 입은 누가 말을 걸 때만 여는 거다. 신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데, 상대가 나라면 너희는 내가 말 걸기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거다!"

그는 얼굴을 들이밀며 으르렁거리는 개처럼 순찰대원들을 향해 이를 드러내고 웃어 보였다.

덩치 크고 성격 좋은 두 경찰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호의를 담아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예상외로 격렬하게 거부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악의는 없습니다, 낯선 분." 누군가 말했다. "당신이 스스로 밝힌 대로 이곳이 처음인 것 같아, 당신을 위해 충고 차원에서 한 말입니다."

"여긴 처음이지만, 당신 같은 부류는 예전부터 잘 알고 있어!" 맥머도가 차가운 분노를 터뜨리며 외쳤다. "어딜 가나 다 똑같군. 아무도 묻지도 않은 참견을 억지로 끼워 넣다니!"

"머지않아 당신을 더 자주 보게 될지도 모르겠군요." 순찰대원 중 한 명이 싱긋 웃으며 말했다. "내가 보기엔 아주 제대로 뽑힌 인재 같으니 말입니다."

"나도 같은 생각을 하던 참이었네." 상대방이 말했다. "아마 우리, 다시 만나게 될 것 같군."

"난 당신이 하나도 안 무서워! 착각하지 마!" 맥머도가 소리쳤다. "내 이름은 잭 맥머도다. 똑똑히 봐둬! 나를 찾고 싶으면 버미사 셰리던가에 있는 제이콥 셰프터네 집으로 가라고. 내가 어디 숨기라도 했나? 낮이든 밤이든 난 당신 같은 놈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할 배짱이 있어. 절대 오해하지 마!"

새로 온 이가 보여준 용기 있는 태도에 광부들은 동정어린 눈빛과 감탄 섞인 웅성거림을 보냈다. 반면 두 경찰관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다시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몇 분 뒤, 열차가 조명이 어둑한 역에 들어섰다. 버미사는 이 노선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기에, 열차에서 내린 승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역 안은 금세 한산해졌다. 맥머도가 가죽 가방을 집어 들고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딛으려던 찰나, 광부 중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세상에, 형씨! 경찰들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구만!" 그가 경외심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대단한 구경이었소. 내가 짐

을 들어다 줄 테니 가는 길을 안내하리다. 마침 내 오두막으로 가는 길에 샤프터네 집을 지나가거든 말이오."

광산 노동자들이 승강장을 지나가며 다정하게 "안녕히 가시오"라고 인사를 건넸다. 맥머도가 그곳에 발을 들이기도 전이었지만, 이 거친 사내는 이미 버미사 계곡의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다.

시골은 공포의 공간이었지만, 마을은 그보다 훨씬 더 우울한 곳이었다. 길게 뻗은 계곡 아래로는 거대한 불길과 흩날리는 연기 구름이 드리워져 있어, 적어도 그 안에는 특유의 음산한 웅장함이 있었다. 인간의 힘과 노동은 거대한 채굴 현장 옆으로 쌓아 올린 언덕들 속에 그 흔적을 고스란히 남기고 있었다. 그러나 마을은 그저 비루하고 추잡한 풍경이 끝없이 펼쳐진 듯한 느낌을 주었다. 넓은 거리는 오가는 차량 때문에 진흙 섞인 눈이 엉망으로 뒤섞여 끔찍한 고랑을 만들고 있었다. 보도는 좁고 울퉁불퉁했다. 곳곳에 세워진 가스등은 거리에 늘어선 목조 주택들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었을 뿐인데, 길을 향해 돌출된 베란다마다 집들은 손질이 되지 않아 너저분하고 더러웠다.

마을 중심부에 다다르자, 환하게 불을 밝힌 상점들이 줄지어 나타나며 풍경이 밝아졌다. 그보다 더 눈길을 끈 것은 술집과 도박장들이 모여 있는 거리였다. 광부들은 그곳에서 고되게 일해 번, 꽤 넉넉한 임금을 쏟아붓고 있었다.

"저기가 유니언 하우스입니다." 가이드가 거의 호텔이라 불러도 손색없을 만큼 당당하게 서 있는 살룬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잭 맥긴티가 그곳의 우두머리죠."

"그는 어떤 사람인가?" 맥머도가 물었다.

"뭐라고요! '보스'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단 말입니까?"

"제가 이 근방 사정에는 전혀 모르는 뜨내기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제가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글쎄요, 그의 이름이라면 전국적으로 아주 잘 알려진 줄 알았습니다. 신문에도 꽤 자주 실렸으니까요."

"무엇 때문에 말입니까?"

"글쎄요." 광부는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다. "그 일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무슨 사건 말입니까?"

"세상에, 선생님!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정말 별난 분이시군요. 이 근방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라곤 오직 스카우러스 놈들의 이야기뿐입니다."

"아, 시카고에서 스카우러스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 것 같군요. 살인 집단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쉿, 제발 조심 좀 하시오!" 광부가 깜짝 놀라 멈춰 서며 외쳤다. 그는 경악한 눈으로 동료를 바라보았다. "이보시오, 길거리에서 그렇게 떠들고 다니다간 이 근방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할 거요. 이보다 가벼운 일로도 목숨을 잃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오."

"글쎄요, 그들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읽은 내용이 전부예요."

"그렇다고 당신이 진실을 읽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남자는 말을 하며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마치 어둠 속에 무언가 위험한 것이 숨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림자 속을 유심히 살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라면, 신께서 아시겠지만 이 마을에는 넘쳐나는 살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낯선 이여, 그 살인과 잭 맥긴티의 이름을 결부시켜 입에 올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속삭임 하나조차 결국 그에게 흘러 들어가니까요. 그는 결코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자, 당신이 찾는 집은 저기입니다. 길가에서 뒤로 물러나 있는 저 집 말입니다. 저 집은 제이콥 셰프터라는 노인이 운영하는데, 이 마을에서 그만큼 정직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고맙소." 맥머도가 말했다. 그는 새로 알게 된 이와 악수를 나눈 뒤, 손에 짐가방을 들고 묵직한 발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올라간 그는 현관문 앞에서 문을 힘차게 두드렸다.

문을 연 사람은 맥머도가 예상했던 인물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문 뒤에 서 있던 사람은 젊고 유난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금발에 하얀 피부를 가진 전형적인 독일계 여인이었는데, 그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특히 그녀의 아름답고 검은 눈동자는 묘한 대조를 이루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놀라움과 기분 좋은 당혹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낯선 이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창백했던 그녀의 얼굴에는 발그레한 홍조가 피어올랐다.

열린 문틈으로 쏟아지는 밝은 빛을 등지고 선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맥머도는 살면서 이토록 아름다운 광경은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주변의 지저분하고 음울한 풍경과 그녀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었기에 그 매력은 더욱 강렬했다. 광산의 검은 폐기물 더미 위에서 이름 모를 보랏빛 꽃 한 송이가 피어난 것을 보았을 때만큼이나 경이로운 광경이었다. 맥머도는 그녀의 모습에 완전히 넋을 잃은 채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보았고, 정적을 먼저 깨뜨린 것은 그녀였다.

"아버님인 줄 알았어요." 그녀가 독일 억양이 섞인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을 뵈러 오셨나요? 지금 시내에 나가 계세요. 곧 돌아오실 거예요."

맥머도는 그녀를 경탄 어린 시선으로 계속해서 바라보았다. 압도적인 기세로 다가온 이 낯선 방문객 앞에서, 그녀는 결국 당혹감을 이기지 못하고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아닙니다, 아가씨."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분을 서둘러 만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숙소를 구하는 데 이 집을 추천받았을 뿐입니다. 저와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정말 그렇군요."

"결단이 참 빠르시네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눈먼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그만큼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상대방이 대답했다.

그녀는 칭찬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어서 들어오세요, 손님." 그녀가 말했다. "저는 에티 셰프터라고 해요. 셰프터 씨의 딸이죠. 어머

니는 돌아가셔서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앞방 난로 옆에 앉아서 기다리세요. 아, 마침 오시네요! 아버지와 바로 이야기를 나누시면 되겠어요."

덩치가 크고 나이 지긋한 남자가 길을 따라 터벅터벅 걸어 올라왔다. 맥머도는 몇 마디 말로 용건을 설명했다. 머피라는 이름의 남자가 시카고에 있는 주소를 알려주었다는 것이었다. 머피 역시 다른 누군가에게 그 주소를 받았다고 했다. 노인 셰프터는 흔쾌히 응했다. 낯선 이는 조건에 대해 군더더기 없이 행동했다. 그는 모든 조건을 즉시 수락했으며, 겉보기에는 돈이 꽤 넉넉해 보였다. 일주일에 7달러를 선불로 내는 조건으로, 그는 숙식할 곳을 제공받기로 했다.

그리하여 스스로 법을 어긴 도망자임을 자처한 맥머도는 셰프터 가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머나먼 이국땅에서 종결될, 길고도 어두운 사건의 연쇄를 불러일으킨 첫걸음이었다.

제2부 제2장 보디마스터

제2장 보디마스터

맥머도는 존재감을 빠르게 드러내는 사내였다. 그가 어디에 있든 주변 사람들은 금세 그를 알아차렸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셰프터네 숙소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인물이 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열 명에서 열두 명 정도의 투숙객이 있었지만, 그들은 정직한 현장 감독이나 상점의 평범한 서기들이었다. 그들은 젊은 아일랜드인인 맥머도와는 격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다. 저녁마다 사람들이 모이면 맥머도는 언제나 가장 재치 있게 농담을 던졌고, 대화는 가장 활기찼으며, 노래 실력 또한 단연 최고였다. 그는 타고난 술친구였다.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묘한 매력을 지닌 사내였다.

그는 기차 안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갑작스럽고 격렬한 분노를 수시로 터뜨리곤 했다. 그 기세가 워낙 대단해서 그를 마주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경외심을 느끼거나 심지어 두려움에 떨기까지 했다. 또한 그는 법과 법 집행에 관련된 모든 이들을 지독하게 경멸했다. 그 오만한 태

도는 함께 하숙하는 이들 중 누군가에게는 통쾌함을 주었으나, 다른 이들에게는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처음 본 순간부터 숨기지 않고 찬사를 보냈다. 그 집의 딸이 지닌 아름다움과 우아함에 매료되어, 그녀를 마주한 찰나 이미 마음을 빼앗겼음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그는 결코 머뭇거리는 구애자가 아니었다. 만난 지 이틀째 되는 날,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그녀가 자신을 거절하려 어떤 말을 내뱉든 전혀 개의치 않은 채, 오로지 사랑한다는 말만을 되풀이했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그가 외쳤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참으로 운이 없는 일이겠군! 그 사람도 제 몸 하나는 알아서 지키라고 해! 고작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기회와 내 온 마음을 다한 소망을 포기하란 말인가? 에티, 당신은 계속 안 된다고 말해도 좋아. 하지만 당신이 결국 승낙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야. 난 기다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젊으니까."

그는 위험한 구애자였다. 매끄럽게 흘러가는 아일랜드식 말투와 달콤하게 유혹하는 태도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에게서는 여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결국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노련한 경험과 신비로운 분위기가 풍겼다. 그는 자신이 나고 자란 모나한주의 아름다운 계곡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멀리 떨어진 그 아름다운 섬과 완만한 구릉, 그리고 푸른 초원까지도, 이곳의 때 묻은 거리와 눈 내리는 풍경 속에서 상상하며 듣다 보면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는 북부 도시들의 삶에 정통했다. 디트로이트의 생활과 미시간의 벌목 캠프를 거쳤으며, 마지막으로는 제재소에서 일했던 시카고에서의 삶도 경험했다. 그 후에는 낭만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그 거대한 도시에서 그에게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던 모양이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울 만큼 낯설고도 은밀한 사건들이었다. 그는 갑작스럽게 떠나야 했던 일, 오래된 인연을 끊어낸 일, 그리고 낯선 세계로 도망치듯 떠나 결국 이 쓸쓸한 계곡에 다다르게 된 사연을 아쉬운 듯 털어놓았다. 에티는 그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에는 연민과 공감이 서려 반짝였다. 그 두 가지 감정은 아주 빠르고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맥머도는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기에, 임시로 경리직을 구해 일하고 있었다. 덕분에 그는 낮 시간 대부분을 밖에서 보냈고, 아직 '고결한 자유인 결사' 지부장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도 갖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 저녁, 기차에서 만났던 단원 마이크 스캔런이 찾아오면서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깜빡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스캔런은 체구가 작고 얼굴이 날카로웠으며, 검은 눈을 가진 초조한 인상의 사내였다. 그는 맥머도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반기는 듯 보였다. 위스키를 한두 잔 나누어 마신 뒤, 스캔런은 마침내 방문 목적을 꺼내 놓았다.

“이보게, 맥머도.” 그가 말했다. “자네 주소를 기억하고 있어서 무례를 무릅쓰고 찾아왔네. 그런데 아직 보디마스터에게 보고를 안 했다니 놀라운걸. 왜 아직 보스 맥긴티를 만나지 않은 건가?”

"글쎄요,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바빴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내야 하네. 세상에, 이 사람아! 여기 처음 왔던 날 아침에 당장 유니언 하우스로 달려가서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다니, 자네 정말 바보로군! 만약 그와 맞서게 된다면—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네. 그게 전부야!"

맥머도는 약간 놀란 기색을 보였다. "스캔런, 내가 이 결사체의 회원으로 지낸 지도 벌써 2년이 넘었네만, 의무가 이토록 중대하고 긴박한 것인 줄은 미처 몰랐군."

"시카고라면 아닐지도 모르지."

"글쎄요, 여기서도 똑같은 조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스캔런은 그를 오랫동안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불길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 뒤면 알게 되겠지. 내가 기차에서 내린 뒤에 순찰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들었네."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 소문은 금방 퍼지기 마련이죠. 이 근방에서는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금세 떠돌곤 하니까요."

"글쎄요, 그렇습니다. 그 사냥개 놈들에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똑똑히 말해줬지요."

"세상에, 자네라면 분명 맥긴티가 마음에 쏙 들어 할 사내일세!"

"뭐라고요? 그자가 경찰까지 미워한다는 말입니까?"

스캔런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보게, 가서 그를 좀 만나보게나." 그는 작별 인사를 건네며 덧붙였다. "자네가 가지 않는다면, 그가 미워할 사람은 경찰이 아니라 바로 자네일 테니까. 그러니 친구의 충고를 듣고 지금 당장 가게!"

마침 그날 저녁, 맥머도는 같은 방향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드는 더 급한 용무가 있었다. 맥머도가 에티에게 쏟는 관심이 전보다 더 눈에 띄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눈치 없는 독일인 숙박업주가 그들의 관계를 서서히 알아차렸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숙박업주는 젊은이를 자신의 개인 방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는 돌려 말하는 법 없이 곧장 본론을 꺼냈다.

"내 눈엔 말이야, 선생," 그가 말했다. "당신이 우리 에티한테 꼬리치는 걸로 보이는데. 내 말이 맞나,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건가?"

"네, 그렇습니다." 젊은이가 대답했다.

"이봐요, 지금 당장 말해두겠는데, 아무 소용 없을 거요. 당신보다 먼저 들어간 놈이 이미 있단 말이오."

"그녀가 내게 그렇게 말했네."

"글쎄요, 그 여자가 진실을 말했다는 건 믿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까지 말해주던가요?"

"아니요, 물어봤지만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 꼬마 계집애가! 아마 당신을 겁주어서 쫓아버리려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겁을 준다고!" 맥머도는 순식간에 불같이 화를 냈다.

"아, 그렇군요, 친구여! 그를 무서워한다고 해서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테디 볼드윈이니까요."

"도대체 그자가 누구란 말인가?"

"그는 스카우러스의 우두머리입니다."

"스카우러스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이야. 여기나 저기나 온통 스카우러스 이야기뿐이군. 그것도 죄다 속삭이는 소리로 말이야! 다들 무엇이 두려워서 그러는 건가? 도대체 스카우러스가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 무시무시한 조직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누구나 그렇듯, 하숙집 주인도 본능적으로 목소리를 낮췄다.

"스카우러스는 말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들은 바로 '고결한 자유인 결사'입니다!"

젊은이는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았다. "아니, 저도 그 결사의 일원입니다."

"당신 말이야! 만약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신이 일주일에 100달러를 준다고 해도 절대로 내 집에 들이지 않았을 거요!"

"그 결사가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자선과 친목을 위한 모임일 뿐입니다. 규정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어떤 곳이라면 모를까, 하지만 여기는 아니야!"

"여기에 대체 무엇이 있는 거지?"

"그건 살인단이야. 살인 집단이라고."

맥머도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다는 겁니까?" 그가 물었다.

"증명해 보라고! 그걸 증명할 살인 사건만 해도 쉰 건은 넘지 않나? 밀먼과 반 쇼스트, 니콜슨 일가, 하이엄 노인과 어린 빌리 제임스, 그리고 다른 이들은 또 어떻고! 어디 한번 증명해 보란 말이야! 이 계곡에 그 사실을 모르는 남녀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단 말인가?"

"이보시오!" 맥머도가 간곡하게 말했다. "방금 하신 말씀을 취소하시든가, 아니면 그 말을 입증해 주십시오. 제가 이 방을 나가기 전까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하셔야 할 겁니다. 제 입장이 되어 보란 말입니다. 저는 이 마을에 갓 들어온 이방인입니다. 제가 속하려는 단체는 지금까지 순수하기만 한 조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 어디를 가든 그 단체는 늘 선량한 조직으로 알려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서 그 조직에 가입하려 하니, 당신은 그곳이 '스카우러스'라고 불리는 살인 집단과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하시는군요. 셰프터 씨, 당신은 저에게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겁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라곤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뿐입니다, 선생님. 한쪽의 우두머리가 곧 다른 쪽의 우두머리니까요. 한쪽의 눈 밖에 나면, 결국 다른 쪽이 당신을 들이받을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자주 뼈저리게 경험해 왔습니다."

"그건 그냥 소문일 뿐이야. 난 증거를 원한다고!" 맥머도가 말했다.

"여기 오래 머물다 보면 직접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당신도 그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 깜빡했군요. 당신도 머지않아 다른 놈들만큼이나 악해지겠지. 하지만 선생, 다른 숙소를 알아봐야 할 겁니다. 당신을 여기 계속 머물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런 자들이 내 딸 에티에게 구애하러 오는 것도 모자라, 내가 감히 그를 거절하지도 못하는 판국에, 이제는 내 집에 얹혀사는 식객까지 하나 더 늘려야 한단 말입니까? 정말이지, 오늘 밤이 지나면 당신은 여기서 잠을 잘 수 없을 겁니다!"

맥머도는 안락한 숙소와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모두 쫓겨나고 말았다. 그날 저녁, 거실에서 홀로 있는 그녀를 발견한 그는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분명 아버님께서 내게 나가라고 통보하시려는 거겠지." 그가 말했다. "그저 내 방만 내놓으라고 하신다면 아무래도 상관없어. 하지만 에티, 당신을 안 지 겨우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당신은 내게 생명과도 같은 존재야. 당신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단 말이야!"

"아, 제발요, 맥머도 씨. 그런 말씀 마세요!" 소녀가 말했다.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당신은 너무 늦었다고요. 이미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당장 결혼하겠다고 약속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겠다고는 약속할 수 있어요."

"에티, 만약 내가 먼저였다면 내게도 기회가 있었을까?"

소녀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차라리 당신이 먼저 오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소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맥머도는 순식간에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부탁이야, 에티, 그냥 이대로 끝내자!" 그가 외쳤다. "고작 이 약속 하나 때문에 네 인생과 내 인생을 망치겠다는 거야?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내 사랑!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내뱉은 그 어떤 약속보다 네 마음이 훨씬 더 안전한 길잡이가 되어줄 거야."

그는 에티의 하얀 손을 자신의 강인하고 검은 두 손 사이에 움켜쥐었다.

"내 사람이 되겠다고 말해줘. 그러면 우리가 함께 맞서 싸워낼 수 있어!"

"여기가 아니라고요?"

"그래, 바로 여기서."

"안 돼, 안 돼, 잭!" 그녀는 이제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여기서는 안 돼요. 나를 데리고 어디론가 떠나줄 수 있나요?"

맥머도의 얼굴에 잠시 갈등의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이내 그 표정은 화강암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렸다.

"아니, 여기서야." 그가 말했다. "에티, 세상 모두가 우리를 가로막더라도 난 여기서 당신을 지켜낼 거야.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말이야!"

"우리 함께 떠나면 안 될까요?"

"아니야, 에티. 난 여기서 떠날 수 없어."

"하지만 어째서입니까?"

"만약 내가 쫓겨났다는 기분이 든다면, 다시는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을 겁니다. 게다가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우리도 자유로운 나라에 사는 자유로운 사람들 아닙니까? 당신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 누가 감히 우리 사이를 갈라놓겠습니까?"

"넌 몰라, 잭.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 볼드윈이 어떤 사람인지, 맥긴티와 그 스카우러스 무리가 어떤 자들인지 넌 전혀 모르고 있어."

"아니, 난 그들을 모르고, 두렵지도 않으며, 믿지도 않아!" 맥머도가 말했다. "난 거친 사내들 사이에서 살아왔어, 에티. 하지만 그들을 두려워하기는커녕, 결과는 언제나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쪽이었지. 언제나 그랬다고, 에티! 겉보기엔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말이야. 만약 네 아버님 말씀대로 이 자들이 계곡에서 범죄를 거듭해 왔고, 모두가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어째서 단 한 명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은 거지? 에티, 내 질문에 답해 봐!"

"그들을 상대로 증언하겠다고 나설 목숨 아까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지. 만약 누군가 증언이라도 했다간 한 달을 못 넘기고 죽임을 당할 테니까. 게다가 그들은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거짓 증언을 해줄 자기 편을 항상 곁에 두고 있어. 하지만 잭, 너도 분명 이 이야기를 읽었을 거 아냐. 미국 신문들이 온통 이 사건 이야기뿐이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글쎄요, 읽어본 적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저 꾸며낸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죠. 어쩌면 그들이 하는 행동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이 부당한 일을 당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오, 잭,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 그 사람도 딱 그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야. 그 다른 녀석 말이야!"

"볼드윈 말인가요? 그 사람이 원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가 보군요?"

"그래서 내가 그를 그토록 혐오하는 거야. 오, 잭, 이제야 너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겠어. 나는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증오해. 하지만 동시에 그가 두렵기도 해. 나 자신을 위해서도 두렵지만, 무엇보다 아버지 때문에 그가 무서워. 내가 정말로 느끼는 바를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우리에게 커다란 불행이 닥칠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동안 적당한 약속만 늘어놓으며 그를 따돌려 왔던 거야. 사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어. 하지만 잭, 네가 나와 함께 도망쳐 준다면, 아버지도 모시고 가서 이 악한 자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먼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야."

맥머도의 얼굴에 다시금 갈등의 기색이 스쳤다. 이내 그의 표정은 화강암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에티, 당신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을 거야. 당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악한 자들에 대해서라면, 일이 다 끝나기도 전에 내가 그들 중 가장 나쁜 놈만큼이나 지독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지도 모르겠군."

"아니야, 아니야, 잭! 난 어디서든 널 믿을 거야."

맥머도가 씁쓸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세상에! 당신은 나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 내 사랑, 당신처럼 순진한 영혼은 지금 내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짐작조차 못 할 거야. 그런데, 어라, 손님인가?"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더니, 마치 자신이 주인이라도 되는 양 거만한 태도로 한 젊은이가 성큼성큼 들어왔다. 그는 맥머도와 체격이나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잘생기고 훤칠한 청년이었다. 그는 검은색 챙이 넓은 펠트 모자를 벗지도 않은 채 그대로 쓰고 있었다. 모자 아래로 드러난 잘생긴 얼굴에는 사납고 위압적인 눈빛이 서려 있었고, 매처럼 굽은 코는 난로 옆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을 거칠게 쏘아보았다.

에티는 당황과 불안이 뒤섞인 얼굴로 벌떡 일어났다. "보러 와 주셔서 기뻐요, 볼드윈 씨." 에티가 말했다.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어서 와서 앉으세요."

볼드윈은 양손을 허리에 얹은 채 맥머도를 빤히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는 퉁명스럽게 물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제 친구예요, 볼드윈 씨. 여기 새로 들어온 하숙생이고요. 맥머도 씨, 볼드윈 씨를 소개해 드려도 될까요?"

젊은이들은 서로 퉁명스럽게 고개를 까딱이며 인사를 나누었다.

"어쩌면 에티 양이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당신에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군요." 볼드윈이 말했다.

"두 분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뭐, 이제는 아셨겠죠. 이 아가씨는 제 여자입니다, 그건 제가 장담하죠. 그리고 지금은 산책하기에 아주 좋은 저녁이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고맙지만, 지금은 산책할 기분이 아니군요."

"안 그렇다고요?" 남자의 사나운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럼 한 판 붙고 싶은 모양이군, 하숙생 양반!"

"정말 그렇습니다!" 맥머도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그 어떤 말보다도 반가운 말씀이군요."

"제발, 잭! 제발 부탁이야!" 불쌍하고 정신이 나간 듯한 에티가 비명을 질렀다. "오, 잭, 잭! 그 사람이 널 해칠 거야!"

"오, '잭'이라고 부르는 사이인가?" 볼드윈이 욕설을 내뱉으며 말했다. "벌써 그렇게까지 된 모양이지?"

"오, 테드, 제발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내 말 좀 들어줘요! 나를 위해서라도, 테드, 만약 당신이 나를 사랑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제발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를 용서해 줘요!"

"에티, 당신이 우리를 좀 내버려 둔다면 이 일을 매듭지을 수 있을 것 같아." 맥머도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면 볼드윈 씨, 저와 함께 거리 쪽으로 좀 걸으시겠습니까? 저녁 공기가 아주 좋습니다. 다음 블록 너머에 탁 트인 공간이 좀 있거든요."

"내 손을 더럽힐 필요도 없이 너에게 복수해주마." 적이 말했다. "내가 일을 끝내고 나면, 네가 이 집에 발을 들인 것조차 후회하게 될 거다!"

"지금이 적기야!" 맥머도가 외쳤다.

"제 시간은 제가 정하겠습니다, 선생. 시간 문제는 저한테 맡겨 두시죠. 자, 이것 좀 보십시오!" 그는 갑자기 소매를 걷어붙이더니 팔뚝을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낙인이라도 찍은 듯한 기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원 안에 삼각형이 들어 있는 모양이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알지도 못하고, 알 바도 아니오!"

"그래, 곧 알게 될 거다. 내가 약속하지. 너도 그리 나이 먹지 않았으니 금방일 게야. 아마 에티 양이 그 일에 대해 뭔가 말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그리고 에티, 너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오게 될 거다. 내 말 들리니? 무릎을 꿇고 말이야! 그때 네가 어떤 벌을 받게 될지 알려주마. 네가 뿌린 씨앗이니, 신의 이름으로 맹세코 반드시 거두게 해주마!"

그는 분노에 찬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노려보았다. 그러고는 홱 돌아서 나갔고, 곧이어 밖으로 통하는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맥머도와 소녀는 잠시 동안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그러다 소녀가 그의 품에 안겼다.

"오, 잭, 당신은 정말 용감했어요! 하지만 이제 소용없어요, 어서 도망쳐야 해요! 오늘 밤—잭—오늘 밤 말이에요! 그게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자가 당신을 죽일 거예요. 그 끔찍한 눈빛을 보니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맥긴티 보스와 결사대의 모든 권력을 등에 업은 그 수십 명을 상대로, 당신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맥머도는 그녀의 손을 놓아주고 입을 맞춘 뒤, 의자에 부드럽게 앉혔다. "자, 아쿠슐라, 이제 괜찮아요! 너무 동요하지 말고 내 걱정도 하지 말아요. 나 역시 프리맨이니까요. 방금 당신 아버지께도 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나도 다른 자들과 다를 바 없을지도 모르니, 나를 성인군자처럼 대하지는 말아줘요. 방금 내 말을 듣고 나니, 당신도 나를 증오하게 된 건 아닌가요?"

"당신을 미워하냐고요, 잭? 살아 있는 한 난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프리맨이라면 이곳만 아니면 어디서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당신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왜 당신을 나쁘게 생각하겠어요? 하지만 잭, 정말 프리맨이라면 왜 직접 찾아가서 보스 맥긴티와 친구가 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아, 서둘러요, 잭, 서둘러야 해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으면 사냥개들이 당신 뒤를 쫓을 거예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맥머도가 말했다. "지금 당장 가서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어르신께는 제가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다른 숙소를 찾아보겠다고 전해주십시오."

맥긴티의 술집은 평소처럼 손님들로 북적였다. 마을의 거친 사내들이 즐겨 모여 시간을 보내는 아지트였기 때문이다. 맥긴티는 인기가 많

은 사람이었다. 거칠면서도 쾌활한 성격 덕분에, 그 이면에 숨겨진 수많은 속내를 교묘히 가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단지 성격 때문만은 아니었다. 마을 전체는 물론, 계곡을 따라 30마일에 이르는 지역과 양옆의 산맥 너머까지 그에 대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미움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필사적으로 그의 비위를 맞춰야 했기에, 그의 술집은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그가 무자비한 방식으로 비밀스러운 권력을 휘두른다고 널리 믿었다. 하지만 그는 그뿐만 아니라 시의원과 도로 위원직을 맡은 고위 공직자이기도 했다. 그가 이런 직책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특혜를 기대하는 불량배들의 투표 덕분이었다. 세금과 각종 부담금은 엄청나게 높았고, 공공사업은 눈에 띄게 방치되었다. 뇌물을 받은 감사관들은 회계 장부의 부정직한 기록들을 슬쩍 눈감아주었다. 선량한 시민들은 공공의 이름으로 강요되는 갈취를 내며, 더 끔찍한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만 하는 공포 속에 살았다.

그렇게 맥긴티 두목의 권세는 해가 갈수록 커져만 갔다. 화려한 조끼 위로 늘어뜨린 금사슬은 점점 더 묵직해졌고, 가슴에 꽂은 다이아몬드 핀은 눈에 띌 만큼 번쩍거렸다. 그가 운영하는 술집 또한 나날이 세를 불려 나갔다. 결국 그 술집은 마켓 광장의 한쪽 면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이 거대해졌다.

맥머도가 술집의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서자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독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인파를 헤치며 안쪽으로 나아갔다. 실내는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았으며, 벽마다 걸린 거대

하고 화려한 금박 거울들이 그 번쩍이는 빛을 반사하며 공간을 더욱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넓은 황동 테두리 카운터 주변에는 손님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셔츠 차림의 바텐더 몇 명은 그들에게 술을 섞어 내느라 분주히 움직였다.

술집 저 끝에는 키가 크고 건장하며 체격이 당당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바에 몸을 기댄 채 입가에는 시가 하나를 비스듬히 물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그 유명한 맥긴티 본인이 아니고는 누구겠는가. 검은 갈기 같은 머리카락을 가진 거구인 그는 광대뼈까지 내려오는 수염을 길렀고, 칠흑 같은 머리카락은 깃까지 흘러내렸다. 피부는 이탈리아인처럼 거무스름했고, 눈은 기묘할 정도로 생기 없는 검은색이었다. 게다가 눈이 약간 사시였기에, 그 눈빛은 유독 불길한 느낌을 주었다.

그 남자의 다른 모든 면모, 즉 당당한 체격과 수려한 이목구비, 그리고 솔직한 태도는 그가 의도적으로 풍기는 쾌활하고 호탕한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우러졌다. 언뜻 보기에 그는 거친 말투를 쓰더라도 속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진실한, 털털하고 정직한 사내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깊고 어두운 눈동자가 무심하고도 냉혹하게 누군가를 향할 때면, 상대는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인간은 그 이면에 도사린 무한한 악의 가능성을 직감하게 된다. 또한 그 악의 뒤에는 그 무엇보다 치명적인 힘과 용기, 그리고 교활함이 숨어 있다는 사실까지도 말이다.

맥머도는 상대를 찬찬히 훑어본 뒤, 특유의 거침없고 무모한 태도로 팔꿈치를 휘두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권력자인 보스에게 아첨하

며, 보스가 던지는 아주 사소한 농담에도 자지러지게 웃어대는 측근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낯선 젊은이의 대담한 회색 눈동자는, 자신을 향해 날카롭게 쏘아보는 그들의 살기 어린 검은 눈동자를 유리잔 너머로 두려움 없이 마주 보았다.

“글쎄, 젊은이. 자네 얼굴이 도통 기억나지 않는군.”

“여기는 처음입니다, 맥긴티 씨.”

“신사에게 마땅한 호칭을 붙이는 법을 모를 만큼 세상 물정에 어두운 건 아니겠지.”

"저분이 맥긴티 의원이라네, 젊은이." 무리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이곳 사정에 워낙 어두워서 말입니다. 하지만 꼭 의원님을 뵙고 조언을 구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내 모습이 이렇네. 이게 내 전부야. 자네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글쎄요, 아직은 시작일 뿐이지요. 만약 당신의 마음이 몸집만큼이나 넓고, 영혼이 얼굴만큼이나 아름답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겁니다.” 맥머도가 말했다.

“당신의 마음이 몸집만큼 넓고, 영혼이 얼굴만큼 아름답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겠소.” 맥머도가 말했다.

"세상에나!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주 아일랜드 사람 같구려!" 선술집 주인이 소리쳤다. 그는 이 무례한 손님을 적당히 맞춰줘야 할지, 아니면 자존심을 세워 맞서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래서 자네가 내 외모를 합격시켜 줄 정도로 잘난 사람이란 말이지?"

"물론이지." 맥머도가 말했다.

"그리고 자네는 나를 만나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그렇습니다."

"누가 말해줬습니까?"

"버미사 제341지부의 스캔란 형제여. 의원님, 당신의 건강을 위해 건배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친해지길 바라며." 그는 건네받은 잔을 들어 입가로 가져갔다. 그리고 잔을 비우며 새끼손가락을 살짝 치켜세웠다.

그를 예리하게 지켜보던 맥긴티가 짙고 검은 눈썹을 치켜올렸다.

"오, 그런 식인가요?" 그가 말했다. "이 일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군요, 선생—."

"맥머도."

"조금 더 가까이 오시게, 맥머도 씨. 이 동네 사람들은 남을 쉽게 믿지도 않고, 그렇다고 남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다 믿지도 않거든. 잠시 이쪽으로 들어오게나, 바 안쪽으로 말이야."

그곳에는 통들이 가득 찬 작은 방이 하나 있었다. 맥긴티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는 통 하나를 의자 삼아 앉았다. 그는 생각에 잠긴 듯 시가 끝을 깨물며, 불안한 눈빛으로 동료를 훑어보았다. 그는 몇 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켰다. 맥머도는 한 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갈색 콧수염을 만지작거리며, 그 시선을 태연하게 받아냈다. 그때 갑자기 맥긴티가 몸을 굽히더니, 험악하게 생긴 리볼버 권총 한 자루를 꺼내 들었다.

"이봐, 이 장난꾸러기 친구," 그가 말했다. "만약 네가 우리를 상대로 수작을 부리는 거라고 생각되는 순간, 넌 아주 금방 끝장을 보게 될 거야."

"자유 형제들의 지부에서 보디마스터가 낯선 형제에게 건네는 환대치고는 꽤나 기묘하군요." 맥머도가 품위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바로 그 점을 증명해야만 해." 맥긴티가 말했다. "만약 실패한다면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빌어야 할 거다! 자, 자네는 어디서 입회했나?"

"시카고, 29번 지부."

"언제 말입니까?"

"1872년 6월 24일."

"보디마스터는 누구였지?"

"제임스 H. 스콧."

"당신 구역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바르톨로뮤 윌슨."

"흠! 테스트 실력만큼은 아주 능수능란하시군요. 그런데 여기서 대체 뭘 하고 계신 겁니까?"

"당신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은 훨씬 적을 뿐이지요."

"말대꾸가 아주 빠르군."

"그래요, 난 언제나 말이 빠른 편이었죠."

"행동이 민첩한 편인가?"

"나를 가장 잘 아는 이들 사이에서, 나는 그 이름으로 불려 왔다."

"글쎄, 생각보다 빨리 자네를 시험하게 될지도 모르겠군. 혹시 이 근처에 있는 지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

"형제라는 자리는 진정한 사내만이 지킬 수 있는 법이라고 들었네."

"그 말은 맞습니다, 맥머도 씨. 그런데 왜 시카고를 떠나신 겁니까?"

"그걸 말해준다면 차라리 저주를 받아도 좋아!"

맥긴티가 눈을 떴다. 그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듣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기에, 그 상황이 꽤나 흥미로웠다. "왜 내게 말해주지 않는 건가?"

"형제 사이에는 서로 거짓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들 만큼 끔찍한 진실이라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원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이보게, 여보게. 내가 보디마스터로서 과거를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을 로지에 가입시켜 줄 수는 없네. 그건 내 도리가 아니야."

맥머도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안주머니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 하나를 꺼냈다.

"동료를 밀고하지는 않겠다는 건가?" 그가 물었다.

"내게 그런 소리를 했다간 얼굴에 손찌검을 해버릴 줄 알아!" 맥긴티가 격분하며 외쳤다.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맥머도가 순순히 대답했다. "제가 사과드려야겠군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곁이라면 제가 안전할 거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신문 스크랩을 좀 보십시오."

맥긴티는 1874년 새해 첫 주, 시카고 마켓 스트리트에 있는 레이크 살룬에서 발생한 조나스 핀토 총격 사건에 관한 기사를 훑어보았다.

"자네가 한 짓인가?" 그가 종이를 돌려주며 물었다.

맥머도가 고개를 끄덕였다.

"왜 그를 쏜 겁니까?"

"엉클 샘이 달러를 만드는 일을 돕고 있었죠. 제가 만든 건 정부가 찍어낸 것만큼 좋은 금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겉보기엔 똑같았고 만드는 비용도 훨씬 저렴했거든요. 이 핀토라는 사람이 제가 그 가짜 돈을 시중에 밀어 넣는 걸 도와줬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글쎄요, 그건 달러를 시중에 유통시킨다는 뜻이었죠. 그러고 나서 그가 밀고하겠다고 하더군요. 어쩌면 정말 밀고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전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를 죽여버리고 곧장 탄광 지대로 도망쳤을 뿐입니다."

"왜 하필 탄광촌입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별로 까다롭지 않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읽었거든요."

맥긴티가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에는 위조범으로 살더니, 그다음엔 살인까지 저질렀지. 그러고는 이곳에 오면 환영받을 줄 알았나 본데, 착각도 자유군.”

“대충 그런 형편입니다.” 맥머도가 대답했다.

“글쎄, 자네라면 분명 크게 성공하겠어. 그런데 말이야, 아직도 그 달러를 만들 수 있나?”

맥머도가 주머니에서 동전 여섯 개를 꺼냈다. "이건 필라델피아 조폐국에서 발행된 게 아니야." 그가 말했다.

“그렇단 말이지!” 맥긴티가 고릴라처럼 털이 숭숭 난 거대한 손으로 그것들을 들어 빛에 비추어 보았다. “내 눈에는 아무런 차이가 안 보이는데. 하! 맥머도 친구, 자네는 아주 유용한 형제가 되겠어. 우리 사이에 악당 한둘쯤은 있어도 괜찮으니까.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가 있는 법이지. 우리를 밀어붙이는 놈들에게 맞서 싸우지 않으면, 금방 막다른 길에 몰리고 말 테니까 말이야.”

“글쎄, 나도 다른 녀석들처럼 가서 힘 좀 써야겠어.”

“배짱이 제법 두둑하군. 내가 이 총을 들이밀어도 전혀 움츠러들지 않다니 말이야.”

“위험에 처한 건 내가 아니었네.”

“그렇다면 누구란 말입니까?”

"의원님,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맥머도가 피코트 옆 주머니에서 공이치기를 당긴 권총을 꺼내 들며 말했다. "난 내내 당신을 겨누고 있었소. 내 총알도 당신 것만큼이나 빨랐을 거요."

"세상에나!" 맥긴티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오르더니, 이내 포효하듯 웃음을 터뜨렸다. "이보게, 수년 동안 이렇게 대단한 놈이 우리에게 들어온 적이 없었어. 우리 지부 사람들이 자네를 아주 자랑스러워하게 될 것 같군. ……그래, 도대체 원하는 게 뭔가? 신사분과 단둘이 5분도 이야기할 수 없단 말인가? 왜 자꾸 끼어드는 건가?"

바텐더는 당황한 기색으로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하지만 테드 볼드윈이라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 의원님을 꼭 뵙고 싶다고 합니다."

메시지를 보낼 필요조차 없었다. 그 잔인하고 굳은 표정의 남자가 직접 하인의 어깨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바텐더를 밀쳐내고 문을 닫아버렸다.

"그러니까," 그는 맥머도를 매섭게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이 먼저 도착했다는 말이지? 의원님, 이 자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해!" 맥머도가 외쳤다.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말하겠소."

"쯧쯧, 이래선 안 되지!" 맥긴티가 통에서 내려오며 말했다. "여기에 새로운 형제가 들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맞이해서야 되겠나. 볼드윈, 어서 손을 내밀어 화해하게!"

"절대 안 돼!" 볼드윈이 격분하며 외쳤다.

"그가 내가 자신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 언제든 맞서 싸우겠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맥머도가 말했다. "주먹으로 싸우든, 아니면 그가 원하는 다른 방식이 있든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보디마스터로서 우리 사이를 판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체 무엇입니까?"

"젊은 여성입니다.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지요."

"정말인가요?" 볼드윈이 외쳤다.

"지부의 두 형제 사이의 문제라면, 그녀에게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봐야겠지." 보스가 말했다.

"오, 그게 당신의 판결이란 말입니까?"

"그래, 사실이다, 테드 볼드윈." 맥긴티가 사악한 눈빛을 번뜩이며 말했다. "설마 네가 내 말에 토를 달겠다는 건 아니겠지?"

"지난 5년 동안 네 곁을 지켜온 사람을 버리고,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놈을 택하겠다는 건가? 잭 맥긴티, 네가 영원히 보디마스터 자리에 머물 수 있을 것 같으냐! 맹세컨대, 다음 투표가 돌아오면—!"

의원은 호랑이처럼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상대의 목을 움켜쥐더니, 통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를 뒤로 내팽개쳤다. 광기에 휩싸인 의원은 맥머도가 가로막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목을 졸라 숨통을 끊어놓았을 기세였다.

"진정하세요, 의원님! 제발, 좀 진정하시라고요!" 그가 의원을 뒤로 끌어당기며 외쳤다.

맥긴티가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죽음의 문턱을 마주한 사람처럼 온몸을 떨며 숨을 몰아쉬던 볼드윈은, 겁에 질린 채 자신이 내팽개쳐졌던 통 위로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자극하더니, 테드 볼드윈, 결국 네가 자초한 일이다!" 맥긴티가 거대한 가슴을 들썩이며 소리쳤다. "내가 보디마스터(Bodymaster) 자리에서 물러나면 네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본데, 그건 지부의 결정에 맡길 일이다. 하지만 내가 수장으로 있는 한, 그 누구도 나나 나의 결정에 토를 달지 못할 것이다."

"당신에게 악감정은 없소." 볼드윈이 목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자, 그럼 됐네!" 상대방이 외쳤다. 그는 순식간에 다시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덧붙였다. "이제 우린 다시 좋은 친구가 된 거니, 이 일은 이걸로 끝내는 걸로 하세."

그는 선반에서 샴페인 한 병을 꺼내더니 코르크 마개를 비틀어 뽑았다.

"자, 이제 봅시다." 그는 높은 유리잔 세 개에 술을 채우며 말을 이었다. "우리 결사체의 전통인 '다툼의 건배'를 합시다. 이 의식을 치르고 나면,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사이에 나쁜 감정 따위는 남지 않을 테니까요. 자, 그럼 왼손을 내 목의 사과(목젖) 위에 얹으십시오. 테드 볼드윈 씨, 당신이 나에게 품은 원한이 무엇인지 말해 보시오."

"구름이 잔뜩 끼었군." 볼드윈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영원히 밝게 빛날 것입니다."

"이 점만은 맹세하겠습니다!"

사내들은 잔을 비웠다. 볼드윈과 맥머도 사이에서도 똑같은 의식이 치러졌다.

"됐다!" 맥긴티가 손을 비비며 외쳤다. "그렇게 검은 피는 끝장이다. 여기서 일이 더 커지면 결사체의 규율을 따르게 될 거다. 이 근방에서 그 규율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볼드윈 형제도 잘 알고 있지. 맥머도 형제, 네가 스스로 화를 자초한다면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거다!"

"정말이지,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걸세." 맥머도가 말했다. 그는 볼드윈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싸우는 것도 빠르지만, 용서하는 것도 빠르다네. 다들 내 혈기 왕성한 아일랜드인의 피 때문이라고들 하지. 하지만 이제 다 끝난 일 아닌가. 난 아무런 원한도 품지 않네."

볼드윈은 내밀어진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무시무시한 보스의 불길한 시선이 그를 쏘아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볼드윈의 뚱한 얼

굴에는 상대의 말이 그에게 거의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맥긴티가 두 사람의 어깨를 툭툭 쳤다. "쯧쯧! 이 계집애들 같으니라고! 이 계집애들 때문에!" 그가 소리쳤다. "내 형제 같은 녀석들 둘 사이에 고작 치맛자락이 끼어들다니! 이건 정말 악마가 부리는 장난이로군! 뭐, 이 문제는 여자들의 마음속에 달린 일이지. 보디마스터의 관할 밖의 일이니, 차라리 잘된 일이야. 신께 감사할 따름이지! 여자들 문제까지 떠맡기에는 우리도 이미 할 일이 산더미거든. 맥머도 형제, 자네는 제341 지부의 일원이 되어야 하네. 우리에게는 시카고와는 다른 우리만의 방식과 수단이 있으니까. 토요일 밤이 우리 모임 날이네. 그때 오게나. 그러면 자네를 버미사 계곡에서 영원히 자유롭게 해주겠네."

제2부 제3장 버미사 제341 지부

제3장 버미사 제341호 지부

수많은 흥미진진한 사건이 휘몰아쳤던 그날 저녁 다음 날, 맥머도는 제이콥 셰프터의 집에서 나와 마을 외곽 끝자락에 있는 미망인 맥나마라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기차에서 처음 안면을 튼 스캔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버미사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 집에는 다른 하숙생이 없었다. 집주인은 성격이 너그러운 아일랜드 노부인이어서 두 사람을 내버려 두었다. 덕분에 공동의 비밀을 간직한 사내들에게 꼭 필요한, 말과 행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

셰프터는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려, 맥머도가 원할 때면 그곳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게 해주었다. 덕분에 맥머도와 에티의 교제는 결코 끊기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긴밀하고 친밀해졌다.

맥머도는 새로 옮긴 거처의 침실에서 동전 주조 틀을 꺼내 놓아도 안전하겠다고 판단했다. 그는 비밀을 엄수하겠다는 수많은 맹세를 받은 뒤에야, 결사 조직의 형제 몇 명을 불러 틀을 보여주었다. 형제들은 저마다 위조 화폐 견본을 주머니에 챙겨 나갔다. 그 돈은 워낙 정교하게 찍어내서 시중에 유통할 때 조금의 어려움이나 위험도 따르지 않을 정도였다. 이토록 놀라운 기술을 손에 쥐고서도 맥머도가 왜 굳이 직접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지는 동료들에게는 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하지만 맥머도는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분명히 일러두었다. 아무런 수입 증빙 없이 생활하다가는 금세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이미 한 명의 경찰이 그를 뒤쫓고 있었다. 하지만 운 좋게도 그 사건은 모험가에게 해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큰 도움이 되었다. 첫 만남 이후, 그는 거의 매일 저녁 맥긴티의 술집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그는 '아이들'과 더 가까워지려 노력했다. '아이들'이란 그 지역을 장악한 위험한 조직원들이 서로를 부를 때 쓰는 유쾌한 별칭이었다. 그의 당당한 태도와 거침없는 말투는 조직원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게다가 술집에서 벌어진 난투극에서 상대방을 빠르고 정교하게 제압하는 모습은 거친 무리 사이에서 존경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들의 신뢰를 한층 더 높여준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다.

어느 날 밤,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간이었다. 문이 열리더니 광산 경찰의 차분한 청색 제복과 챙이 달린 모자를 쓴 남자가 들어왔다. 이들은 철도 회사와 탄광 소유주들이 특별히 조직한 부대였다. 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은 조직적인 폭력배들을 일반 경찰이 전혀 막아내지 못하자,

그들의 부족한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었다. 그가 들어서자 주변이 일순간 조용해졌고, 많은 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과 범죄자 사이의 관계가 묘한 구석이 있었다. 카운터 뒤에 서 있던 맥긴티 역시, 그 경찰이 손님들 틈에 섞여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

"위스키 한 잔 주시오. 스트레이트로. 오늘 밤은 참으로 쓰디쓴 밤이군." 경찰관이 말했다. "우리가 전에 만난 적이 있었던가요, 의원님?"

"자네가 새로 온 대장이로군?" 맥긴티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다른 지역 유지 여러분께서도 이 마을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마빈 대위입니다."

"마빈 대위, 당신 같은 사람은 없는 게 우리에겐 더 낫겠어." 맥긴티가 냉혹하게 말했다. "우리 마을에는 우리만의 경찰이 있으니, 외부에서 들여온 물건 따위는 필요 없거든.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줄 아나? 당신은 그저 자본가들이 돈을 주고 고용한 도구일 뿐이야. 가난한 이웃들을 몽둥이로 때리고 총으로 쏘라고 시키는 하수인 말이지."

"허허, 그 문제로 따져봐야 소용없지요." 경찰관이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각자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뿐, 우리 모두는 나름의 방식대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잔을 비우고 막 자리를 뜨려던 참이었다. 그러다 문득 제 옆에서 인상을 찌푸리

고 있는 잭 맥머도의 얼굴과 눈이 마주쳤다. “어라! 이게 누구야!” 그는 맥머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외쳤다. “여기에 옛 지인이 있었구먼!”

맥머도가 그에게서 움찔하며 물러났다. “내 평생 당신이나 다른 저 주받을 경찰 놈들 중 누구와도 친구였던 적은 없소.” 그가 말했다.

“아는 사이라고 해서 다 친구는 아니지.” 경찰 대위가 싱긋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시카고의 잭 맥머도가 확실해. 부정할 생각은 마시오!”

맥머도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부인하려는 게 아니야.” 그가 말했다. “내가 내 이름을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하나?”

“어쨌든,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하시니까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포효하듯 소리쳤다.

“아니, 아니야, 잭. 나한테 큰소리쳐 봤자 소용없어. 난 이 빌어먹을 탄광에 오기 전부터 시카고에서 경관으로 일했거든. 그래서 시카고 놈이 어떤 악당인지 한눈에 알아본다고.”

맥머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설마 당신이 시카고 센트럴의 마빈이라는 건 아니겠지!" 그가 외쳤다.

"여전한 테디 마빈입니다. 언제든 불러만 주십시오. 저 위에서 벌어졌던 조나스 핀토 총격 사건을 우리는 아직 잊지 않았습니다."

"난 그를 쏜 적이 없소."

"안 그랬다고? 그거 참 공정한 증거로군, 안 그래? 뭐, 어쨌든 그자가 죽은 덕분에 자네가 아주 요리조리 잘 빠져나갔으니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위조지폐를 유통한 죄로 자네가 덜미를 잡혔을 테니까. 뭐, 지난 일은 이제 잊어버리기로 하지. 이건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월권일지도 모르겠지만—그들이 자네를 상대로 확실한 증거를 잡지는 못했어. 그러니 내일 당장 시카고로 떠나도 좋아."

"지금 있는 이대로가 아주 좋습니다."

"자, 내가 힌트까지 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으니, 정말 심술궂은 친구로군."

"뭐, 나쁜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겠지요. 어쨌든 고맙게 받겠습니다." 맥머도가 그리 정중하지 않은 태도로 말했다.

"자네가 바른길을 걷는 한, 나도 입을 다물고 있겠네." 경감이 말했다. "하지만 맹세코 말하건대, 이번 일 이후에 또다시 잘못된 길로 빠진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질 걸세! 그럼 이만 작별하게. 의원님께도 작별 인사를 올립니다."

그는 술집을 나섰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곳의 영웅이 되어 있었다. 머나먼 시카고에서 맥머도가 저질렀다는 무용담은 이미 사람들 사이

에서 은밀히 떠돌던 이야기였다. 그동안 그는 마치 대단한 명성을 떠안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미소로 질문들을 넘겨왔다. 그러나 이제 그의 행적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술집에 빈둥거리던 이들이 그를 에워싸고는 아주 반갑게 악수를 청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마을의 일원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졌다. 그는 술을 세게 마셔도 거의 티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만약 동료인 스캔랜이 곁에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더라면, 축하를 받던 이 영웅은 분명 술집 바닥에서 밤을 지새웠을 것이다.

토요일 밤, 맥머도는 지부의 입단식에 참석했다. 시카고에서 이미 입단한 경험이 있었던 그는 별다른 절차 없이 그냥 지나가도 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버미사에는 그들만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고, 모든 입단 희망자는 반드시 이 의식을 치러야만 했다.

모임은 유니언 하우스에 마련된 전용 대강당에서 열렸다. 버미사에는 약 60명의 회원이 모였으나, 이것이 조직의 전체 규모를 나타내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계곡 곳곳에는 여러 지부가 더 있었고, 산맥 너머 양쪽 지역에도 지부들이 존재했다. 중요한 사업이 진행될 때면 이 지부들은 서로 회원을 교환하곤 했다. 덕분에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현지 사정에 전혀 모르는 외부인일 수도 있었다. 석탄 채굴 지역 전체에 흩어져 있는 조직원의 수는 아무리 적어도 500명은 족히 되었다.

텅 빈 집회실 안, 사내들이 긴 탁자 주위로 모여 있었다. 탁자 옆에는 병과 잔이 가득 놓인 또 다른 탁자가 있었는데, 이미 몇몇 조직원들은 그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었다. 맥긴티는 탁자 상석에 앉아 있었

다. 헝클어진 검은 머리 위에는 납작한 검은 벨벳 모자를 썼고, 목에는 보랏빛 스톨을 둘러 마치 악마의 의식을 주관하는 사제 같은 모습이었다. 그의 좌우로는 조직의 고위 간부들이 자리했는데, 그중에는 잔인하면서도 잘생긴 얼굴을 한 테드 볼드윈도 있었다. 간부들은 저마다 자신의 직위를 상징하는 스카프나 메달을 몸에 걸치고 있었다.

구성원 대부분은 나이가 지긋한 이들이었다. 하지만 나머지 인원은 열여덟 살에서 스물다섯 살 사이의 젊은이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들은 선배들의 명령을 수행하는, 기민하고 유능한 행동대원이었다. 연장자들 중에는 얼굴에 호랑이 같은 무법자의 영혼이 서린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일반 대원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토록 의욕 넘치고 훤칠한 청년들이 정말로 위험한 살인 집단이라는 사실은 믿기 어려웠다. 이들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하여 살인 기술을 익히는 데 끔찍한 자부심을 느끼는 자들이었다. 심지어 이들은 이른바 '깔끔한 일'을 처리한다는 명성을 가진 자를 깊은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뒤틀린 본성으로는, 자신들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심지어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누군가를 상대로 싸우겠다고 자원하는 것이 마치 용맹하고 기사도적인 행동이라도 되는 양 즐겼다. 범행을 저지른 뒤에는 누가 결정적인 치명타를 날렸는지를 두고 서로 다투기도 했으며, 살해당한 자가 내지른 비명과 고통에 몸부림치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묘사하며 서로와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처음에는 그들도 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 비밀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다루는 시기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행보가 놀라울 정도

로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변했다. 법 집행이 거듭 실패하면서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그 누구도 감히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든 불러낼 수 있는 충성스러운 증인이 무수히 많으며, 주 내의 최고 법률 전문가들을 고용할 자금도 금고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이어진 만행 속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스카우러스가 직면한 유일한 위협은 피해자 자신뿐이었다. 비록 피해자가 수적으로 열세인 데다 기습을 당하는 처지라 할지라도, 가해자들에게 흔적을 남길 수는 있었으며 실제로 가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맥머도는 자신 앞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 경고를 받았으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이제 엄숙한 표정의 형제 두 명이 그를 옆방으로 안내했다. 나무 칸막이 너머로 회의장에 모인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두 번쯤은 자신의 이름이 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입후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직감했다. 그때 가슴에 녹색과 금색이 섞인 띠를 두른 내측 경비원이 안으로 들어왔다.

"보디마스터의 명령이다. 그놈을 꽁꽁 묶고, 눈을 가린 뒤, 안으로 밀어 넣으라고 말이다." 그가 말했다.

세 사람은 그의 코트를 벗겼다. 그러고는 오른팔의 소매를 걷어 올린 뒤, 팔꿈치 윗부분에 밧줄을 둘러 단단히 묶었다. 다음으로 그는 머리와 얼굴 윗부분을 완전히 가릴 만큼 두껍고 검은 모자를 썼다. 이제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 상태로 그는 집회장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후드 아래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숨이 막힐 듯 답답했다. 주변 사람들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이어 맥긴티의 목소리가 들렸으나, 귀를 덮은 천 때문에 멀리서 들리는 듯 웅얼거리는 소리로만 전해졌다.

"존 맥머도," 목소리가 물었다. "자네는 이미 '고대 자유인 결사(Ancient Order of Freemen)'의 단원인가?"

그는 고개를 숙여 긍정의 뜻을 표했다.

"당신의 지부 번호가 시카고 29번입니까?"

그는 다시 한번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어두운 밤은 불쾌한 법이지요." 목소리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낯선 이들이 여행하기에는요." 그가 대답했다.

"구름이 무겁게 내려앉았군."

"그렇소, 폭풍이 다가오고 있군."

"형제들은 만족하는가?" 보디마스터가 물었다.

여기저기서 동의하는 낮은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형제여, 그대가 보낸 신호와 응답을 보니 진정 우리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겠네." 맥긴티가 말했다. "하지만 하나 알아두게나. 이 지역과 인근의 다른 군에서도 우리만의 의례가 있고, 충직한 이들이 수행해야 할 특정한 의무가 있다는 점을 말일세. 자, 시험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습니다."

"담력이 있는 편인가?"

"그렇습니다."

"그걸 증명하려면 직접 한 걸음 내디뎌 보시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눈앞에 딱딱한 무언가가 두 개 박힌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이 눈을 강하게 압박하는 바람에, 자칫 잘못 움직였다가는 눈알이 빠져버릴 것만 같은 공포가 밀려왔다. 그럼에도 그는 마음을 다잡고 단호하게 발을 내디뎠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압박감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이윽고 낮은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담력이 센 사람이야." 목소리가 말했다. "고통을 참을 수 있겠나?"

"남들만큼은 견딥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를 시험해 봐!"

팔뚝을 관통하는 극심한 통증에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버텼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숨기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고 두 손을 움켜쥐었다.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참아야만 했다.

"그 정도쯤은 더 견딜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번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어떤 첫 등장도 이보다 더 근사할 수는 없었으리라. 회원들은 그의 등을 두드리며 환호했고, 머리에 눌러쓴 후드도 벗겨냈다. 그는 형제들의 축하 세례 속에서 눈을 깜빡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지, 맥머도 형제." 맥긴티가 말했다. "자네는 이미 비밀을 지키고 충성을 다하겠다는 서약을 마쳤네. 만약 이 약속을 어긴다면, 그 즉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겠지?"

"그렇습니다." 맥머도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당분간은 보디마스터의 지시에 따르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버미사 제341 지부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누릴 특권과 토론의 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캔런 형제, 술을 탁자 위에 올려놓게. 우리 훌륭한 형제를 위해 건배를 나누세나."

맥머도에게 코트가 전달되었다. 하지만 그는 코트를 입기 전, 여전히 심하게 쓰라린 오른팔을 살폈다. 팔뚝 살 위에는 낙인이 찍힌 자국이 선명했다. 삼각형이 그려진 원형의 자국은 낙인용 인두가 남긴 그대로 깊고 붉게 패어 있었다. 이웃 중 한두 명도 소매를 걷어 올리며 자신들이 가진 결사단의 표식을 보여주었다.

"우리 모두 겪은 일이지." 누군가 말했다. "하지만 자네처럼 용감하게 맞선 사람은 드물 거야."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말했지만, 상처는 여전히 화끈거리고 아릿했다.

입단식이 끝나고 술잔이 모두 비워지자, 결사단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었다. 시카고의 평범한 모임들에만 익숙했던 맥머도는 귀를 기울이며 경청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광경이 너무나 놀라워, 차마 겉으로 드러내지 못할 만큼 당혹감을 느끼고 있었다.

"오늘 의제의 첫 번째 안건은," 맥긴티가 말했다. "머튼 카운티 249 지부의 윈들 구역장이 보낸 다음 편지를 낭독하는 것이네. 편지 내용은 이렇네."

"친애하는 귀하께.

이 근처에 있는 레이 앤 스터머시 사의 석탄 주인, 앤드루 레이를 처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 가을 순찰대원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형제 두 명이 귀하의 지부에 도움을 주었으니, 귀하의 지부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건실한 대원 두 명을 보내십시오. 그들은 귀하도 주소를 알고 있는 우리 지부의 히긴스 회계가 인계받을 것입니다. 히긴스가 그들에게 언제, 어디서 움직여야 할지 알려줄 것입니다.

자유를 위하여,"

"J.W. 윈들, D.M.A.O.F."

"윈들 녀석은 우리가 사람 한둘만 빌려달라고 부탁할 때면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네. 그러니 우리가 그를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 맥긴티는 말을 멈추고, 흐릿하면서도 악의가 가득한 눈빛으로 방안을 훑어보았다. "누가 이 일을 맡겠나?"

젊은이 몇 명이 손을 번쩍 들었다. 보디마스터는 그들을 향해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어 보였다.

"타이거 코맥, 자네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지난번처럼만 처리한다면 틀림없을 걸세. 그리고 윌슨, 자네도."

"전 권총이 없어요." 십 대 소년으로 보이는 자원자가 말했다.

"이번이 첫 경험이지? 뭐, 누구나 언젠가는 실전에서 구르고 배워야 하는 법이니까. 이번 일이 자네에게 아주 좋은 시작이 될 걸세. 권총은

준비해 두었으니 곧 찾게 될 거야. 만약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말이지. 월요일에 보고하러 오면 시간은 충분할 걸세. 돌아오면 아주 뜨거운 환영을 받게 될 거야."

"이번에도 보상이 있나?" 코맥이 물었다. 그는 체격이 건장하고 얼굴이 검으며 험악하게 생긴 청년이었다. 그 사나운 기세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타이거'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보상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저 명예를 위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상자 밑바닥에 푼돈 정도는 남아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자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젊은 윌슨이 물었다.

"물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당신 같은 사람이 캐묻고 다닐 일은 아니지. 그 사람은 이미 저쪽에서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그들이 우리를 위해 일해주듯, 우리도 그저 그들의 명령을 수행하기만 하면 돼.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다음 주에 머튼 지부에서 온 형제 두 명이 이 근처에서 볼일이 있다며 우리를 찾아올 걸세."

"그들이 누구입니까?" 누군가 물었다.

"정말이지, 묻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증언할 일도 없고, 뒷탈도 생기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일을 시작하면 아주 깔끔하게 끝내버리는 자들입니다."

“시간도 문제야!” 테드 볼드윈이 외쳤다. “이 근방 사람들은 점점 통제 불능이 되고 있다고. 바로 지난주에도 블레이커 반장 때문에 우리 쪽 사람 세 명이나 쫓겨났단 말이야. 그놈은 아주 오래전부터 원한을 사고 있었으니, 조만간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뭘 당한다는 거야?” 맥머도가 옆 사람에게 낮게 속삭였다.

“벅샷 탄환의 발사구 쪽이지!” 남자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형제여, 우리의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맥머도의 범죄적인 영혼은 이미 그가 속한 그 사악한 조직의 기질을 흡수한 듯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가 말했다. "기개가 있는 젊은이가 몸담기에 딱 좋은 곳이군요."

주변에 앉아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은 그의 말을 듣고 박수를 보냈다.

“그게 대체 뭐야?”

테이블 끝에 앉아 있던, 검은 갈기 같은 머리칼을 가진 보디마스터가 소리쳤다.

“우리 방식이 입에 맞는다며 좋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새 형제님입니다, 주인님.”

맥머도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위대한 보디마스터님, 만약 일손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 결사체를 돕는 데 저를 뽑아주시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이 말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마치 새로운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그 테두리를 밀어 올리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하지만 원로들 중 일부는 이러한 진보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생각했다.

"맥머도 형제가 우리 지부의 결정에 따라 임무를 맡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의장 옆에 앉아 있던 서기 해러웨이가 말했다. 그는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얼굴을 한 백발의 노인이었다.

"물론입니다. 제 뜻은 바로 그겁니다. 이제 당신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맥머도가 말했다.

"형제여, 당신의 때가 올 것이오." 의장이 말했다. "우리는 당신을 의지가 충만한 사람으로 점찍어 두었소. 당신이 이 근방에서 큰 역할을 해낼 것이라 믿고 있소. 혹시 괜찮다면, 오늘 밤 처리해야 할 작은 일이 하나 있는데 당신이 힘을 보태주었으면 하오."

"가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기다리겠네."

"어쨌든 오늘 밤에는 꼭 오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그는 수첩을 힐끗 훑어보며 말을 이었다.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이 한두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무에게 우리 은행 잔고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짐 카나웨이의 미망인에게 지급할 연금 문제도 있습니다. 그는 우리 결사회를 위해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책임지고 살펴야 합니다."

"지난달에 말리 크리크의 체스터 윌콕스를 죽이려던 놈들에게 짐이 총을 맞았네." 맥머도의 이웃이 그에게 알려주었다.

"지금은 자금이 넉넉합니다."

회계 담당자가 통장을 앞에 둔 채 말했다.

"최근 기업들이 관대하게 기부해 주었습니다. 맥스 린더 상사는 간섭하지 말아 달라는 조건으로 500달러를 냈고요. 워커 형제 상사에서는 100달러를 보냈지만, 제가 직접 돌려보내며 500달러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요일까지 소식이 없으면 그쪽 채굴 장비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작년에도 그들이 순순히 응할 때까지 차단기를 태워버려야 했으니까요. 서부 구역 석탄 회사도 연간 분담금을 냈습니다. 현재 보유한 자금이면 어떤 지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치 스윈던은 어떻게 됐나?" 형제가 물었다.

"그놈은 가진 걸 다 팔아치우고 이 지역을 떠났네. 그 망할 영감탱이가 쪽지 하나를 남겼는데, 협박단에게 휘둘리며 거물 광산주로 사느니 차라리 뉴욕에서 자유로운 길거리 청소부로 사는 게 낫겠다고 하더군. 세상에나! 그 쪽지가 우리 손에 들어가기 전에 도망친 게 차라리 다행이었어. 내 생각에 그자가 이 계곡에 다시는 얼굴을 비출 일은 없을 것 같네."

인자한 얼굴에 이마가 넓고 깨끗하게 면도한 노신사가 의장석 맞은편 탁자 끝에서 일어났다. 그는 재무이사에게 물었다. "재무이사님, 우리가 이 지역에서 쫓아낸 이 사람의 재산을 과연 누가 사들였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모리스 형제님. 스테이트 앤 머턴 카운티 철도 회사가 인수했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시장에 매물로 나왔던 토드만 광산과 리 광산은 누가 사 갔습니까?"

"같은 조직입니다, 모리스 형제여."

"최근 들어 모두 문을 닫아버린 맨슨과 슈만, 반 데허, 그리고 앳우드의 제철소들은 대체 누가 사들였습니까?"

"그것들은 전부 웨스트 길머턴 종합 광업 회사에서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모리스 형제, 누가 그것들을 사는지야 우리와 무슨 상관이겠소." 의장이 말했다. "어차피 그 물건들을 이 지역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도 없을 텐데 말이오."

"존경하는 보디마스터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벌써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규모 상인들을 하나둘씩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빈자리를 철

도 회사나 제너럴 아이언 같은 거대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뉴욕이나 필라델피아에 이사진을 두고 있어서, 우리의 협박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역 보스들을 겁박해서 이득을 취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건 결국 다른 이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소규모 상인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돈도, 권력도 없으니까요. 우리가 그들을 너무 가혹하게 쥐어짜지만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 통제 아래 머물러 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거대 기업들이 우리가 자신들의 이익을 가로막는 존재라고 판단한다면,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 법정에 세우려 들 겁니다."

불길한 말이 떨어지자 사방이 침묵에 잠겼다. 사람들은 서로 어두운 표정을 주고받았다. 그동안 그들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왔다. 그래서 배후에 어떤 응징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상태였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떠오르자, 아무리 겁 없는 자들이라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내 조언은 이렇소." 화자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소상인들을 좀 더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오. 그들을 모두 몰아내는 날, 우리 결사의 권력도 무너질 것이오."

불편한 진실은 환영받지 못하는 법이다. 연사가 다시 자리에 앉자 여기저기서 분노 섞인 외침이 터져 나왔다. 맥긴티는 어두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리스 형제," 그가 말했다. "자네는 언제나 비관론자였지. 우리 지부 회원들이 하나로 뭉쳐 있는 한, 미국 그 어떤 권력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네. 법정에서 이미 수없이 증명해 보이지 않았나? 대기업들도 작은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지불하는 편이 쉽다고 판단할 걸세. 자, 형제 여러분." 맥긴티는 말을 이어가며 검은 벨벳 모자와 어깨에 두른 스톨을 벗었다. "오늘 저녁 지부의 공식 업무는 모두 끝났네. 헤어지기 전에 언급할 만한 아주 작은 일 하나만 남았을 뿐이지. 이제 형제애를 나누며 화합을 다질 시간일세."

인간의 본성이란 참으로 기묘하다. 살인이 일상인 이들은, 아무런 개인적 원한도 없는 한 가장을 몇 번이고 무참히 쓰러뜨리곤 했다. 울부짖는 아내나 속수무책인 아이들을 보면서도 가책이나 연민 따위는 눈곱만큼도 느끼지 못하던 자들이었다. 그런데 정작 음악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움이나 애절함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마는 것이다. 맥머도는 미성인 테너 목소리를 지니고 있었다. 그가 이전에 결사단의 호의를 얻는 데 실패했을지언정, '스틸 위의 나, 메리(I'm Sitting on the Stile, Mary)'와 '앨런 워터 강가에서(On the Banks of Allan Water)'를 불러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든 뒤로는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할 리 없었다.

신입 대원은 첫날 밤부터 형제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이 되었다. 그는 벌써부터 승진과 고위직을 보장받을 만한 재목으로 눈에 띄었다. 하지만 진정한 프리맨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친화력이 좋은 것 이상의 자질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다 가기 전, 그는 그 자질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다. 위스키 병이 여러 차례 돌면서 사람들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분위기는 장난을 치기에 딱 좋을 만큼 무르익어 있었다. 바로 그때, 보디마스터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일행에게 연설을 시작했다.

"얘들아," 그가 말했다. "이 마을에 아주 따끔하게 맛을 보여줘야 할 놈이 하나 있다. 그놈을 제대로 손봐주는 건 너희 몫이다. 내가 말하는 건 헤럴드지의 제임스 스탠저라는 놈이야. 그놈이 또 우리를 상대로 입을 놀리는 걸 너희도 봤지?"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동조하며 여기저기서 욕설을 중얼거렸다. 맥긴티는 조끼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법과 질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석탄과 철강 지대에 몰아친 공포의 통치. 우리 사회에 범죄 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첫 암살 사건이 발생한 지 이제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이러한 만행은 끊이지 않았으며, 이제는 문명 세계의 비난을 받을 정도로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 위대한 조국이 유럽의 독재를 피해 도망쳐 온 이방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이유가 고작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함입니까? 그들이 자신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한 이들을 오히려 폭군처럼 억압하고, 자유의 별이 새겨진 성스러운 국기 아래 테러와 무법천지를 세우려는 것입

니까? 만약 동양의 나약한 군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면 우리는 경악했을 것입니다. 범인들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조직의 실체 또한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를 견뎌야 합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 정말이지 이딴 쓰레기 같은 기사는 지긋지긋하군!" 의장은 신문을 탁자 위로 내팽개치며 외쳤다. "저놈이 우리를 이렇게 비난하고 있단 말이오. 내가 묻고 싶은 건, 우리가 저놈에게 뭐라고 답해야 하느냐는 것이오."

"죽여라!" 수십 명의 험악한 목소리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저는 반대합니다." 선한 인상에 매끈하게 면도한 모리스 형제가 말했다. "형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력은 이 계곡에서 너무 비대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 우리를 짓밟으려 드는 순간이 올 겁니다. 제임스 스탠저는 노인입니다. 마을과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지요. 그가 발행하는 신문은 이 계곡의 모든 견고한 가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쓰러진다면, 이 주 전체가 들끓게 될 것이고, 그 소란은 결국 우리의 파멸로 끝날 것입니다."

"그들이 대체 어떤 식으로 우리를 파멸시키겠다는 겁니까, 스탠드백 씨?" 맥긴티가 외쳤다. "경찰을 앞세우기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웃기는 소리! 경찰 절반은 이미 우리 돈을 받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 법원이나 판사를 이용하겠다는 겁니까? 전에도 이미 해본 일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지 잊었단 말입니까!"

"이 사건을 심판할 린치 법정이 있을지도 모르지." 모리스 형제가 말했다.

그 제안이 떨어지기 무섭게 사방에서 분노 섞인 고함이 터져 나왔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끝이야!" 맥긴티가 외쳤다. "이 마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쓸어버릴 수 있는 부하 이백 명쯤은 당장이라도 불러 모을 수 있단 말이다!"

그러더니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거대한 검은 눈썹을 험악하게 찌푸렸다. "똑똑히 들어라, 모리스 형제. 난 이미 오래전부터 자네를 주시하고 있었어! 자네는 스스로 용기가 없으면서 남의 용기까지 꺾어놓으려 들지. 모리스 형제, 자네 이름이 우리 의제 명단에 오르는 날이 오면 그날이 바로 자네의 운명이 다하는 날이 될 거야. 그리고 내 생각엔, 자네 이름을 바로 그 명단에 올려야 할 것 같군."

모리스의 안색은 죽은 듯이 창백해졌다. 의자에 몸을 뒤로 젖히며 주저앉는 그의 무릎은 금방이라도 꺾일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어 올리더니, 대답을 하기도 전에 술을 들이켰다.

"존경하는 보디마스터님, 그리고 이 지부의 형제 여러분.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충실한 구성원입니다. 다만 이 지부에 불행이 닥칠까 두려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불안한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보디마스터님, 저는 제 판

단보다 당신의 판단을 더 신뢰합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보디마스터의 험악한 표정이 겸손한 대답을 듣고 나서야 조금 풀렸다. "좋네, 모리스 형제. 자네에게 매질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유감스러운 건 바로 나일세.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우리는 말과 행동이 하나 된 결사체가 되어야 하네. 자, 얘들아." 그는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이 말만은 해두겠네. 만약 우리가 스탠저에게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응징을 그대로 가했다가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골칫거리가 생길 거야. 저 편집자들은 서로 똘똘 뭉쳐 있거든. 우리가 손을 대는 순간, 이 주의 모든 신문이 경찰과 군대를 불러 모으려 들 테니까. 하지만 자네들이 그에게 아주 따끔한 경고 정도는 줄 수 있을 거라 믿네. 볼드윈 형제, 자네가 맡아보겠나?"

"물론이죠!" 청년이 열띤 목소리로 대답했다.

"몇 명을 데려가겠나?"

"여섯 명이다. 거기다 문을 지킬 두 명을 더 붙이지. 고워, 자네도 오게. 맨셀, 스캔런, 그리고 윌러비 형제 둘도 함께 오게나."

"새로 들어온 형제에게는 꼭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네." 의장이 말했다.

테드 볼드윈은 맥머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었고, 결코 잊거나 용서할 생각이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뭐, 본인이 원한다면 오라고 해." 볼드윈이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그걸로 됐어. 어서 일을 시작하는 게 좋을 거야."

모임은 고함과 외침, 그리고 취객들이 부르는 노랫가락이 뒤섞인 가운데 파했다. 술집에는 여전히 흥에 겨운 사람들이 북적였고, 형제들 중 상당수도 그곳에 남았다. 임무를 부여받은 소수의 인원은 눈에 띄지 않도록 두세 명씩 짝을 지어 인도를 따라 거리로 나섰다. 밤공기는 몹시 차가웠고, 별이 총총한 서리 내린 하늘 위로는 반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남자들은 어느 높은 건물과 마주 보고 있는 마당에 멈춰 서서 모였다. 환하게 불을 밝힌 창문들 사이에는 '버미사 헤럴드'라는 글자가 금색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건물 안에서는 인쇄기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봐, 자네." 볼드윈이 맥머도에게 말했다. "자네는 문 아래쪽에 서서 길이 우리를 위해 계속 열려 있는지 지켜보게. 아서 윌러비가 자네 곁에 있어 줄 걸세. 나머지 사람들은 나를 따라오게. 얘들아, 겁먹을 것 없다. 우리가 바로 이 순간 유니언 바에 있다는 걸 증명해 줄 증인이 열두 명이나 있으니까."

자정 가까운 시각이었다. 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한두 명의 흥겨운 행인들을 제외하면 텅 비어 있었다. 일행은 길을 건너 신문사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볼드윈과 부하들은 눈앞에 보이는 계단을 따라 급히 뛰어 올라갔고, 맥머도와 다른 한 명은 아래에 남았다. 곧 위층 방에서 비명과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 들려왔다. 뒤이어 발을 구르는 소

리와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졌다. 잠시 후, 백발이 성성한 남자가 계단참으로 황급히 뛰쳐나왔다.

그는 채 더 나아가지도 못한 채 붙잡혔고, 그가 쓰던 안경은 챙그랑 소리를 내며 맥머도의 발치로 떨어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바닥에 엎드러졌고, 그를 덮친 대여섯 개의 몽둥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그는 몸을 비틀었으나, 매질 아래에서 길고 가느다란 팔다리는 속수무책으로 떨릴 뿐이었다. 마침내 다른 이들은 매질을 멈췄다. 하지만 잔인한 미소를 띤 볼드윈만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팔로 필사적으로 머리를 방어하려는 남자를 향해 계속해서 머리를 내리쳤다. 남자의 흰 머리카락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볼드윈은 희생자 위로 몸을 굽힌 채, 빈틈이 보일 때마다 짧고 악랄한 타격을 가했다. 그때 맥머도가 계단을 뛰어 올라와 그를 밀쳐냈다.

"그러다 사람 잡겠어." 그가 말했다. "당장 그만둬!"

볼드윈은 경악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빌어먹을!" 그가 소리쳤다. "네놈이 뭔데 참견이야? 이제 막 결사대에 들어온 주제에! 물러나!" 볼드윈이 지팡이를 치켜들었으나, 맥머도는 이미 주머니에서 권총을 뽑아 든 상태였다.

"물러서!" 그가 외쳤다.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기만 해 봐, 얼굴을 형체도 없이 날려버릴 테니까! 결사단으로 말하자면, 보디마스터가 그자를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당신은 죽이려 들고 있잖아!"

"그의 말은 사실이야." 남자 중 한 명이 말했다.

"세상에! 서두르는 게 좋을 거요!" 아래층에 있던 남자가 외쳤다. "창문마다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단 말이오. 5분도 안 돼서 마을 사람들이 죄다 몰려올 거요!"

거리에서는 실제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아래층 홀에는 식자공들과 인쇄공들이 무리를 지어 모여들며, 무언가 행동에 나서려는 듯 기세를 높이고 있었다. 범인들은 계단 맨 위쪽에 축 늘어진 채 꼼짝도 않는 편집장의 몸을 남겨둔 채, 계단을 뛰어 내려가 거리로 빠르게 사라졌다. 유니언 하우스에 도착한 범인 중 일부는 맥긴티의 술집에 모여든 군중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그들은 바 너머로 보스에게 이번 일이 아주 완벽하게 처리되었다고 은밀히 속삭였다. 맥머도를 포함한 나머지 일당은 인파를 빠져나와 골목길로 흩어졌고, 구불구불한 길을 거쳐 각자의 집으로 숨어들었다.

제2부 제4장 공포의 계곡

제4장 공포의 계곡

다음 날 아침, 맥머도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이 결사식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숙취 때문에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고, 낙인이 찍힌 팔은 뜨겁게 달아오른 채 부어올라 있었다. 맥머도는 자신만의 특별한 수입원이 있었기에 직장에 규칙적으로 출근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는 늦게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오전 내내 집에 머물며 친구에게 보낼 긴 편지를 썼다.

그 후 그는 데일리 헤럴드지를 읽었다. 마감 직전에 급히 추가된 특별 칼럼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이 적혀 있었다. '헤럴드 편집국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 편집자 중상'. 그것은 사실 관계를 짧게 요약한 기사였으나, 기자가 아는 것보다 맥머도 본인이 그 사건에 대해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다. 기사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을 맺고 있었다.

사건은 이제 경찰의 손에 넘어갔다. 하지만 경찰이 애를 쓴다고 해서 과거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범인 중 일부

는 신원이 확인되었기에, 유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근원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오랫동안 이 지역 사회를 속박해 온 그 악명 높은 결사체다. 우리 헤럴드지는 이들에 맞서 타협 없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스탠저 씨의 수많은 지인은 그가 잔인하고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당장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니라는 소식에 안도할 것이다.

그 아래에는 사무실을 방어하기 위해 윈체스터 소총으로 무장한 경찰 경비대가 요청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맥머도는 신문을 내려놓았다. 그는 전날 밤의 과한 음주 탓에 떨리는 손으로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그때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집주인 여인이 한 소년에게 방금 전달받은 쪽지 하나를 가져왔다. 쪽지에는 서명이 없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댁에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밀러 언덕에 있는 깃대 옆으로 오십시오. 지금 그곳으로 와 주신다면, 당신이 꼭 들어야 할 중요한 내용과 제가 전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맥머도는 무척 놀란 기색으로 쪽지를 두 번이나 다시 읽었다. 쪽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체 누가 썼는지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글씨체가 여자의 것이었다면, 과거의 삶에서 흔히 겪었던 그런 모험 중 하나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글씨는 남자의 것이었으며, 게다가 상당히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의 필체였다. 결국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 일을 끝까지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다.

밀러 힐은 마을 정중앙에 자리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공공 공원이다. 여름이면 사람들이 즐겨 찾는 휴식처가 되지만, 겨울이 되면 황량하기 그지없다. 이곳 정상에 올라서면 제멋대로 뻗어 나간 지저분한 마을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뿐만 아니라 발아래로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계곡도 내려다보인다. 계곡 양옆에는 광산과 공장들이 흩어져 있어 쌓인 눈을 검게 물들이고 있으며, 계곡을 감싸 안은 산맥들은 나무가 우거진 채 흰 눈을 머금고 있다.

맥머도는 상록수 울타리가 늘어선 굽이진 길을 따라 걸었다. 한참을 걷자 여름철 축제의 중심지였으나 지금은 텅 비어버린 식당이 나타났다. 식당 옆에는 깃대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오버코트 깃까지 세운 채였다. 남자가 고개를 돌리자 맥머도는 그가 브라더 모리스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는 바로 전날 밤, 보디마스터의 분노를 샀던 그 사람이었다. 두 사람이 마주치자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는 암호가 오갔다.

"맥머도 씨,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 든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그의 망설이는 말투에서 그가 지금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음이 느껴졌다.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쪽지에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선생. 이런 시기에는 일이 어떻게 되돌아올지 모르는 법이니까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또 누구를 믿지 말아야 할지도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고 말입니다."

"결단코 결사대의 형제들은 믿을 수 있는 법이지요."

"아니요, 아니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모리스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심지어 무슨 생각을 하든, 결국은 모두 그 맥긴티라는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봐!" 맥머도가 엄하게 말했다. "자네도 잘 알다시피, 내가 보디마스터에게 충성을 맹세한 건 바로 어젯밤이었네. 설마 나더러 그 맹세를 어기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모리스가 슬픈 기색으로 말했다. "저를 만나러 오게끔 번거롭게 해드린 점,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 자유로운 시민 둘이 서로의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지 못할 정도라니, 상황이 참으로 나빠졌군요."

맥머도는 동행인을 아주 매섭게 살피고 있었으나, 이내 태도를 조금 누그러뜨렸다.

"물론 제 생각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가 말했다. "아시다시피 전 이곳에 새로 온 사람이라 모든 게 낯섭니다. 모리스 씨, 제가 먼저 입을 열 자격은 없지요. 만약 저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다면 기꺼이 듣겠습니다."

"그걸 다시 보스 맥긴티에게 갖다 바치라는 말이냐!" 모리스가 쓰라린 듯 내뱉었다.

"그건 정말 억울한 말씀입니다!" 맥머도가 외쳤다. "저로 말하자면 지부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를 믿고 털어놓은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옮긴다면, 저는 형편없는 인간일 겁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저에게서 멈출 것입니다. 다만 미리 경고해 두건대, 당신은 제게서 도움도 동정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찾는 일은 이제 포기했습니다." 모리스가 말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때문에 제 목숨을 당신 손에 맡기는 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해도—어젯밤 제가 보기엔 당신이 최악의 악당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적어도 이 일에는 아직 초보 아닙니까. 당신의 양심은 저들처럼 완전히 굳어버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말을 걸기로 결심한 겁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을 하겠나?"

"나를 밀고한다면, 네놈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다!"

"물론입니다.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당신이 시카고에서 프리먼 협회에 가입해 자선과 충성을 맹세했을 때, 그 선택이 결국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단 한 번이라도 머릿속을 스친 적이 있습니까?"

"그걸 범죄라고 부른다면, 그렇게 부르셔도 좋습니다." 맥머도가 대답했다.

"그걸 범죄라고 부르겠나!" 모리스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범죄가 아니라면 대체 뭐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인가? 자네는 범죄라는 게 어떤 건지 제대로 알지도 못해. 어젯밤 일은 어땠나? 자네 아버지뻘이나 되는 노인이 하얀 머리카락에서 피가 뚝뚝 떨어질 때까지 두들겨 맞았네. 그것도 범죄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이라 불러야 한단 말인가?"

"어떤 이들은 이것을 전쟁이라고 부를 겁니다." 맥머도가 말했다. "두 계급이 모든 것을 걸고 맞붙은 전쟁 말입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로 서로를 공격했으니까요."

"글쎄요, 시카고에서 프리먼 협회에 가입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겠군요?"

"아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그 조직에 가입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소. 그저 서로 돕는 친목회이자 동료들이 모이는 장소일 뿐이었지. 그러다 이곳에 대한 소문을 들었소. 그 이름을 처음 들었던 그 시간을 저주하오! 나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곳에 왔단 말이오! 세상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였단 말이오! 아내와 세 아이도 함께 왔소. 마켓 광장에 포목점을 차렸고, 사업도 아주 잘 되었지. 내가 '프리먼(Freeman)'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당신이 어젯밤 그랬던 것처럼 나도 지역 지부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소. 내 팔뚝에는 수치스러운 낙인이 찍혔고, 내 심장에는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이 새겨졌소. 알고 보니 나는 사악한 악당의 명령을 받는 처지였고, 범죄의 거미줄에 걸려든 신세였던 거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소? 상황을 바로잡으려 내뱉은 말들은 어젯밤처럼 모두 반역으

로 몰렸단 말이오. 도망칠 수도 없소. 내 전 재산이 가게에 다 들어있으니까. 만약 내가 이 조직을 탈퇴한다면, 내 목숨은 끝이라는 걸 잘 알고 있소. 내 아내와 아이들은 또 어떻게 될지 신만이 아시겠지. 오, 이보시오, 정말 끔찍하오. 너무나 끔찍하단 말이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고, 몸은 격한 흐느낌과 함께 떨려왔다.

맥머도가 어깨를 으쓱했다. "자네는 이 일에 하기엔 너무 무른 사람이야." 그가 말했다. "이런 일에는 자네 같은 부류는 맞지 않아."

"내게도 양심이 있었고 종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범죄자로 만들었지요. 나는 어떤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물러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겁쟁이일지도 모릅니다. 가련한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면 정말 겁쟁이가 맞을지도 모르지요. 어찌 됐든 나는 그 길을 갔습니다. 아마 그 기억은 평생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 집은 여기서 저 너머 산맥을 넘어 20마일쯤 떨어진 곳에 있는 외딴집이었습니다. 어젯밤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문지기 역할을 맡게 되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저에게 그 일을 맡기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먼저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손목까지 온통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발길을 돌리던 순간, 뒤편 집 안에서 아이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다섯 살짜리 남자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끔찍한 광경에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웃는 얼굴

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피칠갑을 한 그들이 다음번에는 피 묻은 손을 들고 제 집으로 들이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제 어린 아들 프레드가 아버지를 부르며 울부짖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범죄자였습니다. 살인 사건에 가담한 공범이었지요. 이 세상에서도 영원히 길을 잃었고, 저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하지만 내가 스카우러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신부님은 내게 말 한마디 섞으려 하지 않았고, 결국 나는 신앙으로부터 파문당하고 말았습니다. 내 처지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게 보여서 묻는 겁니다. 그 끝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당신도 냉혈한 살인자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막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소?" 맥머도가 갑작스럽게 물었다. "알리지 않을 셈인가?"

"맙소사, 그런 일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모리스가 외쳤다. "정말이지, 상상만 해도 목숨을 잃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 맥머도가 말했다. "내 생각에 당신은 나약한 사람이야. 이 문제를 너무 크게 부풀리고 있어."

"지나치다니요! 여기서 좀 더 살아보십시오. 저 계곡 아래를 내려다보란 말입니다! 계곡을 뒤덮고 있는 저 수백 개의 굴뚝 연기를 보십시오! 내 말 잘 들으시오. 저 연기보다 훨씬 더 짙고 무거운 살육의 구름

이 사람들의 머리 위를 짓누르고 있단 말이오. 이곳은 공포의 계곡이자 죽음의 계곡입니다. 사람들은 해가 질 때부터 동이 틀 때까지 온종일 공포에 떨며 살고 있단 말입니다. 젊은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오. 그러면 직접 깨닫게 될 테니까."

"글쎄, 좀 더 지켜본 다음에 내 생각을 말해주지." 맥머도가 무심하게 말했다. "한 가지 아주 분명한 건, 당신은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는 게 좋을 거요. 물론 당신이 하려는 사업의 가치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다면 말이지. 당신이 한 말은 나만 알고 있을 테니 걱정 마시오. 하지만 맹세컨대, 만약 당신이 밀고자라고 의심되는 순간에는—"

"안 돼, 안 돼!" 모리스가 애처롭게 비명을 질렀다.

"뭐,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둡시다. 당신이 한 말은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꺼낼 날이 올지도 모르겠군요.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준 건 다 나를 생각해서 한 말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럼, 이만 집으로 가봐야겠습니다."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해두겠네." 모리스가 말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걸 누군가 봤을지도 모르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으니 말이야."

"아, 아주 훌륭한 생각이군요."

"우리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해보지 않겠나?"

"거절하겠습니다. 그건 우리 일이니까요. 그럼 이만 작별을 고하죠, 모리스 형제님. 앞으로는 일이 좀 더 잘 풀리길 빌겠습니다."

그날 오후, 맥머도는 거실 난로 옆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보스 맥긴티의 거대한 체구가 문틀을 가득 채웠다. 그는 비밀결사의 신호를 보낸 뒤 젊은이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고는 한동안 맥머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맥머도 역시 피하지 않고 그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다.

"맥머도 형제, 나는 남을 찾아다니는 성격이 못 되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상대하느라 너무 바쁜 탓이겠지. 그래도 이번에는 마음을 내어 자네 집까지 직접 찾아오기로 했네."

"의원님을 여기서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맥머도가 찬사를 보내며 찬장에서 위스키 병을 꺼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영광이군요."

"팔은 좀 어때?" 보스가 물었다.

맥머도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글쎄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니까요."

"그렇지,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어." 상대방이 대답했다. "충성심을 갖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우리 지회에 도움이 되는 이들이라면 말이야. 그런데 오늘 아침 밀러 언덕에서 모리스 형제와 무슨 이야기를 나눈 건가?"

질문이 워낙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덕분에, 미리 답을 준비해 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모리스는 내가 이곳 고향에서 먹고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앞으로도 모를 겁니다. 그 사람은 나 같은 놈을 상대하기엔 양심이 너무나도 곧은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참 마음씨 좋은 노신사예요. 내가 딱히 할 일 없이 떠도는 처지라고 생각했는지, 잡화점 점원 자리라도 제안하면 내게 큰 도움이 될 거라며 호의를 베풀어 주었죠."

"아, 그거였나요?"

"네,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거절했다는 말입니까?"

"물론이죠. 제 방에서 네 시간만 일해도 지금보다 열 배는 더 벌 수 있는걸요?"

"맞아. 하지만 나라면 모리스와 너무 어울려 다니지는 않겠네."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글쎄,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하니 그런 거지. 이 근방 사람들 대부분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긴다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제게는 충분치 않습니다." 맥머도가 당당하게 말했다. "의원

님이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으시다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거무스름한 거구의 사내가 그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그러더니 마치 동행의 머리를 향해 잔을 내던지기라도 할 듯, 털이 숭숭 난 커다란 손으로 잔을 덥석 움켜쥐었다. 그러고는 이내 특유의 크고 요란하면서도 가식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자네는 참으로 묘한 사람이군." 그가 말했다. "좋아, 이유를 알고 싶다면 말해주지. 모리스가 우리 지회를 두고 자네에게 안 좋은 말이라도 하지 않던가?"

"아니오."

"나를 향한 것도 아니란 말인가?"

"아니오."

"그건 그자가 당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충성스러운 형제도 아니지. 우리 모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자를 지켜보며 훈계할 때를 기다리는 중이라네. 내 생각엔 그 시기가 머지않은 것 같군. 우리 우리 안에는 털이 빠진 병든 양이 머물 자리는 없으니까.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저 불충한 자와 계속 어울린다면, 우리도 당신 역시 불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 무슨 뜻인지 알겠나?"

"그와 어울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자가 싫거든요." 맥머도가 대답했다. "충성심을 저버린다는 말에 대해서라면,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는 감히 내게 그 말을 두 번이나 입에 올리지도 못했을 겁니다."

"자, 이 정도면 됐어." 맥긴티가 잔에 남은 술을 단숨에 비우며 말했다. "때가 되었을 때 한마디 해 주러 내려온 건데, 이제 할 말은 다 했으니 그만하지."

"도대체 어떻게 내가 모리스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지, 그게 정말 궁금하군." 맥머도가 말했다.

맥긴티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두는 건 내 일이야." 그가 말했다.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듣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거다. 자, 시간 다 됐으니, 이 말만 하지."

하지만 작별 인사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중단되었다. 갑자기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벌컥 열리더니, 경찰모 챙 아래로 험악하고 진지한 얼굴 세 개가 그들을 쏘아보며 나타났다. 맥머도가 벌떡 일어나며 권총을 반쯤 뽑아 들었으나, 이내 동작을 멈추고 말았다. 두 자루의 윈체스터 소총이 자신의 머리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제복을 입은 한 남자가 권총을 손에 든 채 방 안으로 들어왔다. 한때 시카고에서 근무했으나 지금은 광산 경비대를 맡고 있는 마빈 대위였다. 그는 맥머도를 향해 옅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저었다.

"시카고의 악명 높은 맥머도 씨, 당신이 결국 사고를 칠 줄 알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도무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는 못 배기는 성미인가 보군요? 자, 모자 챙겨 쓰고 우리와 함께 갑시다."

"이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거다, 마빈 대위." 맥긴티가 말했다. "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이런 식으로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법을 잘 지키며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요?"

"맥긴티 의원, 당신은 이번 일에선 빠져 있는 거요." 경찰 대위가 말했다. "우리가 쫓는 건 당신이 아니라 맥머도라는 자요. 당신은 우리를 방해할 게 아니라, 우리의 임무를 도와야 할 처지란 말이오."

"그는 내 친구라네. 그의 행동은 내가 책임지겠네." 보스가 말했다.

"맥긴티 씨, 조만간 당신도 당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거요." 대위가 대답했다. "이 맥머도라는 자는 이곳에 오기 전부터 사기꾼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사기꾼이야. 순경, 내가 이 자의 무기를 해제하는 동안 뒤를 지키게."

"제 권총은 저기 있습니다." 맥머도가 태연하게 말했다. "마빈 대위님, 만약 우리 둘만 남아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다면, 당신이 저를 이렇게 쉽게 제압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영장 어디 있어?" 맥긴티가 물었다. "세상에나! 당신 같은 자들이 경찰을 휘두르고 있다면, 버미사 계곡에서 사느니 차라리 러시아에서 사는 게 낫겠군. 이건 자본가들의 만행이야. 앞으로 더 큰 소동이 일어날 거라고 내 장담하지."

"의원님께서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의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십시오. 저희는 저희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맥머도가 물었다.

"헤럴드 신문사에서 스탠저 편집장을 구타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말이야. 살인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건 자네 잘못이 아니네."

"글쎄, 그게 그놈에 대해 당신이 가진 전부라면," 맥긴티가 웃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게 당신 신상에 좋을 거요. 이 친구는 자정까지 내 술집에서 나랑 같이 포커를 치고 있었으니까. 증인으로 내세울 사람만 열두 명은 넘게 데려올 수 있단 말이오."

"그건 당신 사정이지요. 내 생각엔 내일 법정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동안 맥머도, 어서 따라오시오. 머리에 총구가 겨눠지는 게 싫다면 순순히 움직이는 게 좋을 거요. 맥긴티 씨, 당신도 비켜서시오. 경고하는데, 나는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어떤 저항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오!"

대위의 태도가 워낙 단호했기에, 맥머도와 그의 상사 모두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상사는 헤어지기 전, 죄수에게 몇 마디 낮은 목소리로 은밀히 말을 건넸다.

"그건 어떻게—" 그는 엄지손가락을 위로 치켜세우며 위조지폐 제조 공장을 가리켰다.

"알았어." 바닥 아래에 안전한 은신처를 마련해 둔 맥머도가 나직이 속삭였다.

"이만 작별 인사를 하지." 보스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내가 직접 변호사 라일리 씨를 만나서 변호를 맡도록 하겠네. 내 말을 믿게나. 그들이 자네를 구금해 두지는 못할 테니까."

"그렇게 장담할 순 없겠군. 자네들 둘이 죄수를 잘 감시하게. 만약 수작을 부리려 들면 즉시 사살해 버려. 난 떠나기 전에 집 안을 한 번 더 수색하겠네."

그는 그렇게 했으나, 숨겨둔 위조 설비의 흔적은 찾지 못한 듯했다. 그는 내려온 뒤 부하들을 거느리고 맥머도를 본부로 호송했다. 어느덧 어둠이 내렸고 매서운 눈보라까지 몰아쳐 거리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몇몇 부랑자들이 일행의 뒤를 쫓아왔고, 어둠에 몸을 숨긴 채 죄수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저 저주받을 스카우러 놈을 교수형에 처해라!" 사람들이 소리쳤다. "끌어내서 죽여버려!" 그가 경찰서 안으로 떠밀려 들어갈 때, 사람들은 비웃음과 야유를 퍼부었다. 담당 경위가 형식적인 조사를 마친 뒤, 그는 독방에 수감되었다. 그곳에는 어젯밤 체포된 볼드윈과 다른 범죄자 세 명이 이미 있었다. 그들 모두 그날 오후에 붙잡혀 다음 날 아침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견고한 성벽 안조차도 자유인들의 긴 손길은 미치고 말았다. 늦은 밤, 잠자리에 깔 짚 뭉치를 든 간수가 찾아왔다. 그는

짚 뭉치 속에서 위스키 두 병과 유리잔 몇 개, 그리고 카드 한 벌을 꺼내 놓았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에 닥칠 시련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은 채, 유쾌한 밤을 보냈다.

그들에게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다. 결과가 증명하듯 말이다.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치안판사가 그들을 상급 법원으로 넘기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한편으로 식자공과 인쇄공들은 당시 조명이 불확실했고 자신들도 매우 당황한 상태였기에, 습격자의 신원을 확언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피고인들이 그들 중에 있었다고 믿고는 있었지만 말이다. 맥긴티 측에서 고용한 영리한 변호사가 반대 심문을 시작하자, 그들의 증언은 더욱 모호해졌다.

부상을 입은 남자는 이미 진술을 마친 상태였다. 그는 습격이 너무나 갑작스러워 당황한 나머지, 자신을 처음 내리친 남자가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습격자들이 스카우러스라고 확신했다. 그 지역 공동체에서 자신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평소 자신의 거침없는 사설 때문에 오랫동안 협박을 받아오기도 했다.

반면, 고위 시 공직자인 시의원 맥긴티를 포함한 여섯 명의 시민은 한결같이 단호한 증언을 내놓았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시각보다 훨씬 더 늦은 시간까지 그들은 유니언 하우스에서 카드 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했다.

말할 것도 없이, 법정은 그들이 겪은 불편에 대해 사과에 가까운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지나치게 의욕만 앞세웠던 마빈 대령과 경찰의 태도에 대해서도 암묵적인 질책을 가했다.

평결이 내려지자 법정은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맥머도의 눈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많이 보였다. 결사 조직의 형제들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피고석에서 걸어 나올 때,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침울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인, 체구가 작고 검은 수염을 기른 결연한 인상의 사내가 전과자들이 곁을 지나갈 때 자신과 동료들의 심경을 대신하여 말을 내뱉었다.

"이 빌어먹을 살인마 놈들!" 그가 외쳤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제2부 제5장 가장 어두운 시간

제5장 가장 어두운 시간

잭 맥머도가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는 데 더 이상의 자극제가 필요했다면, 아마도 그가 체포되었다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다. 결사대에 가입한 바로 그날 밤, 어떤 남자가 사고를 쳐서 치안판사 앞에 서게 된 것은 이 조직의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다. 그는 이미 흥을 돋우는 좋은 술친구이자 유쾌한 파티광이라는 평판을 얻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보스라 할지라도 모욕을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미를 가진 사내로 통했다.

하지만 동료들에게 그가 남긴 인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들 중 누구보다도 잔혹한 계획을 짜는 데 능숙하며,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수완 또한 누구보다 뛰어난 인물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조직의 원로들은 "뒷수습이 깔끔한 일에는 저 친구가 제격이지"라며 서로 수군거렸고, 그를 실전에 투입할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맥긴티는 이미 충분한 수하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새로 들어온 이 남자가 대단히 유능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는 마치 사나운 사냥개를 목줄에 쥐고 있는 기분을 느꼈다. 잔심부름이나 할 잡개들은 얼마든지 있었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이 맹수를 먹잇감에게 풀어놓으리라, 맥긴티는 다짐했다. 결사 조직의 회원 중 몇몇은 테드 볼드윈을 포함해 이 낯선 남자의 급격한 승세를 시기하며 그를 증오했다. 하지만 그들은 남자의 곁을 맴돌지 않았다. 그는 웃음만큼이나 주먹을 휘두르는 데도 거침없는 사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료들의 신망을 얻었다 해도, 그에게는 훨씬 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었다. 바로 그 신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또 다른 관계였다. 에티 셰프터의 아버지는 그와 더 이상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가 집 안으로 발을 들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에티 본인은 그를 완전히 포기하기에는 사랑이 너무나 깊었지만, 범죄자로 낙인찍힌 남자와 결혼했을 때 닥쳐올 앞날이 어떠할지 스스로의 이성은 경고하고 있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어느 날 아침, 그녀는 그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만남이었다. 그를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저 사악한 영향력으로부터 그를 구해내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해 애써보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녀는 그가 여러 번 간곡히 부탁했던 대로 그의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가 거실로 쓰는 방 안으로 발을 들였다. 그는 탁자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그때 열아홉 살 소녀다운 장난기가 문득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문을 밀고 들어올 때까지 그가 인기척을 느끼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레 다가가, 굽히고 있는 그의 어깨 위에 손을 살며시 얹었다.

그녀가 그를 놀라게 하려 했다면, 그 목적은 확실히 달성되었다. 하지만 정작 놀란 쪽은 그녀 자신이었다. 그는 호랑이가 덮치듯 순식간에 몸을 돌려 그녀에게 달려들었고, 오른손으로는 그녀의 목을 움켜쥐려 했다. 동시에 왼손으로는 눈앞에 놓인 종이를 구겨버렸다. 그는 잠시 동안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러다 이내 그의 얼굴을 뒤덮었던 흉포함은 경악과 기쁨으로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 그를 지배했던 그 흉포함은, 온화한 삶을 살아온 그녀가 생전 처음 마주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게 만들 만큼 압도적인 것이었다.

"당신이었군!" 그는 이마의 땀을 닦으며 말했다. "내 심장과도 같은 당신이 나를 찾아와 주었거늘, 정작 내가 한 일이라곤 당신을 목 졸라 죽이려 든 것뿐이라니! 자, 이리 와요, 내 사랑." 그는 팔을 벌려 내밀며 덧붙였다. "내가 사과하게 해줘요."

하지만 그녀는 남자의 얼굴에서 읽어낸 그 갑작스러운 죄책감 섞인 공포를 떨쳐낼 수 없었다. 여성으로서의 직감이 그녀에게 속삭였다. 그것은 단순히 깜짝 놀란 사람의 두려움이 아니었다. 죄책감, 바로 그것이었다. 죄책감과 공포가 뒤섞인 얼굴이었다.

"잭, 대체 왜 그래?" 그녀가 외쳤다. "왜 나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오, 잭, 당신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을 거야!"

"물론이지, 다른 생각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그러다 자네가 그 요정 같은 발걸음으로 가볍게 다가오는 바람에—"

"아니야, 아니야.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어, 잭." 그러더니 그녀는 갑자기 무언가 의심스러운 기색을 보이며 말했다. "당신이 쓰고 있던 그 편지 좀 보여줘 봐요."

"아, 에티, 난 그럴 수 없어."

그녀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다른 여자에게 쓰는 편지죠!" 그녀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분명해요! 그렇지 않고서야 왜 저한테 숨기시는 건가요? 아내에게 쓰는 편지인가요? 당신이 유부남인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낯선 사람인 당신을 말이에요!"

"난 결혼하지 않았어, 에티. 봐, 지금 맹세할게! 내게 세상에 단 한 명뿐인 여자는 당신뿐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걸고 맹세하겠어!"

그의 얼굴은 열정적인 진심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모습에 그녀는 그를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녀가 외쳤다. "왜 그 편지를 보여주지 않는 거죠?"

"말해주겠네, 내 사랑(acushla)," 그가 말했다. "맹세를 했기에 함부로 보여줄 수는 없네. 자네에게 약속을 어기지 않듯, 내 약속을 지켜야 할 사람들에게도 결코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걸세. 이건 우리 결사

체의 일이라서 자네에게조차 비밀이라네.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을 때 내가 겁을 먹었다면, 그 손이 형사였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을 자네도 이해해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녀는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입을 맞추며,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던 두려움과 의구심을 달래주었다.

"그럼 여기 내 곁에 앉으시오. 여왕님께는 참으로 기묘한 왕좌라 할 수 있겠지만, 불쌍한 연인이 찾아낼 수 있는 최선의 자리라오. 조만간 그가 당신을 위해 더 나은 처지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거라 믿소.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는 모양이구려, 안 그렇소?"

"어떻게 마음을 놓을 수 있겠어, 잭. 자네가 범죄자들 사이에서도 악명 높은 범죄자라는 걸 내가 아는데. 자네가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는 소식을 언제 듣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야. 어제는 우리 집에 머무는 하숙생 중 한 명이 자네를 '스카우러스의 맥머도'라고 부르더군. 그 말이 마치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어."

"물론이지, 거친 말이라고 해서 뼈가 부러지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그건 사실이었는걸."

"글쎄요, 여보. 생각만큼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우리만의 방식으로 권리를 찾으려 애쓰는 가난한 사람들일 뿐이라오."

에티는 연인의 목을 두 팔로 감싸 안았다. "그만둬, 잭! 제발, 나를 위해서, 아니 신을 위해서라도 그만둬! 오늘 내가 여기 온 것도 바로 그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어. 오, 잭, 제발 봐줘. 무릎 꿇고 빌게! 당신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간청할 테니, 제발 그만둬!"

[삽화: "오, 잭, 제발 부탁이야. 그만둬!"]

그는 그녀를 품에 안아 올린 뒤, 자신의 가슴에 그녀의 머리를 기대게 하고는 달래주었다.

"그래, 내 사랑, 당신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내가 맹세를 어기고 동료들을 저버리면서까지 그걸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 지금 내 처지가 어떤지 당신이 직접 본다면, 절대로 그런 부탁은 못 할 거야. 게다가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겠어? 우리 결사체가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그냥 곱게 보내줄 리 없잖아."

"그 생각은 이미 해봤어, 잭. 전부 계획해 두었지. 아버지가 돈을 좀 모아두셨거든. 그 사람들의 공포가 우리 삶을 짓누르는 이곳에 아버지는 이제 진저리가 나셨어. 떠날 준비도 다 되셨고. 우리는 함께 필라델피아나 뉴욕으로 도망칠 거야. 그곳이라면 그들에게서 벗어나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테니까."

맥머도가 웃음을 터뜨렸다. "지부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길다네. 그 힘이 여기서 필라델피아나 뉴욕까지 뻗어 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나?"

"그래, 어디든 좋아. 서쪽이든, 영국이든, 아니면 아버지가 오셨던 독일이든! 이 공포의 계곡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어디라도 가겠어!"

맥머도는 옛날의 모리스 형제를 떠올렸다. “확실히, 이 계곡을 그렇게 부르는 건 이번이 두 번째군.” 그가 말했다. “정말로, 당신들 중 몇몇은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소.”

“그 일은 우리 삶의 매 순간을 어둠으로 물들이고 있소. 테드 볼드윈이 과연 우리를 용서했을 거라고 생각하오? 그자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남아 있었겠소? 그 검고 굶주린 눈동자가 나를 향할 때, 그 눈빛이 어떤지 당신이 직접 봤어야 했소!”

“세상에! 그놈이 그러고 있는 걸 붙잡기만 하면, 예의범절이 뭔지 아주 뼈저리게 가르쳐 주겠어! 하지만 얘야, 잘 듣거라. 난 여기서 떠날 수 없단다.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 제발 내게서 그 선택지를 영영 뺏어가지 말아다오. 대신 나를 혼자 내버려 두어 길을 찾게 해준다면, 어떻게든 명예롭게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찾아보마.”

“그런 일에는 명예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보느냐에 달린 문제겠지요. 하지만 제게 6개월만 시간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며 떠날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게 제 할 일을 해내겠습니다.”

소녀는 기뻐서 웃음을 터뜨렸다. "6개월이라고요!" 그녀가 외쳤다. "정말 약속하신 건가요?"

“글쎄, 일곱이든 여덟이든 상관없겠지. 하지만 늦어도 일 년 안에는 반드시 이 계곡을 떠나게 될 거야.”

에티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래도 무엇인가를 얻은 셈이었다. 눈앞에 놓인 암담한 미래를 비춰줄 희미한 빛이 생긴 것이다. 에티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잭 맥머도가 그녀의 삶에 나타난 이후, 이토록 마음이 놓인 적은 없었다.

조직의 일원이 되면 그 단체의 모든 활동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맥머도는 곧 이 조직이 단순한 지부보다 훨씬 더 넓고 복잡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거물인 맥긴티 보스조차 모르는 일이 허다했다. 노선 아래쪽 홉슨스 패치에 거주하는 '카운티 대리인'이라는 직책의 관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여러 지부에 걸쳐 권한을 행사했는데, 그 방식은 매우 갑작스럽고도 독단적이었다.

맥머도가 그를 직접 본 것은 단 한 번뿐이었다. 그는 회색 머리에 교활하고 작은 쥐 같은 사내였다. 살금살금 걷는 걸음걸이에, 악의가 가득 담긴 눈길로 곁눈질을 해대는 자였다. 그의 이름은 에반스 포트였다. 버미사 계곡의 위대한 보스조차 그를 대할 때면 묘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느꼈다. 마치 거구의 당통이 왜소하지만 위험한 로베스피에르를 보며 느꼈을 법한 그런 감정이었다.

어느 날, 맥머도와 함께 하숙하던 스캔런에게 맥긴티가 보낸 쪽지 한 통이 전달되었다. 그 안에는 에반스 포트가 쓴 또 다른 쪽지가 들어 있었다. 에반스 포트는 이 쪽지를 통해 로울러와 앤드루스라는 유능한 두 사람을 보내겠다고 알렸다. 이들은 인근 지역에서 활동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 다만 조직의 대의를 위해, 이들이 무엇을 하러 오는

지 구체적인 목적은 밝히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디마스터(Bodymaster)가 행동을 개시할 때까지 두 사람이 머물 숙소와 편의를 적절히 마련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맥긴티는 유니언 하우스에서는 누구도 비밀을 유지하며 머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맥머도와 스캔런이 자신들의 하숙집에 이 낯선 이들을 며칠간 머물게 해 준다면 정말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그날 저녁, 두 남자가 각자 짐가방을 하나씩 들고 도착했다. 로울러는 노인이었는데, 영리하고 과묵하며 자기 관리가 철저한 인상이었다. 낡은 검은색 프록코트를 입고 부드러운 펠트 모자를 쓴 데다, 희끗희끗하고 거친 수염까지 기르고 있어 언뜻 보면 떠돌이 설교사처럼 보였다. 그의 동행인 앤드루스는 소년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젊었다. 그는 솔직해 보이는 얼굴에 쾌활한 인상이었으며, 마치 휴가를 나와 매 순간을 즐기려는 사람처럼 경쾌한 태도를 보였다. 두 사람 모두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모든 면에서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처럼 행동했다. 다만 그들이 이 살인 결사체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유능한 도구임이 증명된, 살인청부업자라는 단 하나의 예외를 제외한다면 말이다. 로울러는 이미 열네 차례의 암살 임무를 완수했고, 앤드루스는 세 차례를 수행했다.

맥머도가 확인했듯이, 그들은 과거에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는 기꺼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은 마치 공동체를 위해 선하고 이타적인 봉사를 해온 사람들이 느끼는 특유의, 수줍으면서도 뿌듯한 자부심을 담아 당시의 일을 회상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우리를 뽑은 건 나나 여기 있는 이 애가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울러가 설명했다. "우리가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을 거라는 걸 그들도 믿는 거죠.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카운티 대리인의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물론이지, 우린 모두 한배를 탄 사이니까."

저녁 식사를 위해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맥머도의 동료인 스캔런이 말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네. 찰리 윌리엄스나 사이먼 버드가 살해당한 사건, 혹은 과거에 벌어진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밤새도록 떠들 수 있겠지. 하지만 일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입을 굳게 다물어야 하네."

"이 근처에 내가 한마디 해줘야 할 놈들이 대여섯 명은 더 있군." 맥머도가 욕설을 내뱉으며 말했다. "당신들이 쫓는 게 아이언힐의 잭 녹스는 아닐 테지. 하지만 그놈이 자기가 저지른 죗값만큼 대가를 치르는 꼴을 보고 싶다면, 나라도 기꺼이 그 길을 따르겠어."

"아니, 아직 그가 아니야."

"아니면 헤르만 슈트라우스인가요?"

"아니요, 그 사람도 아닙니다."

"말하기 싫으시다면 억지로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군요."

로울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결코 말려들지 않을 기세였다.

손님들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음에도, 스캔런과 맥머도는 이른바 '즐거운 일'이라는 것에 반드시 끼어들 작정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른 새벽, 맥머도는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를 듣고 스캔런을 깨웠다. 두 사람은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다. 옷을 다 입고 보니 다른 사람들은 이미 몰래 빠져나간 뒤였고, 뒷문은 열려 있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으나, 등불 빛에 의지해 거리 저편으로 멀어져 가는 두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두 사람은 깊게 쌓인 눈을 밟으며 소리 죽여 조심스럽게 그들의 뒤를 쫓았다.

하숙집은 마을 변두리에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마을 경계를 벗어난 교차로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세 명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고, 로울러와 앤드루스는 그들과 짧지만 열띤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고는 모두 함께 길을 떠났다. 인원이 여럿 필요한 걸 보니, 분명 보통 일이 아닌 모양이었다.

그 지점에서는 여러 갈래의 길이 각기 다른 광산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낯선 이들은 크로우 힐로 향하는 길을 택했다. 그곳은 거대한 규모의 사업장이었으며, 아주 강력한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곳은 공포가 지배하던 긴 세월 속에서도, 에너지가 넘치고 두려움을 모르는 뉴

잉글랜드 출신 관리자, 조사이어 H. 던 덕분에 어느 정도 질서와 규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검게 그을린 길을 따라 인부들이 한 명씩, 혹은 무리를 지어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맥머도와 스캔란은 일행과 함께 걸음을 옮기며, 뒤따르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살폈다. 자욱한 안개가 그들을 뒤덮고 있었는데, 안개 한가운데서 갑자기 증기 휘슬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채굴용 케이지가 내려가고 하루의 노동이 시작되기 전, 10분 전을 알리는 신호였다.

광산 수직갱도 주변의 빈터에 도착했을 때, 광부 백여 명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날씨가 몹시 추웠기에 광부들은 발을 구르거나 손가락을 입에 대고 바람을 불며 추위를 견디고 있었다. 낯선 이들은 기관실 그림자 아래에 모여 섰다. 스캔랜과 맥머도는 광산 폐기물이 쌓인 언덕 위로 올라갔다. 그곳에 서니 눈앞에 광산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때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거구의 스코틀랜드인 광산 기술자 멘지스가 기관실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채굴용 승강기를 내리라고 호각을 불었다.

그와 동시에, 깔끔하게 면도한 진지한 인상의 키 크고 호리호리한 청년이 채굴장 입구를 향해 급히 다가왔다. 청년이 다가오자, 기관실 아래에서 미동도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무리가 눈에 들어왔다. 남자들은 얼굴을 가리려고 모자를 눌러쓰고 깃을 세운 상태였다. 순간, 매니저는 죽음의 예감이 엄습하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하지만 이내 그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리고, 불쑥 나타난 낯선 이들을 대해야 한다는 책임감만을 떠올렸다.

"누구냐?" 그가 다가오며 물었다. "거기서 왜 서성거리고 있는 거지?"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대신 앤드루스라는 청년이 앞으로 나서더니 그의 복부에 총을 쏘았다. 기다리고 있던 백여 명의 광부들은 마치 마비라도 된 듯, 미동도 하지 못한 채 무력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지배인은 두 손으로 상처를 움켜쥐며 몸을 웅크렸다. 그러고는 비틀거리며 멀어지려 했으나, 다른 암살자가 다시 총을 쏘았다. 그는 옆으로 쓰러지더니, 돌무더기 사이에서 발버둥 치며 손톱으로 바닥을 긁어댔다. 그 광경을 본 스코틀랜드인 멘지스가 분노에 찬 포효를 내지르며 쇠스패너를 들고 살인범들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는 얼굴에 두 발의 총탄을 맞았고, 살인범들의 발치에 즉사하며 쓰러졌다.

광부 몇몇이 앞으로 달려 나오며 동정심과 분노가 뒤섞인 비명을 내질렀다. 하지만 낯선 이들 중 두 명이 군중의 머리 위로 리볼버를 난사하자,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중 일부는 버미사 계곡에 있는 집을 향해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용감한 이들이 몇몇 모여 다시 광산으로 돌아갔을 때, 살인 집단은 이미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백여 명의 구경꾼 앞에서 이토록 잔혹한 이중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증언할 수 있는 목격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스캔런과 맥머도는 발길을 돌려 돌아갔다. 스캔런은 다소 의기소침한 모습이었다. 살인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그 광경은 그가 전해 들었던 것만큼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마을로 서둘러 향하는 두 사람의 뒤로, 죽은 지배인의 아내가 내지르는 처절한 비명이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맥머도는 생각에 잠긴 듯 침묵을 지켰으나, 기가 죽은 동료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분명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가 다시 한번 강조했다. "우리와 그들 사이의 전쟁이죠.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맞서 싸울 뿐입니다."

그날 밤 유니언 하우스의 회합실은 축제 분위기로 들끓었다. 크로우힐 광산의 매니저와 엔지니어를 살해한 사건 때문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광산은 이 지역의 다른 회사들처럼 스카우러스의 협박과 공포에 떨며 굴복하게 될 것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일궈낸 먼 곳의 승전보를 축하하며 더욱 흥분해 있었다.

카운티 대표가 버미사에서 한 방 먹이기 위해 건실한 사내 다섯 명을 보냈을 때, 그 대가로 버미사 측에서도 세 명을 비밀리에 선발해 길머턴으로 보내라고 요구한 모양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스테이크 로열의 윌리엄 헤일스였다. 그는 길머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광산 소유주 중 한 명이었으며, 세상에 적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 믿어질 만큼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고용주였다. 하지만 헤일스는 업무의 효율성을 철저히 따졌고, 그 과정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비밀 결사 조직의 구성원이자 술에 취해 게으름을 피우던 직원 몇 명을 해고했

다. 문 앞에 걸린 관 모양의 사망 예고장도 그의 결심을 꺾지는 못했다. 결국 자유롭고 문명화된 국가에서,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처지가 되고 말았다.

처형은 마침내 계획대로 집행되었다. 보디마스터 옆 상석에 몸을 뉘인 테드 볼드윈은 이번 일의 주동자였다. 달아오른 얼굴과 충혈된 채 흐릿해진 그의 눈은 밤새 잠을 자지 못한 데다 술까지 들이켰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는 동료 두 명과 함께 전날 밤을 산속에서 보냈다. 그들의 모습은 헝클어지고 비바람에 찌들어 있었다. 하지만 절망적인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영웅이라 한들, 동료들에게 이보다 더 뜨거운 환영을 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환호성과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그 이야기는 몇 번이고 되풀이되어 전해졌다. 사람들은 해 질 녘 그가 집으로 향하는 길목,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다. 그곳은 말이 걸음걸이로 느릿느릿 올라와야만 하는 지점이었다. 그는 추위를 피하려 털옷을 겹겹이 껴입은 탓에 권총에 손을 댈 수조차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끌어내린 뒤 몇 번이고 총을 쏘아댔다. 그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다. 그 비명은 숙소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 반복해서 울려 퍼졌다.

"그놈이 어떻게 비명을 질러댔는지 다시 한번 들려달라!" 그들이 외쳤다.

그들 중 누구도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살인에는 언제나 변치 않는 극적인 면이 있는 법이며, 그 사건은 길머턴의 스카

우러스 일당에게 버미사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직한 존재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한 차례 소동이 있긴 했다. 한 부부가 마차를 몰고 왔는데, 하필 그들이 정적에 잠긴 시신을 향해 권총을 퍼붓고 있던 중이었다. 두 사람 모두 사살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들은 광산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무해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더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즉시 마차를 몰고 떠나 입을 다물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결국 피로 얼룩진 시신은 무정한 고용주들에게 경고를 남기는 표식으로 그 자리에 남겨졌다. 세 명의 고결한 복수자들은 산속으로 서둘러 몸을 숨겼다. 그곳은 거친 자연이 용광로와 슬래그 더미의 가장자리까지 그대로 맞닿아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이제 아무 탈 없이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 임무는 완벽히 완수되었고, 동료들의 찬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스카우러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경사스러운 날이었다. 계곡 위로 드리운 그림자는 이전보다 더욱 짙고 어두워졌다. 하지만 지혜로운 장군은 적들이 재앙을 겪고 전열을 가다듬을 틈조차 주지 않으려, 승리의 순간을 포착해 공세를 더욱 거세게 몰아붙이는 법이다. 보스 맥긴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음침하고 악의 어린 눈빛으로 자신의 세력권을 훑어보며, 자신에게 대항하는 자들을 무너뜨릴 새로운 공격 계획을 세웠다. 그날 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무리가 흩어질 무렵, 맥긴티는 맥머도의 팔을 툭 치더니 그를 따로 불러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안쪽 방으로 그를 이끌었다.

"이보게, 젊은이." 그가 말했다. "드디어 자네 실력에 걸맞은 일을 하나 가져왔네. 이번 일은 자네가 직접 주도해서 처리하게 될 거야."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영광입니다." 맥머도가 대답했다.

"맨더스와 라일리, 두 사람을 데려가게. 이미 소집 명령을 내려두었네. 체스터 윌콕스를 처리하기 전까지는 이 지역을 온전히 장악할 수 없을 거야. 자네가 그자를 쓰러뜨린다면, 탄광 지대의 모든 지부에서 자네에게 감사를 표할 것이네."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분은 누구이며,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맥긴티는 입가에 물고 있던, 반쯤 씹고 반쯤 태운 시가를 떼어냈다. 그러고는 수첩에서 찢어낸 종이 한 장을 꺼내 그 위에 거친 도표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자는 아이언 다이크 회사의 수석 현장 감독입니다. 아주 거친 사내지요. 전쟁터에서 굴러먹던 노련한 하사관 출신이라 온몸이 흉터투성이에 머리칼도 희끗희끗합니다. 우리가 그를 잡으려고 두 번이나 시도했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고, 결국 짐 카나웨이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맡아야 할 차례입니다. 저 집이 바로 목표물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언 다이크 교차로에 홀로 떨어져 있지요. 근처에는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고립된 곳입니다. 낮에는 엄두도 내지 마십시오. 그자는 무기를 들고 있고, 앞뒤 가리지 않고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총을 쏴댑니다. 하지만 밤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

다. 밤에는 아내와 세 아이, 그리고 고용된 일꾼 한 명과 함께 있을 겁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전부를 잡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만약 현관문 앞에 폭약 주머니를 가져다 두고 도화선에 불을 붙일 수만 있다면…….”

“그자가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나, 그가 짐 카나웨이를 쐈다고 말이야.”

“그가 왜 그를 쐈을까요?”

“도대체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카나웨이가 밤중에 그의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그를 쐈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 일을 제대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 집에는 여자 둘과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함께 죽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그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사군요. 그들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인가? 지금 겁이라도 나는 건가?”

“진정하세요, 의원님, 진정하시라고요! 제가 그동안 무슨 말이나 행동을 했다고, 제가 우리 지부의 보디마스터가 내린 명령을 뒤로하고 물

러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일이 옳은지 그른지는 의원님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그럼, 맡아 주시겠습니까?"

"물론 맡겠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음, 집을 직접 살펴보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주시는 게 좋겠소. 그러고 나서—"

"아주 좋아." 맥긴티가 그의 손을 흔들며 말했다. "자네에게 맡기겠네. 자네가 승전보를 가져오는 날이 오면 정말 기쁘겠군. 그 마지막 한 방이면 놈들을 전부 무릎 꿇릴 수 있을 거야."

맥머도는 갑작스럽게 맡게 된 이번 임무를 두고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체스터 윌콕스가 살고 있는 외딴 집은 인접한 계곡 너머로 약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는 그날 밤, 범행을 준비하기 위해 홀로 길을 떠났다. 정찰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아 있었다. 다음 날 그는 부하인 맨더스와 라일리 두 사람을 만났다. 무모할 정도로 혈기 왕성한 그 젊은이들은 마치 사냥이라도 나가는 것처럼 들떠 있었다.

이틀 뒤 밤, 세 사람은 마을 외곽에서 만났다. 모두 무기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중 한 명은 채석장에서 쓰는 화약을 가득 채운 자루를 메고 있었다. 그들이 외딴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두 시였다. 바람이

거세게 부는 밤이었고, 조각난 구름들이 사분의 삼쯤 차오른 달 위를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사냥개를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은 터라, 그들은 권총의 공이를 당긴 채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울부짖는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머리 위에서 흔들리는 나뭇가지 외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맥머도는 외딴 집의 문에 귀를 대고 안을 살폈다. 하지만 집 안은 적막하기만 했다. 그는 문에 화약 주머니를 기대어 세워둔 뒤, 칼로 주머니에 구멍을 내고 도화선을 연결했다. 불꽃이 활활 타오르자 맥머도와 두 동료는 서둘러 달아났다. 그들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안전한 도랑 속에 몸을 숨겼을 때쯤, 폭발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뒤이어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낮고 묵직한 진동이 전해져 왔다. 그 소리는 그들의 임무가 완벽히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피로 얼룩진 그 조직의 역사 속에서, 이보다 더 깔끔하게 처리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아아, 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그토록 치밀하게 조직되고 대담하게 실행되었던 계획이 결국 아무런 결실도 보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가다니! 체스터 윌콕스는 여러 희생자의 운명을 보고 경고를 알아챘고, 자신 또한 제거 대상으로 찍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전날 가족을 데리고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덜 알려진 더 안전한 곳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였다. 화약으로 무너진 것은 빈집에 불과했고, 전쟁에 참전했던 그 엄격한 노(老) 선임하사는 여전히 아이언 다이크의 광부들에게 규율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는 내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맥머도가 말했다. "그를 잡기 위해서라면 일 년이라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를 잡아내겠습니다."

지부 전체에서 감사의 뜻과 신뢰를 담은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일단 그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몇 주 뒤, 윌콕스가 매복해 있던 자들로부터 총격을 당했다는 소식이 신문에 실리자, 맥머도가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을 계속 수행 중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비밀이 되었다.

자유인 협회의 방식은 이러했다. 스카우러스가 저지른 행위 또한 이와 같았다. 그들은 이 잔혹한 행각을 통해, 오랫동안 자신들의 공포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비옥하고 부유한 지역을 공포로 지배했다. 그런데 왜 이 기록에 더 많은 범죄를 남겨야 한단 말인가? 그들의 정체와 수법을 밝히기에 내 설명은 이미 충분하지 않았던가?

이러한 악행들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상세한 내막을 읽어볼 수 있는 기록물도 존재한다. 그 기록을 보면 헌트와 에반스라는 두 경찰관이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이 비밀 결사 조직의 조직원 두 명을 체포하려다 변을 당했다. 버미사 지부에서 계획된 이 잔혹한 범죄는, 무기도 없이 속수무책이었던 두 경찰관을 향해 냉혹하게 자행되었다.

또한 라비 부인이 총에 맞아 숨진 사건도 기록에 남아 있다. 당시 그녀는 맥긴티 보스의 명령으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았던 남편을 간호하고 있었다. 그 끔찍한 겨울 동안, 노인 젠킨스가 살해된 뒤 곧이어 그의 형제까지 죽임을 당했고, 제임스 머독은 신체가 훼손되었으

며, 스테이프하우스 일가는 폭파로 몰살당했다. 스탠달 가족의 살인 사건 역시 이 모든 비극이 몰아치던 시기에 연이어 발생했다.

버미사 계곡 위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봄이 찾아오자 시냇물이 흐르고 나무에는 꽃이 피어났다. 오랫동안 강철 같은 압박에 짓눌려 있던 대자연은 이제 희망을 품은 듯했다. 하지만 공포의 멍에 아래 살아가는 남녀들에게는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었다. 1875년 초여름, 그들을 덮친 먹구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둡고 절망적이었다.

제2부 제6장 위험

제6장 위험

공포 정치가 절정에 달해 있었다. 맥머도는 이미 내부 집사로 임명된 상태였고, 언젠가 보디마스터인 맥긴티의 자리를 이어받을 유망한 후계자로 꼽혔다. 그는 동료들의 회의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물이 되어, 이제는 그의 도움과 조언 없이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맥머도가 자유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그가 버미사 거리를 지나갈 때 시민들이 보내는 눈초리는 더욱 매섭게 변해갔다.

시민들은 공포에 떨면서도, 자신들을 억압하는 자들에게 맞서기 위해 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헤럴드 신문사에서 비밀 모임이 열리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 사이에 총기가 배포되고 있다는 소문이 지부까지 흘러 들어왔다. 그러나 맥긴티와 그의 부하들은 이런 보고를 듣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머릿수가 많았고 결연했으며, 무기까지 잘 갖추고 있었다. 반면 반대 세력은 뿔뿔이 흩어져 힘을 쓰지

못했다. 맥긴티와 맥머도, 그리고 기세등등한 이들은 이번에도 과거처럼 허망한 말잔치로 끝나거나, 무기력한 체포 작전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5월의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다. 토요일은 언제나 결사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맥머도가 모임에 참석하러 집을 나서려던 참에, 결사단의 일원 중 비교적 기가 약한 모리스가 그를 찾아왔다. 모리스의 이마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인자하던 얼굴은 수척하게 야위어 있었다.

"맥머도 씨, 당신과 단둘이서만 속 시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한때 내가 당신에게 진심을 털어놓았다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군요. 보스가 직접 당신을 찾아와 그것에 대해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지요."

"당신이 나를 믿어주었다면 내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었겠소? 당신의 말에 동의했다는 뜻은 아니었단 말이오."

"그건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마음 놓고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제게는 말 못 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을 이었다. "그 비밀이 마치 제 생명을 갉아먹는 것처럼 괴롭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중 누구라도 좋으니,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이 짐을 짊어졌으면 좋겠군요. 이 사실을 밝히면 분명 살인 사건이 될 겁니다. 하지만 침묵한다면 우리 모두가 파멸할지도 모릅니

다. 하느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일 때문에 미쳐버릴 것만 같습니다!”

맥머도는 남자를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남자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맥머도는 위스키를 잔에 따라 그에게 건넸다.

“당신 같은 사람에겐 이게 약이라오.” 맥머도가 말했다. “자, 이제 무슨 일인지 말해 보시오.”

모리스는 술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러자 창백하던 그의 얼굴에 약간의 생기가 돌았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죠." 그가 말했다. "탐정 하나가 우리 뒤를 쫓고 있습니다."

맥머도는 깜짝 놀라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이보게, 자네 미쳤나?" 그가 말했다. "이곳은 경찰과 탐정들로 가득하지 않은가.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해를 끼쳤단 말인가?"

“아니요, 아닙니다. 이 지역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동네 사람들을 훤히 꿰뚫고 있으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죠. 하지만 핑커턴 탐정 사무소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 말 잘 들어. 그놈들이 뒤를 쫓기 시작하면 당신에게 승산 따위는 전혀 없어. 이건 운 좋으면 얻고 아니면 마는 식의 정부 사업이 아니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결과를 내야만 하는, 아주 지독하고

진지한 사업이란 말이지. 만약 핑커턴 탐정 사무소의 요원이 이 일에 깊숙이 개입해 있다면, 우린 모두 끝장이야."

"그를 죽여야만 해."

"아,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바로 그거였군요! 지부에서도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살인 사건으로 끝날 거라고 말입니다."

"물론이지요. 그런데 살인이 뭐 대수라고요? 이 근방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살해당할 사람이 누구인지 제가 직접 지목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저는 평생 마음 편히 잠들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정작 위험에 처한 건 우리 자신의 목숨일지도 모릅니다. 하느님, 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결단을 내리지 못해 괴로워하며 몸을 앞뒤로 흔들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맥머도의 마음을 깊게 움직였다. 맥머도 역시 상대방이 느끼는 위험과 그 위험에 맞서야 한다는 생각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는 모리스의 어깨를 꽉 움켜쥐고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를 흔들었다.

"이보게, 정신 차리게!" 그가 외쳤다. 흥분한 나머지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다. "장례식장에서 곡을 하는 노파처럼 앉아 울고만 있다고 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나? 사실을 말하게. 그자가 누구인가? 어디

에 있지? 그자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나? 그리고 왜 나를 찾아온 건가?"

"당신을 찾아온 건, 내게 조언을 해줄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오기 전 동부에서 상점을 운영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곳에 좋은 친구들을 두고 왔는데, 그중 한 명은 전신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에게서 받은 편지입니다. 페이지 상단에 적힌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직접 읽어보시지요."

맥머도가 읽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그쪽 동네 스카우러스 놈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신문에는 연일 그놈들 소식이 도배되고 있더군.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조만간 자네에게서 소식을 듣게 될 것 같네. 다섯 개의 대기업과 두 곳의 철도회사가 이 일을 아주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거든. 그들은 결단코 빈말을 하는 게 아니니, 반드시 끝을 볼 거라고 장담해도 좋네. 기업들이 아주 뿌리 깊숙이 개입했으니까 말이야. 핑커턴 탐정 사무소도 그들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곳의 최고 요원인 버디 에드워즈가 현장에서 활동 중이라네. 이 일은 지금 당장 멈춰 세워야만 하네."

"이제 추신을 읽어보게."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을 하며 배운 것뿐이라, 그 이상은 모릅니다. 매일같이 눈앞에서 마주하며 다루고 있지만, 도무지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기묘한 암호 같지요."

맥머도는 힘없이 늘어진 손에 편지를 쥔 채,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안개가 잠시 걷히자, 그의 눈앞으로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그가 물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말입니다. 당신의 친구 말이에요. 그가 편지를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은 더 없습니까?"

"글쎄요, 한두 명 정도는 더 알고 있겠지요."

"그 지부 사람들 말인가요?"

"충분히 그럴 법하군요."

"내가 물어본 건 그가 버디 에드워즈라는 자에 대해 묘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네. 만약 그렇다면 그놈의 흔적을 쫓을 수 있을 테니까."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가 그 사람을 알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저 업무상 전해 들은 소식을 저에게 말해준 것뿐이니까요. 그가 핑커턴 요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맥머도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떨었다.

“세상에!” 그가 외쳤다. “드디어 잡았어. 왜 진작 몰랐을까, 내가 정말 바보였군. 세상에, 정말 운이 좋았어! 그놈이 해를 끼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해. 이봐, 모리스, 이 일은 내게 맡겨주겠나?”

“물론이죠. 이 일을 제 손에서 덜어 주시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당신은 뒤로 물러나 계세요. 제가 직접 처리할 테니까요. 당신의 이름은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치 저에게 온 편지인 것처럼, 제가 모든 책임을 떠맡겠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바로 그게 제가 부탁드리려던 것입니다.”

“그럼 더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 이제 내가 지부로 내려갈 테니, 곧 핑커턴 영감이 제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 주자고.”

“이 사람을 죽이지는 않겠다고요?”

“모리스 친구, 모르는 게 약이라네. 그래야 양심도 편안하고 잠도 잘 잘 수 있지. 아무것도 묻지 말고 일이 알아서 해결되도록 두게나. 이제 내가 상황을 장악했으니까.”

모리스는 슬픈 기색으로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떴다. "그의 피가 내 손에 묻은 것만 같군." 그는 신음하듯 읊조렸다.

“어쨌든 정당방위는 살인이 아니지.” 맥머도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놈이 아니면 우리뿐이야. 이대로 저 자를 계곡에 내버려

뒀다간, 우리 모두를 파멸시키려 들 게 분명해. 이보게, 모리스 형제, 자네를 반드시 보디마스터로 선출해야겠어. 자네가 우리 결사회를 확실히 구해냈으니 말이야."

하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말로 내뱉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이번 침입을 받아들이고 있음이 분명했다. 죄책감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핀커턴 탐정 사무소의 명성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혹은 거대하고 부유한 기업들이 스카우러스를 소탕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의 행동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는 집을 떠나기 전,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만한 서류를 모조리 태워 없앴다. 그러고 나서야 그는 만족스러운 듯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안전하다고 느낀 모양이었다.

그럼에도 위험은 여전히 그를 압박하고 있었던 듯하다. 숙소로 향하던 그는 샤프터 노인의 집 앞에 잠시 멈춰 섰다. 그 집은 그가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곳이었으나, 그가 창문을 두드리자 에티가 밖으로 나왔다. 연인의 눈에서 아일랜드 춤곡 같은 장난기는 사라져 있었다. 에티는 그의 간절한 표정에서 그가 처한 위험을 읽어냈다.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오, 잭, 당신이 위험에 처했어요!"

"그래, 아직은 그리 나쁘지 않네, 내 사랑. 하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서둘러 움직이는 게 현명할 거야."

"움직이라고요?"

"언젠가 반드시 가겠다고 약속했었지요. 이제 그날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행이 닥쳐올 것만 같군요."

"경찰 말입니까?"

"핑커턴 요원이야. 하지만 아쿠슐라, 당신은 그게 뭔지, 그리고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를 거야. 난 이 일에 너무 깊이 발을 들였거든. 어쩌면 아주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할지도 몰라. 내가 떠난다면 같이 가겠다고 약속했었지?"

"오, 잭,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당신을 구하는 길이 될 거예요!"

"에티, 난 어떤 면에서는 정직한 사람이야. 세상의 그 무엇을 준다 해도 당신의 그 고운 머리카락 한 올 건드리지 않을 거야. 내가 늘 바라보는 저 구름 위 황금빛 왕좌에서 당신을 단 한 치도 끌어내리지 않을 거라고. 나를 믿어주겠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맞잡았다.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그게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이 계곡에 곧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아요. 뼛속까지 느껴지는 기분이에요.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각자도생해야 할지도 몰라요. 적어도 나는 그래요. 낮이든 밤이든, 내가 움직이게 되면 당신도 반드시 나와 함께 가야 해요!"

"저도 당신을 따라가겠어요, 잭."

"아니, 아니오. 당신은 반드시 나와 함께 가야 합니다. 만약 이 계곡이 내게 영영 문을 닫아버려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된다면, 당신을 어떻게 홀로 남겨두겠습니까? 내가 경찰을 피해 숨어 지내느라 소식 한 자 전할 기회조차 없다면 어쩌란 말입니까? 반드시 나와 함께 가야 합니다. 내가 살던 곳에 믿을 만한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싶소. 나와 함께 가주겠습니까?"

"그래, 잭. 갈게."

"나를 믿어주니 정말 고맙네! 만약 자네의 믿음을 저버린다면, 나는 지옥에서 온 악마나 다름없을 거야. 자, 잘 듣게, 에티. 내가 보낸 말은 자네에게 그저 짧은 메시지일 뿐이야. 그 메시지를 받으면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곧장 역 대기실로 오게나. 내가 데리러 갈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주게."

"낮이든 밤이든, 당신이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 달려갈게요, 잭."

탈출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맥머도는 숙소로 향했다. 이미 모임은 시작된 상태였다. 숙소를 겹겹이 에워싼 외곽 경비병과 내부 경비병을 통과하려면 복잡한 암호와 응답을 주고받아야만 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환영의 기운과 즐거운 웅성거림이 그를 맞이했다. 긴 방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자욱한 담배 연기 사이로 보디마스터의 헝클어진 검은 갈기 같은 머리카락이 보였고, 볼드

윈의 잔인하고 퉁명스러운 얼굴과 서기인 해러웨이의 독수리 같은 얼굴도 눈에 들어왔다. 그 외에도 숙소의 지도자급 인물들이 열댓 명은 더 모여 있었다. 맥머도는 자신의 소식을 전하고 함께 논의할 이들이 모두 이곳에 모여 있다는 사실에 내심 기뻤다.

"정말이지 형제여, 당신을 만나니 참으로 반갑소!" 의장이 외쳤다. "여기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진 이가 꼭 필요한 일이 하나 있소."

"랜더와 이건이에요." 자리에 앉으며 이웃이 설명했다. "스타일스타운에서 크래브 노인을 총으로 쏜 대가로 조합에서 내건 현상금을 둘 다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 누가 총을 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맥머도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올렸다. 그의 표정이 변하는 순간, 청중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장내에는 기대감이 서린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존경하는 보디마스터님," 그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긴급한 용건이 있습니다!"

"맥머도 형제가 긴급한 용무가 있다고 주장하는군." 맥긴티가 말했다. "우리 결사의 규칙에 따르면, 그런 주장은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네. 자, 형제여, 우리가 자네의 말을 듣겠네."

맥머도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존경하는 보디마스터와 형제 여러분," 그가 말했다. "오늘 저는 불길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예고도 없이 닥쳐와 우리 모두를 파멸시킬 타격을 맞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이 사실을 알리고 논의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주의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조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결탁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게다가 바로 지금 이 순간, 핑커턴 탐정인 버디 에드워즈라는 자가 계곡 곳곳을 누비며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은 우리 중 수많은 이의 목에 교수형 밧줄을 걸고, 여기 계신 모든 분을 범죄자의 감옥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긴급한 논의를 요청한 현재 상황입니다."

방 안에는 죽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깨뜨린 것은 의장이었다.

"맥머도 형제, 그에 대한 증거는 무엇인가?" 그가 물었다.

"제 손에 들어온 이 편지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맥머도가 말했다. 그는 편지의 구절을 소리 내어 읽었다. "이 편지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도, 직접 보여드릴 수도 없는 것은 제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약속하건대, 편지의 다른 내용은 결코 결사체의 이익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전해 들은 그대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장자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저도 버디 에드워즈라는 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핑커턴 탐정 사무소에서 최고의 요원으로 이름을 날리는 인물이라고 하더군요."

"그를 얼굴로 알아보는 사람이 있나?" 맥긴티가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맥머도가 대답했다.

홀 전체에 경악 섞인 웅성거림이 퍼져 나갔다.

"우리는 이미 그를 손아귀에 넣었다고 확신하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신속하고 현명하게 움직인다면 이 일을 단번에 끝낼 수 있어. 자네가 나를 믿고 도와준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거의 없을 걸세."

"어차피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나? 그자가 우리 사정을 얼마나 안다고 말인가?"

"의원님, 모든 사람이 의원님처럼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자는 자본가들의 막대한 자금력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우리 결사체의 지부들 중에 돈으로 매수할 수 없는, 신념이 약한 형제가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까? 그는 우리의 비밀을 캐낼 겁니다. 어쩌면 이미 알아냈을지도 모르지요. 이 상황을 해결할 확실한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는 결코 계곡을 떠나지 않습니다." 볼드윈이 말했다.

맥머도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셨습니다, 볼드윈 형제님." 그가 말했다. "우리 사이에 의견 차이가 좀 있었지만, 오늘 밤 당신은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가면 그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보디마스터님," 맥머도가 간곡한 어조로 말했다. "이 일은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라, 우리 결사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누구라도 의심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이 일에 관한 소문이 그 사람의 귀에 단 한 마디라도 들어간다면, 그를 붙잡을 기회는 영영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의장님, 결사 측에 신뢰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제 제안을 받아들여 주신다면 의장님과 여기 있는 볼드윈 형제, 그리고 다섯 명의 위원을 더 선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제가 제안하는 대책에 대해 마음 놓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안은 즉시 받아들여졌고, 곧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회에는 의장과 볼드윈 외에도 여러 인물이 있었다.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서기 해러웨이, 잔혹한 젊은 암살자 타이거 코맥, 재무 담당자 카터가 포함되었다. 여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 없는 자들, 윌러비 형제도 위원으로 합류했다.

그날 밤 숙소의 평소와 같은 흥겨운 잔치는 짧고도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동안 평온하게 살아온 하늘 위로, 복수의 법이라는 구름이 서서히 떠오르는 것을 처음으로 목격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공포를 선사하며 살아온 삶이 워낙 일상적이었기에, 그들은 인과응보라는 개념을

아주 먼 이야기로만 여겨왔다. 그렇기에 막상 응보의 그림자가 코앞까지 들이닥치자, 그 충격은 더욱 컸다. 사람들은 서둘러 잔치를 끝내고 자리를 떴으며, 지도자들은 남아서 회의를 이어갔다.

"자, 맥머도!"

둘만 남게 되자 맥긴티가 입을 열었다. 나머지 일곱 명의 사내들은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다.

"방금 버디 에드워즈를 안다고 말씀드렸지요." 맥머도가 설명했다. "그가 지금 이 이름을 쓰고 있지 않다는 건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는 용감한 사람이지만, 미친 사람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스티브 윌슨이라는 가명을 쓰고 있고, 홉슨의 패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별생각 없이 넘겼고, 이 편지를 받지 않았더라면 두 번 다시 떠올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분명 그놈이에요. 지난 수요일에 열차를 타고 내려가던 길에 그를 만났는데, 정말이지 보통내기가 아니더군요. 자기가 기자라고 하기에 그 말을 믿었습니다. 뉴욕 신문에 실을 스카우러스와 그가 말하는 '만행'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캐내려 하더군요. 뭐라도 하나 얻어내려고 온갖 질문을 다 던졌습니다. 당연히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죠. 그자가 말하길, '편집장 입맛에 맞는 기삿거리를 가져다준다면 돈을 섭섭지 않게 쳐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가 가장 좋아할 만한 내용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 정보값이라며 20달러 지폐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러고는 덧붙이더군요. '내가 원하는 걸 전부 찾아준다면, 이보다 열 배는 더 주겠소'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어낼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 둘러댔지요."

"그가 신문 기자 출신이 아니라는 건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말해주겠네. 그 사람도 홉슨 패치에서 내렸고, 나도 거기서 내렸어. 내가 우연히 전신국에 들어갔을 때, 그는 막 그곳을 나서던 참이었지."

"자, 보세요." 교환원이 밖으로 나가며 말했다. "이런 건 요금을 두 배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만도 하군요." 내가 대답했다. 그가 작성한 서식에는 우리가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마치 중국어 같은 글자들이 가득했다. "이분은 매일 이런 식으로 전보를 보내십니다." 사무원이 덧붙였다. "그렇겠군요." 내가 말했다. "신문사에 특별 뉴스를 보내는 모양인데, 다른 신문사들이 가로챌까 봐 겁이 나나 보군요." 당시 교환원과 내가 생각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의 판단은 틀렸던 것 같다.

"세상에! 당신 말이 맞는 것 같군." 맥긴티가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지금 당장 가서 그놈을 해치우는 게 어때?" 누군가 제안했다.

"그래, 빠를수록 좋지."

"그놈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만 안다면 당장이라도 시작할 텐데 말입니다." 맥머도가 말했다. "그놈은 홉슨의 패치 구역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느 집인지는 모릅니다. 그래도 제 조언만 들어주신다면, 좋은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인가?"

"내일 아침 일찍 패치로 가겠네. 교환원을 통해서 그를 찾아낼 수 있을 거야. 교환원이라면 위치를 알아낼 수 있겠지. 가서 내가 프리맨의 일원이라고 말하겠네. 그리고 돈을 줄 테니 결사대의 모든 비밀을 알려달라고 제안할 거야. 그러면 그는 분명히 눈치를 채겠지. 서류는 내 집에 있다고 말할 걸세.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낮에 오게 되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고 덧붙이겠네. 그러면 그도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걸 알 거야. 밤 열 시에 오라고 하면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겠지. 그렇게 하면 그는 반드시 올 걸세."

"그래서요?"

"나머지 계획은 너희끼리 짜도록 해. 맥나마라 미망인의 집은 외딴 곳에 있어. 그 여자는 강철처럼 의리가 있지만, 귀는 기둥처럼 먹통이지. 지금 그 집에는 스캔랜과 나, 둘뿐이야. 만약 내가 그에게 약속을 받아낸다면—약속을 받아내면 바로 알려주마—너희 일곱 명 모두 아홉 시까지 내게로 와라. 그를 불러들일 테니까. 만약 그가 살아 돌아오

기라도 한다면, 평생토록 버디 에드워즈의 행운에 대해 떠들며 살 수 있을 거다!"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면, 핑커턴 탐정 사무소에 곧 빈자리가 생길 걸세. 그쯤 해두게, 맥머도. 내일 아홉 시에 자네에게 가 있겠네. 일단 그가 들어온 뒤 자네가 문만 닫아 두면,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기면 되네."

제2부 제7장 버디 에드워즈의 함정

제7장 버디 에드워즈를 함정에 빠뜨리다

맥머도가 말했듯이, 그가 사는 집은 외딴곳에 있어 그들이 계획한 범죄를 저지르기에 아주 적합했다. 집은 마을의 가장 변두리에 있었고, 도로에서도 한참 뒤로 물러나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공모자들은 이전에도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 단순히 그를 불러내어 권총을 난사해 몸에 구멍을 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상황이 달랐다.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고용주들에게 어떤 내용이 전달되었는지를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이미 때가 늦어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도 있었다.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적어도 일을 저지른 그자에게 복수라도 할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탐정이 중요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기를 바랐다. 만약 탐정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면, 맥머도가 전했다는 그까짓 사소한 정보를 굳이 받아 적어 보낼 리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어쨌든 이 모든 사실은 맥머도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했

다. 일단 그를 붙잡기만 하면, 어떻게든 입을 열게 만들 방법은 있었다. 비협조적인 증인을 다뤄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맥머도는 약속대로 홉슨의 패치로 향했다. 그날 아침, 경찰들이 유독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듯했다. 시카고에서 구면이라고 주장했던 마빈 대위는 역에서 기다리던 맥머도에게 직접 말을 걸기까지 했다. 하지만 맥머도는 고개를 돌려 그를 외면하며 대화를 거부했다. 그는 오후가 되어서야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고, 유니언 하우스에서 맥긴티를 만났다.

"그가 오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좋아!" 맥긴티가 말했다. 거구의 사내는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차림이었다. 풍채 좋은 조끼 위로는 금사슬과 인장들이 번뜩였고, 덥수룩한 수염 사이로는 다이아몬드 하나가 반짝였다. 술과 정치 덕분에 보스는 막강한 권력을 쥐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까지 거머쥐었다. 그렇기에 전날 밤 그의 눈앞에 스치듯 지나간 감옥과 교수대의 환영은 더욱 끔찍하게 느껴졌다.

"그가 얼마나 알고 있을 것 같소?" 그가 초조한 듯 물었다.

맥머도가 침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자가 여기 머문 지는 꽤 됐습니다. 적어도 6주는 되었을 겁니다. 풍경 구경이나 하려고 이 근처까지 온 건 아닐 테니까요. 만약 철도 자금을 등에 업고 그 긴 시간 동안 우

리 사이에 숨어들었다면, 분명 어떤 성과를 거두었을 테고, 그 결과물을 이미 전달했을 겁니다."

"우리 조직원 중에 나약한 놈은 단 한 명도 없다!" 맥긴티가 외쳤다. "모두가 강철처럼 단단한 놈들이야. 하지만 맙소사, 저 모리스라는 스컹크 같은 놈은 대체 뭐야? 그놈은 어떻게 할 건가? 만약 누군가 우리를 밀고한다면, 그건 분명 그놈일 거야. 해가 지기 전에 애들 몇 명을 보내서 그놈을 실컷 두들겨 패게 할까 생각 중이다. 그러고 나서 그놈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글쎄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맥머도가 대답했다. "모리스를 좋아한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참 유감스럽겠지요. 그는 예전에 lodge의 문제들로 저와 한두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비록 그가 그 문제들을 당신이나 저와 같은 관점으로 보지는 않을지 몰라도, 밀고를 할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신과 그 사이를 가로막고 서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 늙은 악마 놈을 반드시 해치우고 말겠어!" 맥긴티가 욕설을 내뱉으며 말했다. "지난 일 년 동안 내내 그놈을 주시해 왔단 말이다."

"글쎄요, 그쪽이 제일 잘 아시겠지요." 맥머도가 대답했다. "하지만 무엇을 하든 반드시 내일 해야 합니다. 핀커튼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몸을 낮추고 숨어 있어야 하니까요.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경찰을 들쑤셔 놓을 여유 따위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맥긴티가 말했다. "버디 에드워즈의 심장을 먼저 꺼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놈이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는 본인 입으로 직접 듣고 말 테니까. 그놈이 함정의 냄새를 맡은 것 같던가?"

맥머도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자의 약점을 제대로 건드린 모양입니다." 그가 말했다. "스카우러스의 흔적만 제대로 잡을 수 있다면, 그자는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갈 작정이에요. 일단 돈부터 챙겨뒀습니다." 맥머도는 달러 지폐 뭉치를 꺼내 보이며 싱긋 웃었다. "제 서류들을 다 확인하고 나면, 돈을 훨씬 더 내놓을 겁니다."

"어떤 서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아직 서류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헌법이나 규칙집, 회원 가입 양식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까지 모든 절차를 완벽히 마무리 짓고 싶어 합니다."

"정말이지, 그 점에서는 그 친구 말이 맞아." 맥긴티가 음울하게 말했다. "자네한테 왜 서류를 가져오지 않았느냐고 묻지 않던가?"

"내가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다닐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난 이미 의심까지 받고 있는 처지 아닙니까? 오늘 바로 역에서 마빈 대위와 이야기를 나누기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그래, 나도 그 소식은 들었네." 맥긴티가 말했다. "이 일의 진짜 골칫거리는 자네에게 닥쳐오고 있는 것 같군. 일을 다 마치고 나면 그놈을 오래된 갱도 아래로 처박아버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머리를 써봐

도 홉슨 패치에 사는 사람과 오늘 자네가 거기 있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야."

맥머도가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가 제대로만 처리한다면, 그들은 살인 사실을 절대 증명하지 못할 겁니다." 그가 말했다. "날이 어두워진 뒤에 그가 집으로 들어오는 걸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고, 나중에 그가 떠나는 걸 보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장담하죠. 자, 의원님, 제 계획을 보여드릴 테니 다른 분들도 이 계획에 맞춰 움직여 주십시오. 다들 제때 맞춰 오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는 열 시에 옵니다. 문을 세 번 두드리면 제가 문을 열어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의 뒤로 들어가 문을 닫을 겁니다. 그러면 그는 완벽하게 우리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건 아주 쉽고 명백한 일이지."

"맞습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는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가 만만치 않은 인물이에요. 무기도 아주 많이 갖추고 있고요. 내가 그를 제대로 속이긴 했지만, 아마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가 나를 혼자 만날 거라 예상한 방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일곱 명이나 대기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 총격전이 벌어질 테고, 누군가는 다치게 될 겁니다."

"그렇고말고요."

"이 소음 때문에 마을의 모든 빌어먹을 경찰들이 죄다 몰려올 거야."

"당신 말이 맞는 것 같군요."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처럼 모두 큰 방에 모여 계십시오. 제가 그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문 옆에 있는 응접실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류를 가져오는 동안 그를 그곳에 혼자 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사이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릴 시간을 벌 수 있겠지요.

그다음, 가짜 서류를 들고 그에게 돌아가겠습니다. 그가 서류를 읽고 있을 때, 제가 달려들어 그의 권총을 든 팔을 낚아챌 겁니다. 제가 소리치는 게 들리면 즉시 달려 들어오십시오.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는 저만큼이나 힘이 센 사람이니, 제가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도착할 때까지는 어떻게든 붙들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좋은 계획이야." 맥긴티가 말했다. "이번 일로 우리 결사대는 자네에게 큰 빚을 지게 되겠군. 내가 의장직에서 물러날 때쯤이면, 내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확실히 적어둘 수 있겠어."

"물론입니다, 의원님. 저는 이제 막 들어온 신참에 불과합니다." 맥머도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위대한 인물의 찬사에 대해 그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눈앞에 닥친 참혹한 저녁을 대비해 스스로 준비를 시작했다. 우선 스미스 앤 웨슨 리볼버를 깨끗이 닦고 기름칠한 뒤 탄환을 채워 넣었다. 그러고 나서 탐정을 가두어 둘 방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방은 넓은 아파트 형태였는데, 중앙에는 긴 소나무 탁자가 놓여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커다란 난로가 있었다. 나머지 벽면마다 창문

이 하나씩 있었으나 덧창은 없었다. 그저 얇은 커튼이 쳐져 있을 뿐이었다. 맥머도는 이 커튼들을 유심히 살폈다. 이토록 비밀스러운 만남을 갖기에 방이 너무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이 분명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도로에서 떨어진 위치 덕분에 그 점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함께 머무는 하숙생과 계획을 논의했다. 스캔런은 스카우러스의 일원이었으나, 동료들의 의견에 맞설 만큼 강하지 못한 유순한 소인(小人)이었다. 그는 때때로 강제로 가담해야 했던 피비린내 나는 행위들에 남몰래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맥머도는 그에게 앞으로 하려는 일을 간결하게 설명했다.

"마이크 스캔랜, 내가 자네라면 오늘 밤은 쉬면서 이 일에서 멀리 떨어져 있겠네. 아침이 오기 전에 이곳에서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터질 테니까."

"정말 그렇다니까, 맥." 스캔런이 대답했다. "내게 부족한 건 의지가 아니라 담력이야. 저기 탄광에서 던(Dunn) 매니저가 쓰러지는 걸 봤을 땐, 정말이지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 나는 너나 맥긴티 같은 사람들과는 달리 이런 일에 맞는 사람이 못 돼. 조합에서 나를 나쁘게 보지만 않는다면, 네 조언대로 오늘 저녁은 너희끼리 알아서 하도록 할게."

약속한 시간에 맞춰 사내들이 들어왔다. 겉보기에는 옷차림도 깔끔하고 단정한, 제법 점잖은 시민들처럼 보였다. 하지만 사람의 안색을 읽을 줄 아는 이라면, 그들의 굳게 다문 입술과 무자비한 눈빛에서 버디 에드워즈에게 희망 따위는 없음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방 안에 있는 사내들은 하나같이 이미 십수 번은 손에 피를 묻혀본 자들이었다. 그들

은 마치 도축업자가 양을 대하듯,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을 만큼 냉혹해져 있었다.

무엇보다도 외양과 죄질 모두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낸 이는 단연 가공할 만한 위세를 떨치던 보스였다. 비서인 해러웨이는 목이 길고 비쩍 말랐으며, 신경질적으로 움찔거리는 사지를 가진 냉소적인 사내였다. 그는 결사단의 자금 문제에 있어서는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충성심을 보였으나,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정의나 정직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인물이었다. 재무 담당인 카터는 중년의 남성으로,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뚱한 얼굴에 누런 양피지 같은 피부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유능한 조직가였으며, 결사가 저지른 거의 모든 만행의 구체적인 계획은 그의 치밀한 머리에서 나왔다. 윌러비 형제는 키가 크고 날렵한 체격에 결연한 표정을 지닌 행동파 청년들이었다. 반면 그들의 동료인 타이거 코맥은 체구가 크고 피부가 검은 청년이었는데, 성미가 워낙 포악하여 동료들조차 그를 두려워할 정도였다. 핀커턴 탐정을 살해하기 위해 그날 밤 맥머도의 지붕 아래로 모여든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다.

주인이 탁자 위에 위스키를 내려놓자, 그들은 눈앞에 닥친 일을 해치우기 위해 서둘러 술을 들이켰다. 볼드윈과 코맥은 이미 술이 반쯤 취해 있었고, 독한 술기운은 그들의 흉포한 본성을 고스란히 끌어냈다. 코맥은 잠시 난로 위에 손을 올렸다. 밤공기가 여전히 차가웠던 터라 난로에는 불이 지펴져 있었다.

"이제 됐어." 그가 욕설을 내뱉으며 말했다.

"그래요." 볼드윈이 그 말뜻을 알아듣고 대답했다. "그놈을 저기에 묶어 놓기만 하면, 진실을 다 불게 될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반드시 그놈에게서 진실을 불어내게 만들 테니까요." 맥머도가 말했다. 그는 강철 같은 담력을 지닌 사내였다. 사건의 모든 책임이 그에게 쏠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태도는 여느 때처럼 침착하고 태연했다. 다른 이들은 그 모습을 눈여겨보며 박수를 보냈다.

"그놈은 네가 맡아야 한다." 보스가 만족스러운 듯 말했다. "네 손이 그놈 목을 움켜쥐기 전까지는, 단 한 번의 경고도 듣지 못하게 해라. 네 창문에 덧창이라도 달려 있으면 좋을 텐데, 참으로 아쉽구나."

맥머도는 이쪽저쪽을 오가며 커튼을 더 단단히 쳤다. "이제 아무도 우릴 훔쳐볼 수 없을 거요.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되었군."

"어쩌면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위험한 기색을 눈치채고 발길을 돌릴 수도 있겠지요." 비서가 말했다.

"그 사람도 올 테니 걱정 말게." 맥머도가 대답했다. "자네가 그를 보고 싶어 하는 만큼이나 그 사람도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까. 자, 저 소리를 들어보게!"

사람들은 모두 밀랍 인형처럼 굳어 있었다. 어떤 이는 잔을 입가로 가져가려던 자세 그대로 멈춰 있었다. 그때, 문에서 세 번의 커다란 노크 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용히!" 맥머도가 경고하듯 손을 들어 올렸다. 의기양양한 눈빛이 좌중을 한 바퀴 돌았고, 사람들은 각자 무기에 손을 가져갔다.

“살고 싶으면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맥머도가 속삭였다. 그는 방을 나서며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삽화: “죽기 싫으면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맥머도가 속삭였다.]

살인자들은 잔뜩 긴장한 채 귀를 기울이며 기다렸다. 복도를 따라 걸어 내려오는 동료의 발소리가 하나둘 들려왔다. 이윽고 그가 바깥문을 여는 소리가 났다. 짧은 인사말이 오갔다. 그러더니 집 안에서 낯선 발소리와 생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문이 쾅 닫히더니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먹잇감이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타이거 코맥이 섬뜩하게 웃음을 터뜨렸고, 보스 맥긴티는 커다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조용히 해, 이 바보야!" 그가 속삭였다. "그러다 우리 모두 끝장나고 말 거야!"

옆방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끝도 없이 이어질 것만 같았다. 그러다 마침내 문이 열리더니, 맥머도가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댄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탁자 끝으로 걸어가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모습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겨 있었다. 마치 막중한 임무를 앞둔 사람처럼 태도가 달라져 있었다. 얼굴은 화강암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안경 너머의 눈빛은 격렬한 흥분으로 번뜩였다. 그는 이제 눈에 보이는 지도자의 풍

모를 풍기고 있었다. 사람들은 간절한 관심을 담아 그를 응시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 기이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훑어보았다.

"이런!" 마침내 맥긴티 두목이 외쳤다. "그놈이 왔나? 버디 에드워즈가 여기 있느냐 말이다!"

"그렇소." 맥머도가 천천히 대답했다. "버디 에드워즈는 여기 있소. 내가 바로 버디 에드워즈요!"

짧은 연설이 끝난 뒤, 정적이 너무나 깊게 내려앉아 마치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10초의 시간이 흘렀다. 난로 위에서 물이 끓는 소리만이 날카롭고 거칠게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 남자의 위압감에 눌린 일곱 명의 창백한 얼굴은 공포에 질린 채 모두 위를 향한 상태로 굳어 있었다. 그때 갑자기 유리창이 떨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커튼이 찢겨 나가며 번뜩이는 소총 총구들이 창문마다 들이닥쳤다.

그 광경을 본 맥긴티 보스는 상처 입은 곰처럼 포효하며 반쯤 열린 문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 앞을 가로막은 것은 수평으로 겨눠진 리볼버였다. 조준경 너머로 광산 경찰 마빈 대위의 엄격한 푸른 눈동자가 번뜩였다. 보스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나더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의원님, 그곳에 계시는 게 더 안전할 겁니다." 맥머도라고 알려진 남자가 말했다. "그리고 볼드윈, 권총에서 손 안 떼면 교수형 집행인에게 줄 몫까지 네가 가로채게 될 거다. 당장 손 떼지 못해? 맹세코 내 신

을 걸고 말하는데—됐다, 이제 됐어. 이 집 주변에는 무장한 장정들이 마흔 명이나 깔려 있다. 네가 이길 수 있을지 직접 계산해 보라고. 마빈, 저놈들의 권총을 뺏어!"

총구의 위협 앞에서 저항은 애초에 불가능했다. 사람들은 무기를 모두 빼앗겼다. 그들은 뾰루퉁한 표정으로, 혹은 멋쩍은 얼굴로, 혹은 어안이 벙벙한 채로 여전히 탁자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다.

"헤어지기 전에 한마디만 하겠네." 그들을 함정에 빠뜨린 남자가 말했다. "아마 법정 증언석에서 나를 다시 보기 전까지는 만날 일이 없을 것 같군. 그전까지 곱씹어 볼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지. 이제 자네들도 내 정체를 알게 되었으니, 드디어 패를 다 보여줄 수 있겠어. 나는 핑커턴 탐정 사무소의 버디 에드워즈라네. 자네들의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 선발된 요원이지. 아주 힘들고 위험한 게임을 수행해 왔네. 내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명도 몰랐어. 여기 있는 마빈 대위와 내 고용주들만이 알고 있었을 뿐이지. 하지만 신께 감사하게도 오늘 밤으로 모든 게 끝났네. 결국 승자는 나야!"

창백하고 뻣뻣하게 굳은 일곱 개의 얼굴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억누를 수 없는 증오가 서려 있었다. 그는 그 눈빛에서 끈질긴 위협을 읽어냈다.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군. 뭐, 나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네. 어쨌든 너희 중 몇몇은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할 것이고, 너희 말고도 예순 명은 오늘 밤 감옥행을 면치 못할 테니

까. 한 가지 말해두지. 내가 이 일에 투입되었을 때만 해도, 나는 너희 같은 조직이 실재한다고는 믿지 않았네. 그저 헛소문에 불과할 거라 생각했고, 내 생각이 맞다는 걸 증명하려 했지. 사람들은 이 조직이 '프리맨'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군. 그래서 나는 시카고로 가서 직접 조직원이 되었네. 그때 나는 이 모든 게 헛소문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혔지. 왜냐하면 그 조직에서 해로운 점은 전혀 찾을 수 없었고, 오히려 이로운 점이 훨씬 많았거든.”

"하지만 내 할 일은 계속해야 했기에 결국 석탄 계곡까지 오게 되었네. 이곳에 도착하고 나서야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지. 이건 결국 싸구려 통속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어. 그래서 나는 이곳에 남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네. 시카고에서 사람을 죽인 적은 없어. 평생 가짜 돈을 한 푼도 찍어낸 적이 없네. 자네들에게 준 돈은 다른 어떤 돈 못지않게 진짜였지. 하지만 그보다 더 보람 있게 쓴 돈은 없었네. 나는 자네들의 호감을 사는 법을 알고 있었기에, 법이 나를 쫓고 있는 척 연기했던 거야. 모든 게 내 생각대로 맞아떨어졌지."

“그래, 내가 당신들의 그 지옥 같은 결사대에 들어갔고, 당신들의 회의에도 참여했지. 아마 사람들은 나도 당신들만큼이나 악한 놈이었다고 말할 거야. 당신들을 내 손으로 응징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든 상관없어. 하지만 진실은 무엇인가? 내가 당신들에게 들어간 그날 밤, 당신들은 늙은 스탠저를 때려눕혔지. 나는 그에게 경고할 수 없었어. 그럴 시간조차 없었으니까. 하지만 볼드윈, 당신이 그 노인을 죽이려 했을 때 그 손을 붙잡아 막은 건 나였어. 내가 당신들 사이에서 자리를 지키려고 무언가를 제안했다면, 그건 내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일들이었을 뿐이야. 던과 멘지스를 구하지 못한 건 내가 아는 게 부족했기 때문이지. 하지만 그들을 죽인 살인자들은 반드시 교수형에 처하게 만들겠어. 체스터 윌콕스에게는 미리 경고를 해두었지. 덕분에 내가 그의 집을 폭파했을 때, 그와 그의 일가족은 미리 몸을 숨길 수 있었어. 내가 막지 못한 범죄도 많았지. 하지만 과거를 되돌아보며 생각해보게. 당신들이 노린 자가 다른 길로 집에 돌아온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당신들이 그를 잡으러 갔을 때 그가 마을에 내려가 있었거나, 그가 밖으로 나올 거라 여겼을 때 집 안에 머물러 있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말이야. 그게 바로 내가 한 일이라네."

"이 빌어먹을 배신자 놈!" 맥긴티가 이를 악문 채 낮게 쉿쉿거리며 내뱉었다.

"그래, 존 맥긴티. 네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그렇게 불러도 좋다. 너와 네 무리는 이 근방에서 신과 인간 모두의 적이었다. 네놈들의 손아귀에 붙들린 가련한 남녀들을 구하기 위해, 너희와 맞설 용기 있는 자가 필요했다.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고, 나는 그 길을 택했다. 너는 나를 배신자라 부르겠지만, 나는 믿는다. 나를 구원자라 부를 수천 명의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내가 지옥까지 내려갔다고 말이다.

지난 석 달 동안은 정말 지옥 같았다. 설령 워싱턴 재무부에서 일하게 해준다는 조건이 붙더라도, 다시는 그런 석 달을 보내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비밀을 내 손안에 쥐어야 했다. 만약 내 비밀이 탄

로 날 상황이 아니었다면 조금 더 기다렸을 것이다. 마을로 편지 한 통이 들어왔는데, 그 편지를 읽었다면 네놈들이 모든 것을 눈치챘을 테니까. 그래서 나는 움직여야만 했고, 아주 신속하게 움직여야만 했다."

"더 할 말은 없네. 다만 내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이 계곡에서 내가 해온 일들을 떠올린다면 조금은 더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군. 자, 마빈, 이제 그만 가보게. 저들을 안으로 데려가서 일을 마무리하게나."

더 이상 전할 이야기는 거의 없다. 스캔런은 에티 셰프터 양의 주소로 밀봉된 쪽지를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는 윙크와 함께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그 임무를 수락했다. 이른 새벽, 아름다운 여인과 몸을 꽁꽁 싸맨 한 남자가 철도 회사에서 보낸 전용 열차에 올라탔다. 그들은 위험한 땅을 벗어나 멈춤 없이 빠르게 달려 나갔다. 에티와 그녀의 연인이 공포의 계곡에 발을 들인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열흘 뒤, 두 사람은 시카고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노인 제이콥 셰프터가 그 결혼의 증인이 되었다.

스카우러스의 재판은 그들의 추종자들이 법의 수호자들을 위협할 수 없는 먼 곳에서 열렸다. 그들은 저항해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 온 마을에서 갈취한 조직의 자금을 물 쓰듯 쏟아부었으나 역시 헛수고였다. 그들의 삶과 조직, 그리고 범죄의 모든 세세한 내막을 꿰뚫고 있는 증인이 냉철하고 명료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진술을 이어갔고, 변호인들의 온갖 교묘한 술책도 그 확고한 증언을 흔들

지는 못했다. 마침내 수년의 세월이 흐른 뒤, 그들은 몰락하여 뿔뿔이 흩어졌다. 버미사 계곡을 짓누르던 먹구름은 영원히 걷혔다.

맥긴티는 최후의 시간이 닥치자 몸을 떨며 비굴하게 울부짖다가 교수대 위에서 운명을 맞이했다. 그의 핵심 추종자 여덟 명도 같은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쉰 명 남짓한 자들은 저마다의 형량만큼 감옥살이를 했다. 버디 에드워즈의 작업은 이렇게 끝이 났다.

하지만 그의 짐작대로,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내놓아야 할 패가 남아 있었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다음 패가 이어질 참이었다. 우선 테드 볼드윈은 교수대의 형을 면했다. 윌라비 일가도 마찬가지였고, 그 조직에서 가장 사나운 기질을 가졌던 다른 이들 몇몇도 살아남았다. 그들은 10년 동안 세상과 격리되어 감옥에서 지냈으나, 마침내 다시 자유의 몸이 되는 날이 찾아왔다. 부하들의 성정을 잘 알고 있던 에드워즈는 그날이 자신의 평온한 삶이 끝나는 날이 되리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부하들의 복수를 위해 에드워즈의 피를 흘리게 하겠노라고, 그들은 자신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걸고 맹세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시카고에서 추격을 피해야 했다. 두 번이나 거의 잡힐 뻔했기에, 세 번째에는 반드시 붙잡힐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다. 결국 그는 이름을 바꾸고 시카고를 떠나 캘리포니아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에티 에드워즈가 죽으면서 그의 삶에는 한동안 암흑이 찾아왔다. 그는 다시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이번에도 더글러스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외딴 협곡에서 일했다. 그곳에서 그는 바커라는 이름의 영국인 동업자

와 함께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 그러던 중 사냥개들이 다시 자신의 뒤를 쫓고 있다는 경고를 받게 되었고, 그는 간신히 시간을 벌어 영국으로 탈출했다. 그렇게 영국으로 건너온 존 더글러스는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다. 그는 서섹스주의 신사로서 5년 동안 평온한 삶을 누렸으나, 그 삶은 우리가 이미 들은 기이한 사건들과 함께 막을 내리고 말았다.

에필로그

에필로그

경찰의 재판이 끝난 후, 존 더글러스의 사건은 상급 법원으로 넘겨졌다. 이어 진행된 쿼터 세션(Quarter Sessions) 재판에서도 그는 정당방위였다는 판결을 받아 무죄로 풀려났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남편분을 영국 밖으로 피신시키십시오.” 홈즈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곳에는 남편분이 도망쳐 온 세력보다 더 위험한 세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영국 안에는 남편분을 지켜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건은 어느 정도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우리 집 우편함에 수수께끼 같은 쪽지 한 장이 들어왔다. "이런, 홈즈 씨. 세상에나!" 기묘한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보낸 이의 주소도, 서명도 없었다. 나는 그 해괴한 문구에 웃음을 터뜨렸지만, 홈즈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이지 지독한 악행이군, 왓슨!"

홈즈가 말했다. 그러고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어젯밤 늦은 시각, 집주인인 허드슨 부인이 올라와 전갈을 전했다. 어떤 신사가 홈즈 씨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는 내용이었다. 전갈을 전한 사람이 물러가기가 무섭게, 해자(垓字)가 둘러진 저택에 사는 우리 친구 세실 바커가 뒤이어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몹시 수척하고 초췌해 보였다.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소식이에요, 홈즈 씨." 그가 말했다.

"내 예상이 맞았군." 홈즈가 말했다.

"전보를 받은 적은 없으시겠지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쪽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불쌍한 더글러스 말일세. 사람들은 그의 이름이 에드워즈라고들 하지만, 내게 그는 언제나 베니토 캐년의 잭 더글러스라네. 3주 전에 그들이 팔미라 호를 타고 함께 남아프리카로 떠났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나."

"정확합니다."

"배가 어젯밤 케이프타운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아침 존 더글러스 부인으로부터 이 전보를 받았습니다."

"잭이 세인트헬레나 인근 해상에서 폭풍을 만나 바다에 빠졌습니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이비 더글러스."

"하! 그런 식으로 벌어진 일이었단 말이지?" 홈즈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글쎄, 아주 치밀하게 꾸며진 연극이었음이 틀림없군."

"그러니까, 사고가 아니었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사고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살해당했다고요?"

"물론이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이 빌어먹을 스카우러스 놈들, 원한에 사무친 범죄자들의 소굴 같으니라고—"

"아니요, 아니요, 선생. 이건 아닙니다." 홈즈가 말했다. "여기에는 노련한 솜씨가 숨어 있어요. 단순히 총신을 잘라낸 산탄총이나 서투른 리볼버를 휘두르는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붓놀림 한 번만 봐도 거장의 실력을 알 수 있듯이, 저도 모리아티를 보면 단번에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미국이 아니라 런던에서 저지른 겁니다."

"하지만 동기가 무엇입니까?"

"실패가 곧 파멸을 의미하는 자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독보적인 지위는 오로지 모든 계획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사실에 달려 있지요. 거대한 지성과 방대한 조직이 단 한 사람을 말살하기 위해 동원된 겁니다. 마치 호두를 깨기 위해 거대한 대형 해머를 휘두르는 격이지요. 에너지 낭비라고 할 만큼 터무니없는 과잉 대응이지만, 어쨌든 호두는 아주 확실하게 박살 나고 말 겁니다."

"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일에 엮이게 된 거지?"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처음 접한 소식은 그의 부하 중 한 명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미국인들은 정보력이 아주 뛰어났더군요. 영국에서 일을 꾸미면서, 다른 외국 범죄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위대한 범죄 컨설턴트를 파트너로 끌어들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타깃이 된 남자는 파멸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의 수단을 동원해 희생양을 찾아내는 일에만 만족하겠지요. 그러고 나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시를 내릴 겁니다. 그러다 결국 요원의 보고를 통해 일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는 직접 나서서 거장의 솜씨로 상황을 종결짓고 말 겁니다.

내가 벌스턴 저택에서 그 남자에게 경고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가올 위험이 이전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이죠. 내 말이 맞았습니까?"

바커는 무력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짓찧었다. "설마 이 모든 걸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 악마 같은 놈을 도저히 대적할 방법이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홈즈가 대답했다. 그의 눈동자는 마치 먼 미래를 내다보는 듯했다. "그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운명의 눈동자가 여전히 베일 너머를 꿰뚫어 보려 애쓰는 동안, 우리 모두는 몇 분간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